

만주학회 제18차 국제학술회의

The 18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by th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

근대 만주의 도시공간과 문화정치

Urban Space and Cultural Politics of Modern Manchuria

- 일 시 : 2009년 5월 15일(금)
- 장 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04호
- 주 관 : 만주학회
- 후 원 : 동북아역사재단 · 연세대학교

■ 모시는 글

그 동안 동북아 지역 연구의 ‘아포리아’라 할 수 있는 만주에 대한 전문 학술연구를 수행해 온 만주학회는 오는 2009년 5월 15일(금) 동북아역사재단과 연세대학교 후원으로 제18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동안 저희 만주학회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회지를 발간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만주 연구 혹은 동북아 지역사 연구의 전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근대 만주의 도시공간과 문화정치”라는 주제로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만주학회 회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만주 혹은 중국 동북사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 정

◆ 오전 회의 (09:30~12:30)

※ 사 회 : 김기훈(육사)

※ 등 록

※ 개회사 : 한석정(만주학회 회장, 동아대)

※ 사 회 : 서정흠(안동대)

(1) 靑靑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

발표 : 최정옥(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토론 : 權赫秀(中國 東北師範大)

(2) 유진오의 「新京」에 나타난 공간의 정치학

발표 : 유수정(고려대)

토론 : 김재용(원광대)

(3)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 시인들의 만주 거주 유형과 만주 인식

발표 : 田月梅(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 윤상인(한양대)

◆ 오후 회의 (13:30~17:30)

※ 사 회 : 박선영(포항공대)

(4) 미래의 하얼빈사

발표 : James Carter (St. Joseph Univ.)

토론 : 한석정(동아대) 통역: 김인욱(육사)

(5) (在)만주' 일본문화의 거점 이동에 대하여 - 대련에서 '신경(현, 장춘)'으로

발표 : 小林英夫(日本 早稲田大)

토론 : 이동진(경북대) 통역: 정안기(고려대)

(6) '鮮滿一如'의 문화정치: 1937년 만주국 총리의 조선 방문에 대한 일 고찰

발표 : 임성모(연세대)

토론 : 윤휘탁(한경대)

◆ 종합토론 (17:30~18:30)

※사 회 : 한석정 (동아대)

Urban Space and Cultural Politics of Modern Manchuria

The 18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by th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

■ Schedule

- Date: 15th May 2009, Friday
- Place: Room 104, Building Saechunnyun, Yonsei University
- Host: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
- Sponsored b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Yonsei University

■ Welcoming Not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MSA) has long conducted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es on Manchuria, an 'aporia' in the study of Northeast Asia, and is pleased to announce that its 18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ould take place in the 15th May, 2009, with the generous supports from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Yonsei University. Despite the relatively short history, by regularly publishing journals and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the MSA has developed itself into a research centre for Manchurian studies as well as for Northeast Asian history. We open another international venue, with the presence of scholars from the world and Korea, under the title of '*Urban Space and Cultural Politics of Modern Manchuria*'. We hope many members of the MSA as well as anyone with interests in Manchuria or Northeast China enjoy the conference, which, without doubts, would make it more productive and successful.

■ Morning Session (09:00-12:30)

※ Presider: Kim, Ki-Hoon (Korea Military Academy)

※ Registration

※ Opening Speech: Han, Suk-Jung (President of the MSA, Dong-A University)

※ Session Chair: Suh, Jung-Hum (An-Dong National University)

(1) Urban Images of Harbin in the novels of Jueqing (爵青)

Presenter: Choi, Jung-Ok(Academic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Discussion: Quan, He-Xiu(Northeast Normal University, PRC)

(2) Politics of Space from the 'Xinjing (新京)' by Yu, Jin-Oh

Presenter: Yu, Su-Jeong(Korea University)

Discussion: Kim, Jae-Yong(Wonkwang University)

(3) Residential Patterns of Korean Poets in Manchur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ir Perception on Manchuria

Presenter: Tian, Yue-Mei (Academy of Korean Studies)

Discussion: Yoon, Sang-In (Hanyang University)

■ Afternoon Session(13:30-17:30)

※ Session Chair: Park, Sun-Young(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4) The Future of Harbin's Past

Presenter: Carter, James (St. Joseph Univ.)

Discussion: Han, Suk-Jung(Dong-A University)

Interpretation: Kim, In-Wook(Korea Military Academy)

(5) Movement in the Centres of Japanese Culture in Manchuria - from Dalian to Xinjing(currently Changchun)

Presentation: Kobayasi, Hideo (Waseda University)

Discussion: Lee, Dong-Jin(Kyungbuk University)

Interpretation: Joung, An-Ki(Korea University)

(6) Cultural Politics of 'Harmonization between Korea and Manchuria (鮮滿一如)': Study on the Manchukuo Prime Minister's Visit to Chosun in 1937

Presenter: Yim, Sung-Mo(Yonsei University)

Discussion: Yoon, Hwytak(Hankyung National University)

■ Free Discussion(17:30-18:30)

※ Chairman: Han, Suk-Jung(Dong-A University)

만주학회 제18차 국제학술회의

발 표 문

- 靑島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 3
/ 최정옥(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 유진오의 「新京」에 나타난 공간의 정치학 23
/ 유수정(고려대)

-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시인들의 만주 거주 유형과 만주 인식 42
/ 田月梅(한국학중앙연구원)

- The Future of Harbin's Past 69
/ James Carter(Saint Joseph's University)
미래의 하얼빈사 84
/ 번역 : 김인옥(육사)

- 在「滿」日本文化の拠点移動について—大連から新京(現長春)へ— 97
/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早稲田大学)
在「만주(滿州)」일본 문화의 거점 이동에 대하여
- 대련(大連)에서 신경(현, 長春)으로 102
/ 번역 : 정안기(고려대)

- 1937年 滿洲國 總理의 朝鮮 訪問에 대한 一考察
- '鮮滿一如'의 文化政治 114
/ 임성모(연세대)

爵青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

최정옥(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2)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슬럼 |
| 2. 하얼빈의 공간구획 | 3. '민족협화'의 '하얼빈'을 그리다 |
| 1) 키타이스카야의 네온사인 | 4. 나가기 |

1. 들어가기

爵青(1917-1960)¹⁾이 창작을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 중반이다. 그의 간략한 傳記 및 이력에 따르면, 그는 1930년대 초반에 습작기를 거쳐, 1930년대 중반에 이미 만주국의 여러 매체에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했고, 1940년에 들어서자 이미 만주의 대표작가가 되었다. 協和會 奉天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신청년New Young man』²⁾을 통해서 그는 두각을 보였다. 『신청년』과의 인연은 『신청년』의 문학부분을 맡은 姜靈菲와 成弦(이른바 冷霧派) 등과 1930년대 초반 『冷霧』³⁾동인으로 함께 활동했던 것이 계기라고 한다. 냉무파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에 경도되어 모더니즘 경향의 시를 습작했다고 한다. 爵青의 전기를 소개하는 서적에서는 그를 냉무파라고 쓰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만나서 문학적 지향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爵青의 전체 창작 시기를 거쳐 보여줬던 내면 심리 묘사와 철리의 전개 및 도시에 대한 우울한 정감의 발설 등은 그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데

- 1) 爵青의 본명은 劉佩이다. 필명으로 爵青, 遼丁, 劉爵青, 可欽 등을 사용했다. 『中國淪陷區文學大系-史料卷』을 보면, 그의 생몰 연도는 1916-1956년으로 되어 있다. 吉林省 長春 사람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의 손에서 컸다. 아버지의 부재를 그린 작품이 보이기도 하고, 미술(유화)을 전공했던 그의 심미안이 간혹 작품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는 長春日本公學堂, 長春交通學校, 奉天美術學校를 졸업했다. 1933년 滿日文化協會의 직원이 되었다고 한다.
- 2) 『新青年New Young Man』은 1935년 10월에 창간되어 총100호로 1940년 5월에 폐간된 종합잡지로, “건국정신의 선양과 건국정신을 이어 받아 이해 체득하여, 국민을 지도하고 훈련하며, 신문으로 보국하고 도의적 세계를 창출”(伸傑, 『新青年』T주년기념 謹話, 38호, 1936/10)할 것을 사명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상과 시사 방면과는 달리, 문학방면의 편집은 冷霧社의 姜靈菲와 成弦이 맡았음으로, 문학에서의 자유로움이 다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新青年』(新青年旬刊社, 奉天: 玉興印書館, 1권1기-9권4기. 中國: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中心, 1993)을 참고로 하였다.

크게 어그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우선적으로 그가 대단히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했던 多産작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는 초현실적인 수법으로 자기 관념에 기인한 인물을 그려냈을 뿐 아니라, 기이한 즐거리를 추구하고, 허황되고 황당한 이야기를 썼던 작가라고 평가된다. 그는 괴테·플로베르·앙드레 지드·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 작품 속에 철학적 주장을 담은 작가라는 점에서, 그는 소설의 ‘철학’화를 자신의 문학적 주장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평론가나 작가들로부터 ‘知性作家’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관념성과 철리성으로 인해 그는 ‘鬼才’라는 평가를 받았다.³⁾ ‘知性作家’라는 타이틀은 그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의 이름에 걸 맞는 작품은 1940년대에도 이어졌다. 문학 속에 철학을! 反세속·기이함·신기함의 추구 및 인공성에의 애호는 爵靑의 작품 스타일을 말해주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爵靑의 이러한 작품 세계는 다른 논자들에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⁴⁾

爵靑 작품을 소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근대의 도시적 삶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해악과 도시 청년 지식인들의 우울을 그린 작품과 봉건가정에서 파멸로 걸어가는 청년들의 나약함을 그린 작품, 그리고 후기로 가면서 이채롭게도 귀향·혈육·토지를 그린 작품 및 몇몇 역사소설이 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漢奸文人으로 단죄받았고, 오랫동안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明明派-藝文志派의 일원으로 滿洲文話會와 滿洲文藝家協會의 중국인 본부위원을 맡았다는 점, 1942년 『구양가의 사람들(歐陽家的人們)』으로 盛京文學賞을 받았다는 점, 만주국 건국10주년 기념작으로 『中央公論』에 『얼은 정원에 내려(凍った園庭に降りて)』가 실렸다는 점, 만주국 대표로 大東亞文學者大會에 2차례 참가했고, 그의 『황금의 좁은 문(黄金的窄門)』이 제1회 大東亞文學賞(1942)을 수상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행적에 말미암아 그의 문학작품 발굴 및 출판, 연구 등이 기존에 활발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1945년 이후의 爵靑의 행적에 관한 자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령 『中國淪陷區文學大系—史料卷』에서도 아주 소략한 정도에 그친다. 다만 1945년 이후의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爵靑代表作』에 따르면, “건국 후 吉林大學圖書館에서 일했다”⁵⁾고

3) 당시의 吳郎은 그의 작품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작품 깊은 곳에는 지드와 플로베르의 맛이 난다. 그는 그들을 자기의 작품 사상 속에 융합시켰고, 이것으로 그는 유일한 知性작가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를 鬼才라고 불렀다.” 黃萬華, 『藝文志派4大作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4, 1) 재인용.

4) 그 중에서도 秋螢의 비평은 아주 날카롭다. 秋螢은 전위前衛의 시각으로 지금 현실을 꿰뚫어 봐야하고, 현실의 배면에 존재하는 역량을 봐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爵靑 초기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주관적인 환상에 빠져있고, 개인과 천재를 숭배하는 인물이며, 작중인물과 마찬가지로 작가 또한 현실을 정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秋螢, 『論劉爵靑的創作』(『明明』, 11기)

5) 『爵靑代表作』은 그의 사망연도를 1960년이라고 적고 있지만, 『中國淪陷區文學大系-史料卷』은 1956년이라고 적고 있고, 일본의 岡田英樹는 1962년이라고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후의 그의 행적은 그리 명확하지 않고 자료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中國現代文學館 編, 葉彤 編選, 『爵靑代表作』, 『作家小傳』(北京: 華夏出版社, 1998), 339쪽.

만 되어있다. 다행히 최근에 이 지역의 문학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만주국 붕괴 이후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행적과 그들의 작품 발굴 및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본고는 爵靑이라는 작가의 전체적인 창작특징 속에서 하얼빈이라는 근대도시가 어떻게 표상되어 있고, 그것이 그의 전체 작품 창작 경향에서 어떤 특징을 띠는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⁶⁾

2. 하얼빈의 공간구획⁷⁾

하얼빈의 역사는 러시아의 중동철도 부설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1896년, 제정러시아가 중동철도 부설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 하얼빈이다. 하얼빈은 지리적으로 만주평원의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가는 철도와 松花江이 만나는 지점으로, 水運과 철도를 통한 물자의 운반을 위해서 선택된 곳이다. 이때의 도시계획은 이후 하얼빈의 원형을 이뤘는데, 도시공간은 크게 4개 지구로 나뉜다. 하얼빈시의 원형이 된 구시가인 香坊(=스타르 하얼빈)과 하얼빈역과 철도관리국 및 중앙사원이 세워진 시의 중추부인 신시가지인 南崗(=秦家崗=노브고로드), 송화강 연변의 매립지인 埠頭區(=프리스탄=道里),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傅家甸(=道外)이 그것이다.

이후 하얼빈은 1933년 관동군의 대하얼빈건설계획과 도시개발로 거대도시로 확대됐다. 위의 4가지 핵심지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埠頭區에는 京濱線, 하얼빈역과 송화강 사이에 일본인 거주지와 도리공원, 야마토호텔이 들어섰고, 키타이스카야, 太陽島 등의 유락시설, 외국인 고급주택이 들어섰다. 道里와 마주하는 道外=傅家甸은 중국인 밀집지구로, 상점가와 유흥가 및 아편굴이 생겼고, 埠頭區와 傅家甸 사이에 소규모 공장지대=八站區가 생겼다. 신시가지인 南崗區는 하얼빈역의 내륙부로, 러시아인 밀집 복합 거주지역이 형성됐고 극장이 밀집되면서 문화가를 형성했다. 신시가 외곽의 馬家溝와 埠頭區 인근의 新安阜=나하로프카 등지에는 러시아혁명 이후 백계 러시아인의 거주지, 그 중에서도 빈민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하얼빈의 도시 형성은 초기에는 러시아인, 1930년대는 일본인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이야기되는데, 이럴 때 쉽게 간과되는 것은 건설 노동자로 참가한 자들이 바로 山東이나 河北에서 올라온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재만 중국인 작가들이 만주에서의 자신의 뿌리를 찾

6) 덧붙이면 爵靑의 작품 중 하얼빈이 배경인 작품은 「哈爾濱의獨唱者」(『新靑年』, 1935년, 5호), 『歐陽家的人們』(新京藝文書房, 1942/12 출판)에 수록된 작품으로 「哈爾濱」, 「某夜」, 「巷」, 「大觀園」, 『歐陽家的人們』, 『戀獄』(『歸鄉』, 新京藝文書房, 1943년 출판), 『賭博』(1942년 滿洲文藝家協會가 華北作家協會에 추천한 작품으로 北京의 『中國文藝』에 수록, 이후 『滿洲國各民族創作選集(2)』(1942, 創元社)에 재수록), 「凍った園庭に降りて」(『中央公論』, 1943년 9월) 등을 들 수 있다.

7) 하얼빈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西澤泰彦, 『‘滿洲’都市物語』(日本; 河出書房新社),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서울; 역사비평사)의 임성모의 서술한 하얼빈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는 글쓰기를 행할 때(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걸쳐서 많은 작품들이 탄생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시작으로 松花江 철교나 중동철도 및 남만철도의 부설 사업과 관련해서 노동자로 일하고, 드넓은 만주의 벌판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계절성 이민에서 현지에 정착했음을 거론한다. 爵靑의 『大觀園』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내력을 이렇게 말한다. 부친은 하얼빈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러시아인이 중국에 들어와 철도를 놓을 때, 山東의 계속된 가뭄으로 도망치듯 이곳으로 와서, 러시아 병영에서 살면서, 병원에서 주방장을 하거나, 러시아인을 따라 산림과 금광 측량을 따라 다녔다. 그리고 후에 松花江 위의 철교를 만들고 그 위에 철도를 놓을 때는 철도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임금이 중간에서 가로채이자, 참을 수 없어 그곳을 도망쳤다. 그 후 구멍가게를 열거나 음식점을 열거나 잡화점을 열거나 했고, 마침내는 작은 여관에 등지를 틀고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이 되었다. 山東 고향집에는 12년 동안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은 부친은 이렇게 고향과 처자식을 그리워하지 않고, 아들의 존재마저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하얼빈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이름 없는 중국인 쿠리의 힘으로 만들어졌지만, 외부적으로는 이국정취의, 동양의 모스크바니, 파리니 하는 식으로 선전되었다.

분명 하얼빈에는 많은 인종이 한데 모여 살았다(일부 논자는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로 하얼빈에서의 다민족의 잡거를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시선에 만주국의 일원인 ‘오족’과의 협화는 그다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들, 자신들의 삶의 주변들을 즐겨 그렸는데, 그런 그들의 시선 속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그저 풍경처럼 다가왔을 뿐이었다. 하얼빈의 백계 러시아인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의 삶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은 그다지 그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재만 일본인 논자들은 ‘만주적인 것(滿洲もの)’에 대한 논의를 ‘만주문학’ 담론과 연결지어 펼치고 있었고,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향토에 대한 논의’(郷土文學論爭)를 통해서 중국과의 연계 및 현실에 뿌리내린 힘있는 작품을 창작하고자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爵靑을 위시로 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만주국의 밝음이 아니라 어둠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爵靑의 경우 그가 서구 모더니스트에게서 ‘私淑’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자면, 어둠에의 끌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둠에의 끌림은 바로 하얼빈을 그리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감각상의 대비로 드러났다. 시각적인 대비로 보자면, 네온 사인과 가로등을 밝은 곳=키타이스카야/埠頭區 對 가로등의 그늘이 다한 곳=슬럼가/傅家甸의 대비, 청각적인 대비로 보자면, 자동차 소리·유행가요·돌이 깔린 거리를 걷는 발자국소리와 아울러 도박에 빠진 중국인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나 거리의 창녀들이 호객하는 소리의 대비로 드러난다. 여기에 후자에는 시궁창의 냄새와 벽 틈새로 빠져 나오는 아편 냄새가 덧붙는다. 이렇게 爵靑에 의해 그려진 하얼빈은 도시 행정 구역지도와는 달리 감각적인 차이들로 구획되고 있어서,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인상과 감각으로 그려진 하얼빈을 만날 수 있다.

1) 키타이스카야의 네온사인

본고에서 중요하게 다룬 지역은 埠頭區와 傅家甸이다. 埠頭區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원래 중동철도의 부속지가 아니었지만, 秦家崗=南崗과 香坊으로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필요로 1903년 중동철도가 개통할 당시에 철도부속지에 편입되었다. 이곳으로 유럽의 자본과 상인이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인 여관과 상점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상업 지구로 발전했다. 부두와 도시 중심을 잇는 길에 중국인 인부가 건설자재를 운반했던 길이 라고 하여 ‘중국인 거리’라는 뜻의 키타이스카야(=中央大街)라는 이름이 붙었다. 키타이스카야에는 모데른 호텔, 러시아자본의 백화점인 秋林洋行의 埠頭區 지점, 키타이스카야 제일의 고층건물인 일본자본의 松浦洋行⁸⁾이 나란히 들어섰다. 이 지역은 하얼빈의 대표적인 도시로 당시에 널리 소개됐다. 이 지역에 대한 전형적인 표상은 식민지 조선의 소설가인 이효석의 언급에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다.

호텔이 키타이스카야의 중심지에 있자 방이 행길 편인 까닭에 창기슭에 의자를 가져가면 바로 눈 아래에 거리가 내려다보인다. 삼층 위의 창으로는 사람도 자그마하게 보이고 수레도 단정하게 보이며 모든 풍물이 가뜩가뜩 그 자신 잘 정돈되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쉼 새 없는 요란한 음향은 어디선지도 없이 한결같이 솟으면서 영원의 연속같이 하루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 / 나는 이 삼층의 전망을 즐겨해서 방에 머무르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의 의자에서 지내기로 했다. 아침 비스듬히 해가 드는 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차츰차츰 늘어 가려 할 때와 저녁 후 등불 켜진 거리에 막 밤이 시작되려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조각돌을 깔아 놓은 두툼두툼한 길바닥을 지나는 마차와 자동차와 발소리의 두박두박 거칠은 속에 신선한 기운이 넘쳐 들리고 여자들의 화장한 용모가 선명하게 눈을 끄는 것도 이런 때이다.(이효석, 『하얼빈』)

두 차례 하얼빈을 방문한 이효석은 하얼빈과 관련해서 작품들을 남겼다(『하얼빈』(1940)과 『벽공무한』(1940)).⁹⁾ 이효석이 그린 ‘하얼빈’은 그에게 “애수를 부추기는 환각의 미학”의 장소였다. 이효석은 하얼빈 거리를 “바라보는 동안에 번번이 슬퍼져 감을 느낀다. 이유

8) 松浦洋行은, 戰前의 하얼빈의 시가를 내려다보는 사진은 모두 이 건물의 돔에서 촬영한 것이다. 하얼빈을 대표하는 바로크양식의 건물이라고 한다. 맞은 편에 모데른 호텔이 있다.

9) 이효석의 하얼빈을 제재로 한 작품에 대한 한국학계의 평가는 크게 3가지로, 당시의 다른 식민지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식민주의적 무의식”으로 하얼빈을 보고 작품을 창작했다거나, 일제말 가속화되는 파시즘 체제에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곤혹스러움을 보여준다거나 또한 창조적 몽상을 통해 폐쇄되어 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 지적 모험을 표상한다거나 하는 평가다. 본고는 식민지 말, 이효석의 정치적 입장이나 그의 작품이 갖는 의의 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효석이 당시 하얼빈의 도시 건설 및 그 역사와 관련해서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혀 사고에 넣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시선의 차이가 바로 재만 중국인 작가와 조선인/일본인/서양인 작가들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를 똑똑히 가리킬 수 없는 근심이 눈시울에 서리워 진다.”(『하얼빈』)고 말하는데, 그는 왜 하얼빈을 바라보고 슬픔이나 근심을 느끼는 것일까. 그의 에세이(『대륙의 껍질』)를 보면, “[도시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계획 …… 고색창연한 거리의 감각이 무엇보다 마음을 야기시켰다. 슬라브족의 삶의 특수함이 거의 순수하게 표출되어 그것이 이상한 감정을 불러 일으켜준다.” 그렇게 슬라브족이 만든 도시는, 설계자들이 세력을 잃고 숫자가 줄고 점점 뿌리와 터전을 ‘이쪽 사람들(일본인과 중국인)’에게 이양하고 말았다는 데서, 이효석은 백계 러시아인의 몰락에서 애달픔을 발견했다. 당시 만주에서 활동했던 중국인 작가나 일본인 작가 등도 1917년 혁명 이후 나라를 잃고 東北지역(이후 만주국)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백계 러시아인에게 동정하는 작품을 남기고 있다(田兵의 『阿了式』, 竹内正一の 『流離』 등). 그들을 대하는 중국인 작가 등의 태도는 고향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트클럽의 수위나 댄서 및 도박장의 보이, 부랑자로 그려지는 백계 러시아인은 재만 중국인 작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인 하층 민중과 하등 다름 바가 없다.

위에서 알 수 있듯, 이효석은 키타이스카야의 특징을 시각적·청각적으로 잘 포착하고 있다. 게다가 키타이스카야니 러시아묘지니 중앙사원이니 하는 말로, 그는 하얼빈의 이국적 정취를 잘 보여준다. 하얼빈에 이식된 서양적인 면모를 그는 몇 개의 지명으로 보여주고, 근대도시의 유동하는 인구와 자동차, 및 최신 유행가요가 흐르는 인상을 스케치함으로써 말이다. 도시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호화된다고 했을 때, 이효석이 그려내는 하얼빈의 몇 가지 상징적 장소와 건물은 동양의 이국적 도시를 표상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효석의 감상은 바로 그의 ‘시선’ 덕분에 가능하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선의 획득. 위의 인용에서 호텔 3층에서 거리를 본다는 사정이나 하얼빈의 길거리들을 조감할 수 있는 시선의 확보가 그것이다. 이것은 그가 단지 2차례 하얼빈을 여행했을 뿐인데도, 이미 하얼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¹⁰⁾ 그는 당시 여행책자나 안내책자 등에서 선전되는 하얼빈에의 지식을 갖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로서는 유우라의 입을 통해서 하얼빈을 러시아의 옛 식민지였지만, 이제는 ‘이쪽 사람들’에게 뿌리와 터전을 이양했다는 애달픔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경우는 이효석이 취한 시선과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여행자가 아니었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만 중국인 작가의 경우, 거리를 보는 시선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다. 이들은 俯瞰이나 鳥瞰의 시선을 갖지 못한다.¹¹⁾ “천민을 보

10) 하얼빈의 유람버스는 다음과 같은 코스를 돈다. <하얼빈역->하얼빈 신사->중앙사원->비행장->총령탑->러시아 병영->철도구락부->師團司令部->秋林공장->공자묘->러시아인 묘지->極樂寺->경찰청->滿人백화점>平康里->傅家甸 어시장->公會堂->모스토와 거리->埠頭공원->松花江 요트구락부->秋林洋行->바자->소피아성당> 川村湊 著, 『滿洲鐵道まぼろし旅行』, 東京: 文藝春秋, 2002. 하얼빈 부분 참조.

11) 물론 네온사인의 물결, 깎아지른 절벽같은 건물들, 사람들의 차의 행렬을 원경에서 그리는 장면도 나오기

려면 높은 곳에서 내려 봐야 하나까.”(爵靑, 『戀獄』) 천민인 중국인의 시선은 지면에 박혀 있다.

(1) 지하실은 습하고 차가운 돌벽으로 사방이 포위되어 있고, 좁은 실내의 작은 창문으로는 보도를 걸어가는 행인의 발만 보이고, 수척한 말과 속도를 늦춘 차 바퀴소리가 밀려들고, 맞은 편 거리의 유태인 부인이 창외 유리에다 하수물을 뿌리고, 저녁에는 돌계단 위에서 자는 빈민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哈爾濱의 獨唱者』, 『新青年』, 5호, 1935/12)

(2) 머리를 들어 먼지가 가득 쌓인 커튼 상면을 바라보니, 소세지형의 혹은 각기둥형의 바지가 창 밖으로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이 보인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큰 도시의 어느 시가지 끝자락의 지하실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맞은 편에 걸려 있는, 불빛을 토해내는, 정치선전보다도 더 마음을 자극하는 상업광고이다.(『某夜』, 38쪽)¹²⁾

위의 (1) 『하얼빈의 독창자』는 爵靑의 초기작으로, 아주 짧은 단편이다. 위 인용은 작중 인물인 페이(腓)가 사는 지하실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이다. 그가 사는 곳은 이른바 아파트 식으로 경영되는 건물이다. 1층은 건물 주인과 법률사무소, 의사가족, 보석상인의 출장소, 여행업 사무실, 음악 강사가 살고, 지하에는 주인집 고용인과 카바레에서 잡일을 하는 유태인 노인과 上海에서 도망치듯 올라온 실업자인 페이가 산다. 이 건물은 다양한 인물 군상이 모여 살지만, 그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주인공 페이는 직장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 도시를 거닐면서 ‘獨唱’하는 자다. 지하실의 자기 방을 나서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으레 그러하듯,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쬐거나 원도우 너머의 진열 상품을 구경하거나 음악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소비한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지하실 자기 방으로 내려간다. 페이에게 그리고 작가 爵靑에게 하얼빈은 上海와 같은 근대적 도시의 전형일 뿐이다. 개인을 소외시키고, 타인과의 소통을 차단시키며, 왠지 비뚤어진 성격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도시다. 爵靑의 초기작은 도시적 삶에 대한 회의로 가득하고, 도시의 매력에 빠져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 속에서 하얼빈은 하나의 예로 등장했다. 도시를 그리거나 도시가 배경이 되는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모두 근대 도시적 삶에 대한 비판이다.

爵靑의 『하얼빈』은 도시의 거대한 건물과 변화함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압도당한 경험을 그리고 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穆麥이 느끼는 현기증을 통해서 작

는 한다. 『하얼빈』의 冒頭.

12) 아래 爵靑의 작품은 『爵靑代表作』(北京; 華夏出版社, 1998)을 참고했다. 출전이 다른 작품의 경우 출전을 밝혔다.

품은 하얼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말하고 있다.

오후의 하늘 아래 서 있는 건축물,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동차, 커다란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식들 …… 정말로 산악의 횡단면에서 튀어나온 태곳적 화석층같다. 바로 거리를 활보하는 청년 남녀와 신기한 광고는, 穆麥의 눈에서는 실상實相을 잃었다. 소란스런 자동차의 탄식소리와 차바퀴의 마찰음, 흡사 해양의 노도와 같은 거대한 소리, 그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哈爾濱』, 7쪽〕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穆麥에게 하얼빈의 휘황찬란한 모습은 그의 여린 신경에는 큰 자극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물질문명의 위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점의 원도우가 만들어내는 어떤 격리였고, 또한 근대화된 도시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부분의 각성이었다. 그는 어느 날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약방에서 수면제를 샀다. 수면제를 사고 거리를 걷다가 원도우를 장식한 강렬한 색조에 눈을 빼앗겼는데, 원도우 안에는 “고가의 카펫 위에 앉아 있는 밀랍인형”이 있었다. 그 곁으로 술에 취한 백계 러시아인이 와서 창문 안을 유심히 보고는 장탄식을 하고는 다 떨어진 가죽구두가 물웅덩이를 밟는 소리를 내고 멀어져 갔다. ‘갈색(棕色)의 이국 방랑자’를 보고, 穆麥은 생각하길, 아마 모스크바의 화려하고 부유했던 지난날을 그리워한 것일까, 방랑객의 우울함과 타향살이의 상심에 슬퍼하는 것일까. 도시는 타향살이의 설움을 주는 한편으로, 고향의 편안함조차 주지 못하는 삭막한 곳이다.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음에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곳, 자본주의가 심화된 하얼빈은 민족적 갈등보다도 계급적/경제적 갈등이 더 골이 깊은 곳이다.¹³⁾

이 산처럼 쌓인 물건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도시에는 그저 인력거꾼, 화물 운반부, 빈곤자 무리에서 뛰쳐 나온 쿠리만이 도시의 대 동력, 도시의 重心, 수명과 활력은 그들 갈색의 육체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꾸로, 이 도시의 전 재산은 그들의 것인가? 그들은 그저 커다란 상점의 원도우 장식 앞에 있을 뿐이고, 혹은 금융방송 안에 있을 뿐이고, 그저 때때로 탄식 소리를 낼 수 있을 따름이다.〔『哈爾濱』, 8쪽〕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중국인 노동자들의 탄식이 거리에 가득 차고, 고향을 잃고 영락한 신세를 한탄하는 백계 러시아인이 배회하는 장소로서 키타이스카야가 그려진다.

위의 (2) 『어느 밤』은 술집에서 나온 ‘나’와 친구 ‘한(罕)’이 걸어가면서 그들의 시선과

13)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민족적 갈등보다는 계급적 갈등을 더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로는 민족적 갈등을 계급적 갈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도 많다. 특히 爵靑의 경우, 만주국 부르조아의 자본과 성에 관한 욕망과 타락을 그린 작품을 통해서 자본주의 논리로 점철된 근대적 삶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

그들의 대화로 당시의 풍경과 풍속이 그려진다. ‘나’와 친구는 新安區에서 멀지 않은 霞曼街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술에 취한 그들이 걸어난 거리의 이름은 일일이 거론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 나올 뿐이다. 거기서 이들이 新安區->埠頭區->傅家甸으로 이동했음을 추적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爵靑은 傅家甸의 이름을 정면으로 내걸지 않는다. 중국인인 자신이 살아가는 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키타이스카야”와의 거리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한다.

이들은 네온사인의 바다인 키타이스카야를 횡단한다. “핏빛 같은 등불의 바다 속에서 저 세계는 멸망 직전이라야 들을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를 전해주는” 키타이스카야를 횡단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은 여기 없는 친구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건물에 도착한다거나 “이 거리의 일반적 보통의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신문과 짙은 차로 하루의 힘든 노동을 잊으려는 가장, 라디오(無線電)에서 방송하는 戰況뉴스를 들을 아내, 백화점에서 사온 전차모형을 갖고 노는 어린 아들. 이렇게 중산층이 사는 거리를 지나 인파와 자동차의 흐름을 거슬러 간 큰 거리에서 유흥가. “모퉁이를 돌아, 이 길거리와 평행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面包街로 접어들었다. 군데 군데의 등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도의 석판 위로 때로 숨겼다가 때로 비추었다.”(『某夜』, 42쪽)

이렇게 모퉁이를 몇 번을 돌아서 도달한 큰 거리. 이 거리의 술집들은 사람을 유혹하는 광고패들을 내걸고 있다. 광고패의 위쪽에는 “검은색 복면을 쓰고 전신은 벗은 채 두 손으로 紅玉色の 술을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여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유혹적인 이국정조의 처녀림”이라고 쓰여 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술집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가 커졌다가 작어진다. 작중 인물인 ‘나’와 친구인 ‘한’은 이 광고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나’에 따르면, ‘이국정조’란 영웅주의, 또는 감상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는 적진에서 주색을 향유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타향에서 旅愁를 맞본다”(『某夜』, 45쪽)는 의미이다.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이국정조는 실상 하얼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고, 그저 그곳을 잠시잠깐 지나치는 자들에게만, 그리고 적진이나 타향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환상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술집 안에 흑색의 복면을 한 나체의 여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무슨 이국정조란 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술집에서 시중을 드는 그녀들이 유행하는 싸구려 옷을 입고 있을 뿐이고, 벽에는 아테네의 그림이나 혹은 시베리아의 눈과 얼음을 그린 경치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某夜』, 45쪽)

이렇듯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는 흡사 ‘무대장식’ 같다. “우리는 걸었다, 무대장식과 같은 거리 풍경에 무관심하면서.”(『某夜』, 46쪽)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앞에서

이효석이 하얼빈을 그리듯이 외부의 시선이 포착하는 ‘동양의 파리’와 같은 하얼빈의 이미지와는 달리, 하얼빈에게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우, 그것이 소개되고 선전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爵靑에게 하얼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키타이스카야의 이국정조의 풍경은 그저 ‘무대장식’과 다름없음을 이 작품은 잘 말해준다.

다시 큰 거리가 다한 곳에서 모퉁이 몇 번 돌면,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떡이 준비하게 진열된 음식점, 과일가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광고패들이 가득 서 있는 술집, 모피상점, 유명여배우와 제복처녀의 사진이 걸려 있는 사진관을 지나면, 준비하게 늘어선 약국이 나타난다. 약국의 처마 밑으로 늘어뜨려진 많은 광고패들, 창문에 붙어 있는 광고는 흡사 “광고 그림 전람회처럼, 위축된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준다는 남성호르몬, 폐병에 좋다는 약, 안정제,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성도구”(『某夜』, 45쪽) 등등을 선전하는 광고패들이 걸려있다. 겉으로 사람의 시선을 미혹하는 풍경이 아니라, 일상을 읽을 수 있는 이미지로 가득 한 곳. 이곳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끝나는 곳까지 가보자. 가로등의 그늘이 다한 곳에서 이어지는 어둠. 그 어둠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풍경은 어떤 것일까. 무대장식을 떠나 좁은 골목으로 가로등이 다한 곳으로 그들은 간다. 爵靑은 한 번도 작품 안에 그곳이 傅家甸이라고 지명한 적이 없다. 그저 그곳에는 어둠이 있고, 다투는 소리가 있고, 아편냄새와 썩는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말할 뿐이다.

2)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슬럼

傅家甸은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埠頭區가 러시아인과 구미인의 상업지구로 발전하자, 이들과 거래하기 위해서 중국인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을 위한 거주지로 형성된 지역이다. 철도부속지(=道里) 옆으로 형성되었으므로 道外라고 불렀고, 신해혁명 이전에는 濱江廳의 관할에 있는 吉林省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傅家甸은 1916년부터 시가지가 확장되고 도로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인의 상업중심지로 변모했다. 이 지역에는 서양고전 건축양식을 본 따 만든 중화바로크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키타이스카야가 화려한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도시로 전형적으로 이야기된다면, 傅家甸의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이와 반대되게 어둠과 적막으로 이야기된다. “우리는 생각했다. 30분도 채 견지 않았는데, 우리는 고가의 피혁이 진열되어 있는 큰 거리에서 이곳으로 왔다. 그 놀라움에 우리는 침묵했다.”(『某夜』, 47쪽)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바로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작중 인물들(『某夜』의 ‘나’와 친구, 『哈爾濱』의 穆麥 등)은 놀라는 것이다. 이렇게 두 공간은 극명한 대비를 잘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둘은 어둠이 있어야 더 밝은 것처럼, 밝음이 있어서 어둠이 더 짙은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슬럼은 도시의 지하세계의 다층적인 비유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빛은 없다, 하늘도 의외로 흑색이다, 비록 날이 맑다고 해도, 이 거적이 깔린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별 하나 볼 수 없다. 단지 먼 곳의 상공에는 일부 네온 등불이 군데군데 빛나고 있다. 이 빛은 너무나도 멀리서 온다. 이 외곽에서 몇 리 바깥에서 온다.〔巷〕, 50쪽)

저녁이 되면 낮은 처마의 판자집(木屋)들 너머로 네온사인이 별처럼 빛난다. 네온사인의 불빛에 속박 당한 양, 그렇게 밤의 풍경도 밝은 곳을 향해있다. 이 불빛은 어느 판자집의 모퉁이를 돌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모퉁이를 돌면 등장한다. 그것은 흡사 권력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듯이 점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네온사인이나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비가시성의 공간이다.

傅家甸의 뒷골목은 미로와 같다. 사람들은 그곳을 더듬듯이 형성해나갔다. 계속해서 『어느 밤』의 ‘나’와 친구의 발걸음을 쫓아가자. 작중의 ‘나’와 친구가 도달한 곳은 근대 도시의 변화함과 시끄러움을 지나, 상점과 사진관이 문을 닫은 거리를 지나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도 그다지 없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막다른 곳, 가로등 불빛의 그늘이 다한 곳이다. 빛이 다하고 어둠만 있는 곳. 그러나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에 익숙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어둠에 갇힌 것들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슬럼가(狹街)’를 구성하는 것은 어둠, 좁은 골목, 진흙탕, 그 위에 높여 있는 거적과 나무판으로 만든 가판, 섞은 물웅덩이에서 피어오르는 독가스 등이다.

칠혹 같은 어둠, 어둠, 손을 뻗어도 손가락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고, 칠혹 같은 어둠은 짙을 갈아 놓은 길에서 독기와 섞여 확대되기 시작한다. 폭은 대략 2척, 양쪽에는 높은 목판이 끼워져 있다. 목판 위의 못은 때때로 행인의 옷을 찢는 소리를 내어 행인에게 고한다. 이 위에 오래된 금속 못과 철판과 기와조각과 천 조각 등이 있다고. 다리 아래는 도랑인데, 가판이 오래되어 느슨한 곳을 신중하지 못한 행인이 건너갈 때 자칫하면 진흙탕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위를 걸어갈 적에는 삐걱대는 유쾌하지 못한 소리가 난다.〔巷〕, 50쪽)

칠혹 같은 어둠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시각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후각과 촉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후각으로 이 세계를 판단할 것.”〔某夜〕, 47쪽) 어둠에 익숙해진 나의 시각은 이제 회백색의 희뿌연 연기 안에서 음습하게 피어오르는 작은 판자집들을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주택난 탓이었을까, 길 양측으로 모두 낮고 작은 단층집이 있었다.”〔某夜〕, 47쪽) 그 골목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불결한 위생상태,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집, 창문을 뚫고 나오는 냄새, 그리고 서로 떠들썩하게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작품에는 지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적다. 다만 작중 인물이

움직이는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돌이 깔린 길이라든지, 아스팔트거리라든지, 자동차가 달린다든지 하는 표현에서 埠頭區나 南崗인 줄을 알게 된다.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작품에 그려진 중국인 밀집지구의 일상적인 모습은 처마가 낮고 가지런하지 않은 판자집과 그 처마 아래로 난 물웅덩이, 푸르게 곰팡이가 피고 썩어 푸르게 변해버린 물웅덩이 표면, 그 위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시체 썩는 듯한 냄새로 대변된다. 서양식 도시가 갖다 버린 것들이 쓰레기로 존재하는 곳, 그곳을 靑靑은 새로운 감각으로 만들어낸다.

판자집 틈 사이의 작은 길 위에는 그늘이 반, 더러운 녹색 물웅덩이가 반이다. 물웅덩이 위에는 조개색의 부초浮藻와 푸른 이끼靑苔가 떠다녔다고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피어올랐다.〔巷〕, 50쪽)

시체 썩는 냄새는 은유가 아니다. 시장의 원칙이 지배되는 곳인 하얼빈에서 자신의 몸 팔고 있는 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판다.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하룻밤 자신을 사주길 바라는 창녀들. 『어느 밤』의 ‘나’와 친구가 도착한 곳도 바로 도박으로 시끄럽고 서로 몸을 팔겠다고 호객하는 창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사실 시에서는 “稅法을 위반하는 교역”이라며 그것을 금지하지만, 사람들은 (처)자식을 혹은 조카를 “염가로 인육을 경매”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곳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대관원”이다.

靑靑은 『대관원』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썼다. 그는 작품을 시작하는 모두에서 하얼빈을 소개하는 지도에는 대관원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곳에 사는 자들의 존재 의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불빛=계몽과 치안권력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로, 추방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를 주워 팔았던 이 지역의 역사처럼, 그렇게 대관원에 사는 사람들은 근대화의 이면에 놓여진 버림받은 자들의 집합소이다. 쓰레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지도에도 그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靑靑이 그리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靑靑은 거대한 松花江 철교에서 작게는 작은 골목까지도 모두 그려놓는 시가지 지도에 왜 대관원을 그리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분명 대관원이 대도시 안의 부패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인체를 상상하거나 그릴 때 곁으로 보이는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균형 잡힌 사지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을 이루는 것들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세포들이나 이미 썩기 시작하는 내장이나 폐와 공존한다. 속에 있어서 가시적이진 않지만, 또한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린다. 이것을 도시의 전체 모습에서 보자면, 하얼빈이라는 도시에도 러시아인 묘지, 중앙사원, 모스크바 병영이나 태양도, 경마장 등의 도시의 밝음을 보여주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쓰레기더미를

모아놓은 곳도 존재한다. 爵靑에게 대관원이란 바로 밝음이 있기에 존재하는 어둠이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대관원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존재론적으로 이 지역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다. 비록 대도시의 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상품을 갖지 못하는 존재지만, 그들의 노동이 없었다면 이 도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근대의 負의 모습을, 자기의 역사로 기록한다.¹⁴⁾ 그래서 그는 주소를 정확히 기입한다. “哈爾濱北七道街 大觀園”이라고. 남쪽의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와 불빛이 나는 곳과 정반대의 북쪽에 존재하는 곳. 아버지를 찾아 山東에서 올라온 朱는 감각적으로 자기의 방향을 안다.

爵靑에 따르면, 이곳은 밀천을 갖지 못한 일부 외지인들이 적은 자본으로 시민들이 배설해낸 쓸모 없는 물건들을 수리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되파는 중고시장과 같은 곳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얼빈으로 이주해왔던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고시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투기적인 영업이었고, 여기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냈다. 그래서 헌 의류, 구 피혁, 헌 목기, 헌 서적 등을 파는 상점이 들어섰고, 그곳이 번성하자 그 옆으로 채소시장과 어시장이 들어섰고, 급기야는 野妓시장=홍등가가 들어섰다. 쓸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시장의 물건이 되어 거래되듯, 사람도 ‘인육을 팔고 사기에 이른다’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한 자들에게 ‘인육장사’라든가 도둑질이나 아편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다른 헌 것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일이었다. 하얼빈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곳이었고, 또한 일생을 묻을 천국이였다. 대관원은 그 천국에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묘지였다. 천국에 만들어진 그들의 냄새는 바로 ‘요오드포름’ 냄새이다. 화류병에 특효약인 요오드포름은 아편냄새와 더불어 그들의 생활상을 후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생과 치안의 논리에서 보자면, “대개 낮고 왜소하며 어두는 이 지역은 확실히 주위의 고층 빌딩과 아스팔트도로, 자동차, 광고등과 어울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巷』, 46쪽) 그래서 이 지역도 권력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다. 경찰들의 불시적인 단속이 뜬다. 그리하여 한 방에 있는 남녀는 화류병용 고약과 요오드포름을 갖고 있음을 증거로 “대낮에 풍기 문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후 대관원에서 이 두 젊은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도시의 배설물이 쓰레기더미를 이룬 기이한 세계”인 대관원. 신원불명의 ‘인간쓰레기’는 어느 순간에 제거된다. 그 어둠은 바로 만주국의 근대화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爵靑은 인간 내면의 어두움, 광기, 망상을 즐겨 그렸는데, 그것과 당시 만주국 현실의 어둠을 그린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재만 일본인 평자들은 재만 중국인 작가의 작품들을 어둡다라고 평했다.

14) ‘대관원’은 당시 실재했던 장소다. 『極秘 大觀園の解剖』(저자와 발행년도 不詳, 발행소는 治安部分室)는 당시 하얼빈의 ‘大觀園’을 소개하고 있다. 내부에 유곽과 木質宿·아편불법판매소·음식점·이발소·신발가게 등이 몰려 있는 시장과 같은 곳이다. 『滿洲鐵道まぼろし旅行』(川村湊 著, 東京: 文藝春秋, 2002), 272-273쪽.

4. ‘민족협화’의 ‘하얼빈’을 그리다

하얼빈은 만주국의 대도시들 가운데에서 민족협화 이데올로기가 최고로 확장된 공간이다. 처음에 하얼빈은 백계 러시아인의 최대 근거지였으므로, 그들을 대소전략상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인을 포괄하는 민족협화 구현의 장으로 하얼빈은 선전되었다. 즉 그것은 하얼빈의 국제성, 혹은 만주국의 세계성 혹은 모범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임성모가 밝혔듯, 하얼빈의 국제성이라는 것이 다양한 인종/민족의 존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현되었다기보다 국제성을 만들어야했던 일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성된 측면이 강했다.¹⁵⁾ 국제적 도시 하얼빈의 이미지는 많이 선전되었지만, 정작 중국인 작가들에게는 그다지 볼 수 없다.

위에서 봤듯이, 1930년대 爵靑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1940년대에 들어서면 爵靑의 작품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얼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보여주는 작품이 발표된다. 「구양가의 사람들」¹⁶⁾과 「얼은 정원에 내려」가 그것이다. 「구양가의 사람들」은 山東에서 올라와 100년이 지나는 동안 東北지방에서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한 歐陽가문의 사람들(6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집안의 자식들은 모두 만주국의 도시로 진출하여, 가령 安東, 奉天, 熱河省의 작은 현, 하얼빈, 北京으로 직업을 구해 분가한 상태다. 작품은 新京의 가게를 지키는 첫째 아들의 딸인 歐陽守箴이 봉건적인 집안에서 가출을 결행하여 숙부들이 있는 도시를 왕래하고, 마침내 자유를 찾아 하얼빈으로 간다는 줄거리이다. 그녀가 희망을 발견해서 발을 내딛은 곳이 바로 하얼빈이다. 하지만 하얼빈이라고 모두 희망에 찼다고 할 순 없다. 爵靑은 하얼빈에 사는 두 종류의 새로운 인생을 그린다. 하나는 숙부인 歐陽悟와 같은 부류,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삶을 찾아 독립한 친구 李靜潔과 같은 부류이다.

숙부인 歐陽悟(5남)는 어려서부터 기계를 좋아했고, 커서는 北京大學에서 冶鑛을 배웠고, 후에는 일본으로 유학했고, 지금은 하얼빈에서 기술자技佐로 일하고 있다. 교사와 관료로 일하는 형제들이 과도한 책임의식(2남)으로 쓰러지고 汚職사건으로 패가망신한 것(3남)에 비해, 기술자인 그는 서양화된 습속으로 살아간다. 歐陽悟는 하얼빈에서도 유명한 ‘교양인’인데, 그에게 교양은 서양식 물질문명을 추수하는 생활방식과 과도한 소비생활로 나타난다. 이들은 주택은 꼭 서양식이어야 하고 변소와 거실이 없어서는 안 되고, ‘朝飯’을 꼭 ‘朝餐’이라고 부르고, 저녁에는 가족을 데리고 시외에서 먹고 산보하고, 매일 목욕을 하거나 주말마다 음악회나 영화를 보는 일과를 산다. 그들에게 “교양있는 표정이 가장 중요한 생활율”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회합은 항상 부부동반이고, 부인과 친구는 악수를 하는

15) 하얼빈 도시에 관한 것은 임성모,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제4장을 참조.

16) 「구양가의 사람들」은 『學藝』(제1집, 康德7/11/15)에 발표되었고, 이후 『歐陽家的人們』(新京藝文書房, 1941/12월)에 재수록됐다. 본고는 孔范今 主編, 『中國現代文學補遺書系—小說卷』, 濟南: 明天出版社, 1990을 참고했다.

등 그들은 자못 교양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교양은 도리어 슬리퍼, 브라질커피, 석고조상, 목각으로 된 벽 액자, 실내조명등, 전기 화로, 유성기와 여행할 때에는 언제나 일등 침대칸 …… 요약하면 ……일련의 박래舶來의 물질로 좁은 세계 안을 채워 잠그는 것에 극히 태연하다. 또한 태연하게 모든 물질들의 지배를 받는 날들을 보낸다.(『歐陽家的人們』, 712쪽)

이와는 달리 歐陽守箴이 찾아간 친구 李靜潔의 삶은 다르다. 그녀는 런던무도장에서 피아노를 치는 러시아인의 집에서 살면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생활을 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으로 그녀를 맞아 주었다. 그녀는 歐陽悟로 대표되는 서구문물의 노예가 되어 버린 삶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출을 감행하여 독립된 자기의 삶을 꾸리며 다른 민족들과 조화롭게 산다. 歐陽守箴이 하얼빈이라고 할 때 느끼는 이미지는 바로 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받은 인상은 다른 도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도착한 6월의 하얼빈은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카시아나무의 두툼한 잎사귀가 로마노프왕조 풍의 건축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사원의 첨탑은 푸른 하늘에 그려진 종교화처럼, 아름답고 기이한 선을 맘껏 드러내고 있다. 난향에 막 들어선 한 소녀의 즐거움은 마치 돌이 깔린 보도 위에서 울리는 백계 러시아 화물차 굴러가는 소리와 하모니를 이뤄서 유쾌한 음악을 연주하는 듯 하다. / 하늘에는 흰 비둘기가 자유롭게 날고 있다. 차에서 내리며 그녀는 광장에 우뚝 솟은 석비들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의 생각에 이것은 아마도 상서로운 징조(吉相)이자, 행복의 상징이리라.(『歐陽家的人們』, 708쪽)

다른 작품에서라면 상품진열 쇼윈도에 압도되고, 네온사인에 현혹되는 등의 모습으로 묘사된 키타이스카야의 모습도 다르게 드러난다.

어느 오후, 中央大街를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다. 만주 전체(全滿)에서 가장 부유한 거리가 깊이 그녀에게 매력을 주었고, 강안江岸으로 쪽 곧게 통하는 돌길을 왔다 갔다 하는 베틀북 같은 마차, 기이하게 돌출한 건축물들은 中古의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거리의 악사와 꽃을 파는 아가씨, 화려한 음식점, 지하 주점 …… 자신들이 新京 시대의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찬란한 제복처녀의 꿈이 이 아름다운 거리 위에서 응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歐陽家的人們』, 712쪽)

爵靑의 기타 작품의 결말이 보여주는 바와도 이질적이고, 그가 그린 하얼빈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歐陽守箴에게 최후의 희망이라도 남겨주고자 하는 작가의 배려일까. 주목할 것은 여기서 李靜潔이 南崗의 吉林街에서 산다는 점에서, 歐陽守箴이 희망에 부풀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인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팔호에 넣고 시선을 민족협화로 돌렸을 때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작품 중간에 나오는 ‘제복처녀’의 꿈이라든지, 新京의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에게 재산분배를 요청한 사실이라든지 하는 점에서 작가 爵靑이 만주국의 변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둠’이 아닌 만주국의 ‘밝음’을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기존의 爵靑의 작품 경향에서 보자면 이례적인 결말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얼은 정원에 내려』는 중국어 원문을 찾을 수 없고, 『中央公論』(1943년 9월)에 실린 일본어번역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大內隆雄의 번역으로, 만주국 건국10주년 기념작으로 牛島春子の 작품과 더불어 실렸다. 앞의 『구양가의 사람들』에 나오는 ‘하얼빈’처럼, 『얼은 정원에 내려』도 실제 도시의 묘사보다도 ‘하얼빈’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민족협화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과 더불어 태평양전쟁을 옹호하는 듯한 언급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작품은 1941년 12월 7일 황혼녘, 4마리의 말이 끄는 눈썰매를 타고 일명 스타르 하얼빈=香坊을 향해 달려가는 일련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썰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만주인 2명, 일본인 2명, 거기다 미국인 1명과 러시아 여인 1명. “하얼빈에서는 피부, 두발의 색이 다른 인종이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많다.”(208쪽) 그리고 이들의 면면은 두 개로 계열화할 수 있는데, 한쪽은 <동방무역공사라고 하는 산업자본과 관련해서 지배인인 미국인-그의 부하로 동방무역공사의 구매주임인 만주인 鄭酒實-鄭酒實의 아내인 백계 러시아인 나타샤>라는 한 계열과 만주국 건국의 주역으로 이야기되는 일본인의 계열로 <××현의 행정과장인 일계 만주국 관리 鈴木-그의 부하인 ××현의 教育股長인 鄭酒愚(鄭酒實의 동생)-만주의 민속을 연구하는 모 기관의 일계 日系 촉탁 後藤(鄭酒實의 이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겉모습으로는 태평하다. “요약하면, 세계의 해양에는 군함이 넘쳐나고, 세계의 군단은 각각의 작전계획의 한창에 놓여졌고, 이렇게 정치적 분류에 따라서 인류의 쟁란을 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눈썰매 위에서는, 그러한 불행한 피비린내는 나지 않았다. …… 눈썰매가 싹고 있는 것은 국적의 구분을 등에 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평화롭고 솔직하고 낙천적인 동물이었다.”(209)

하지만 전자는 후자에 속하는 鄭酒愚의 시선을 통해서 부정된다. “그의 눈빛은 …… 불안이 담겨있고, 게다가 뭔가 영원의 저편을 추구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불안과 의욕은 바로 전자에 대한 후자의 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흡사 거기서 기원하듯 다음날 태평양전쟁이 발발한다는 식으로 글은 전개된다. 鄭酒愚는 동방무역공사의 미국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미국계 자본으로 된 회사의 지점에서 일을 하는 형의 삶,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고독한

나그네의 삶과 미국계 자본의 붕괴로 자신의 생활에 위협받을 것이라는 소시민적 걱정에서 빠진 형, 鄭酒愚가 ‘생활의 패배자’로 규정된 형에 대해서 실망하고, 거기서 파생된 우울함을 곱씹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鄭酒愚는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층 우울을 느낀다. 아버지의 삶을 성형하는 것은 上海 조계 지역 영국인 회사에서 지내면서 가지게 된 영국식 습관, 영국식의 완고함과 한족 노인의 융통자재한 노회함이다.¹⁷⁾

鄭酒愚의 우울함은 다른 한편 중국인 부르조아의 딸인 애인과의 헤어짐에서 더해진다. 여기에서 靑島는 하얼빈에 대해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서술을 한다. 특히 그는 山東과 河北의 상인들이 40년 동안 하얼빈에서 번 이윤의 반도 남기지 않고 고향으로 보내어 자신들의 고향을 번영시켰지, 傅家甸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고층 빌딩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 땅을 위해서 착상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이 토지를 위해 건설하고자 했다는 의욕도 발견할 수 없다. 그 결과, 그들은 만주에서 장려한 몽상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영원의 실적을 남기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얼빈을 영원의 長安이나 로마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후 백대의 자손을 이 땅에 결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217쪽)

일본인 관리 鈴木이 만주국에 뿌리를 내리고 일을 해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傅家甸의 중국인은 하얼빈을 금후 백대의 자손을 위한 땅으로 만들 결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자, 傅家甸에 등지를 틀고 있는 상인이 미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傅家甸 중국인 상인의 대표하여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영원토록 살아갈 땅인 만주를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와 헤어졌다. 傅家甸의 중국인(특히 상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데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직접적 언설이다.

鄭酒愚의 위와 같은 우울함은 그가 계속해서 갖고 있던 고민과 결부되면서 심화되었다. 신문들은 급박한 세계정세를 계속해서 보도한다.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감된다. 세계적 대사건이 일어나고 세계가 요동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은 그저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변화무쌍한 세계정세에 “세상의 한 모퉁이에 있는 청년관리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점에 그의 절망은 심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절망 너머 그가 찾은 것은 영원의 음미였다.

17) 아버지의 일상에 대해서 鄭酒愚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의 일상생활에도 영국인의 습기, 고집, 妄信, 엄숙이 물들어, 그리고 식민지 영국인에게 특유한 완고함이 깊이 그의 생활감정에 들어가 있었다.”(216) 늙어서도 그의 영국식 습관은 변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가 가져오는 신문과 아침식사를 침대에서 하고, 시간을 정해서 야외를 산보한다거나, 과도한 육식을 금하거나, 세계 각국의 풍물지를 계속해서 읽는다거나 하는 등의 영국식 시골 노인과 닮은 생활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반드시 영원의 운명을 음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영원의 운명을 음미하고, 만주의 영원의 운명을 음미하고, 동양의 영원을 음미하는 것 ……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의, 절대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고, 만대의 자손이 면면히 이어져 가는 세계를 가질 수 있다. …… 영원의 운명을 음미한 자에게 행운 있으라!(218쪽)

“새로운 운명과 영원에 대한 음미”는 鄭灑愚가 격변하는 대시대의 파고에서 찾아낸 자기 사유와 행동을 결정짓는 키워드이다. 무대가 태평양전쟁 직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작품 내용의 전개가 흡사 “爵靑의 선언서”(岡田英樹)로 읽힌다고 하지만, 기존의 작품 창작 경향과 견줄 때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것은 傅家甸의 중국인 상인과 상사인 鈴木을 거론하면서 말한 부분, 이 땅에 착상했다거나 영원토록 살아갈 만주를 만들자는 운운의 말들이다. 이런 말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4. 나가기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爵靑이 그린 하얼빈의 특징은 시각을 위시해 청각·후각·공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그려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의 시선은 중국인 밀집지구의 어둠에 대한 섬세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爵靑을 포함해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중국인 사회를 그릴 때, 항상 ‘狹街’나 ‘小巷’이나 ‘陋巷’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항상 도로가 깔리지 않아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고이는 골목길, 전기시설과 위생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인한 불결한 위생상태를 통해서 중국인 사회를 그려냈다. 그래서 중국인이 사는 거리는 항상 ‘진흙탕’, ‘더럽다’, ‘좁다’, ‘어둡다’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爵靑은 작품에서 시각을 위시한 청각과 후각, 촉각의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의 새로운 감각의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만주국의 도시들을 소개하는 여행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서는 지도상의 하얼빈과는 다른 하나의 하얼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행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도시 하얼빈은 안내책자의 그것과는 달리, 외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종의 용광로로서의 하얼빈이 아닌, 강렬한 감각적 인상으로 점철된 도시, 화려함 이면에 숨은 어두운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살아 숨쉬는 모습을 그려낸다.

그가 작품에서 드러낸 ‘어둠’은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파토스적인 것에 대한 거부”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일체의 파토스적인 것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다. 거기에 상징적인 리얼리즘이 부상했던 것이다.”¹⁸⁾ 재만 일본인 논자가 평한 “파토스적인 것에 대한 거부”는 재만 중국인 작가가 가진

18) 木崎龍, 『滿人作家論(序說)—『原野』の世界』, 『滿洲日日新聞』(1939/11/28).

만주국 건국에 대한 ‘수동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을 일면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재만 일본인이 보여주는 낭만성과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었다. 靑靑의 초기 작품에서 후기 작품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간간이 민족협화회의 기대 등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 경향이 드러난다. 이것은 만주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문화인과의 교류에 직면하고 신질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인 작가들이 동원되는 과정과 맞물린다.

재만 중국인의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 내지의 일본인에게 읽히기 시작한 것은 1939년 말의 일이다. 大内隆雄 번역의 『滿洲作家小説集 原野』¹⁹⁾ 출판은 재만 일본인 평론가인 加納三郎을 위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원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독해해야 …… 『원야』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 거기에는 어쨌든 일본문학이 아직 알지 못했던 ‘滿人の 눈’이 있다.”¹⁹⁾ 당시 민족협화회의 가장 총명한 방법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공통의 문화과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재만 일본인 지식인에게는 “滿系[원문대료] 지식인의 굴절되지 않은 목소리”를 『원야』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대부분의 재만 일본인 작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원야』에 수록된 작품들이 대부분 ‘어둡다’는 것이었다. 그 어둠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달랐고, 또한 자신의 ‘어둠’에 대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설명도 다 달랐지만, 서로 그 경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평가였다.

재만 중국인 작가들은 ‘어둠’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먹을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각지를 떠돌아다니고, 예술작품을 하나의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희생정신이라고. “어둠은 즉 밝음의 희구이고, 밝음의 징후이다. 우리들은 장송곡을 부르는 가수처럼.”²⁰⁾ 이렇게 재만 중국인 작가들에게 ‘어둠’은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이자, 현실과 글쓰기의 접점에서 찾아낸 하나의 모색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어둠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거대한 낭만주의로 들떠있던 재만 일본인 작가들과는 대비를 이뤘고, 그것에 저항의 한 양상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靑靑의 경우는 서구 모더니즘 시와 소설에서 받은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어둠과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 및 철리를 탐구한 작가였고, 그가 그려낸 개인 영혼의 어둠이나 개인의 개성을 훼손하는 봉건적 가정의 어둠은 현실에 존재하고, 인간의 내면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1937년 靑靑은 『新靑年』(64호, 1937/10월)에 『談Standhol』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서양의 작가들에게 많이 배웠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근대인의 분열과 그들과 자기 사이의 분열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문학은 특히 더 선명하게 이러한 분열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메꾸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문학의 범위 내에서 분열이 없는 이상형의 작가와 작품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²¹⁾

19) 여기에서의 加納三郎의 언급은 加納三郎, 『滿洲文學の獨自性』, 『滿洲日日新聞』(1939/12/24)에서 인용했다.

20) 山丁, 『去故集』의作家, 『東北現代文學大系(1919~1949)—評論卷』, 206쪽.

그는 ‘사고와 행위의 분열’을 근대적인 것으로 봤고, 그 분열을 메꾸고 분열 없는 이상향을 그려내는 것을 작가의 임무로 봤다. 그는 작가와 작중 인물간의 혼연일체와 작품 세계가 바로 작가인 나의 세계가 되는 방식으로 이중의 분열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초기 그의 글쓰기에서 이러한 이중의 분열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으니, 冷霧社에서 실험했던 모더니즘적 글쓰기는 다른 작가들로부터 비판을 야기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이러한 이중의 분열은 자신의 문학적 자양분이었고, 그는 문학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문학적 ‘私淑’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지점에서 그는 서구적 지성으로 분열을 메꿀 수는 없고, 동양의 복귀를 통해서만 메꿀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했다.²²⁾ 위 글의 연장선상에서 1944년 2월에 발표한 『西歐的知性的破壞』(『藝文志』, 4호, 1944/2)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분석을 통해서 근대사회의 병폐와 합리주의 이성으로 이야기되는 서구지성의 몰락을 읽어냈다. 그리고 지금 태평양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를 질문한다. 그 답은 승리를 최종목적으로 한 전쟁의 승리는 바로 ‘동양으로의 歸復’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작품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1940년대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돌아감’ 모티프의 작품들이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감’은 바로 ‘만주’로의 돌아감이었다.

1944년 1월, 爵靑은 어느 좌담회에서 과거의 유물적이고 경제적인 시각에서 만주를 볼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만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만주를 발생체로 봐서 만주를 감수해야 한다”²³⁾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좌담회에 나왔던 멤버들이 “향토에의 점착성”(吳郎)이니, “향토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田瑯)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시 재만 중국인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정신상의 최후의 근거로, 향토에 구애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자신들의 출신과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잃어버린 향토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사수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⁴⁾ 어쩌면 동양에의 복귀는 바로 자신의 향토에의 점착/구애를 알고, 향토가 바로 자신의 발생체를 아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재기록하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르는 하나의 전략적 용어였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근대의 초극’이나 ‘대동아공영권담론’에 포섭되는 형태이든 간에, 그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의 힘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나 그들(한간문인)의 작품이 미쳤던 영향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숙고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1) 爵靑, 『談Standhol』, 『新青年』(64호, 1937/10), 36쪽.

22) 爵靑에게 사숙의 작가와 계보가 의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그들을 계승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異敎의 현혹을 통해 마침내 자기 조상의 혈통으로 돌아갔다는 것, 자국 역사의 전통으로 돌아갔다는 데 있다’고 봤다. 그에게 있어 자국 역사의 전통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바로 동양으로의 복귀인 셈이다. 『談小説—爵靑·田瑯 二人對談』, 『藝文志』(11호, 1944/9), 13쪽.

23) 『(座談會)怎樣寫滿洲?』, 『藝文志』(3기, 1944/1), 29쪽.

24) 劉建輝, 『『滿洲浪漫』の周邊—日本浪漫派および『藝文志』派との關係を中心に』, 『滿洲浪漫—別卷』, 142-143쪽.

유진오의 「新京」에 나타난 공간의 정치학*

유수정(고려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1) '국도건설계획도'에 나타난 '舊'와 '新'의 결합 |
| 2. 조선에서 '만주'로 | 2) '신경'의 관아 건축양식과 이데올로기성 |
| 1) '새로운' '만주'를 향한 시선 | 3) 「근대의 초극」과 「동아신질서」의 공간을
그리는 것, 자기표상하는 것 |
| 2) 조선에서 '만주'로의 출장 | |
| 3. 표현하는 공간, '신경'의 표상 | 4. 맺으며 |

1. 들어가며

1942년 11월 3일, 동경제국극장(東京帝國劇場)에 일본, 조선, 대만, '만주국', '몽고', 중화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자 77명이 모여,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의 개회식이 거행됐다. 이 대회에 참석한 조선 대표 5명¹⁾ 중 3명의 조선인 중에 유진오가 있었다. 이미 조선문인협회 발기인, 국민총력 조선연맹 문화부위원 등, 조선문단을 대표하여 전쟁과 제국의 국책에 협력하고 있던 유진오의 존재는 크다. 대동아문학자대회 참가를 눈앞에 두고 유진오가 발표한 소설에 「新京」이라는 작품이 있다. '신경(新京 : 新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23년 '만주국'의 수도로 지정되고, 1935년에는 '신경'이라 명명된 창춘(長春)을 일컫는다. 유진오는 '경성(京城)'의 어느 대학에 재직중인 주인공이 '신경'에 출장 간 이야기를 「新京」이라는 제목으로 『춘추』 제3권 제10호(1942년10월)에 한국어로 발표하였다. 소설 발표는 1938년 11월 3일 고노에(近衛)총리의 성명에서 시작된 '신체제운동'과 '동아신질서'의 물결이 거셀 때였다. 이러한 외부의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눈앞에 닥친 '대동아공영권'의 '새로운[新]', '수도[京]' 신경(新京)을,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소설의 제목, 무대, 소재로 썼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근래에 축적된 식민지도시에 관한 연구²⁾에서는 식민지정책과 함께 근대도시로 재편된

* 본고는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文學究論集』第25号(2009년 3월)에 발표한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재발표하는 것임을 밝힌다. 본고의 인용은 『춘추』 제3권 제10호(1942년10월)에 실린 초출판을 사용했다.

1) 香山光郎[이광수], 芳村香道[박영희], 유진오, 寺田瑛, 辛島驍

도시공간의 문제를 문학적, 지리학적, 건축학적, 사회학적, 역사학적 영역 등에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본고의 입장은 선행연구에서 이경훈이 「新京」은 단지 ‘신변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임종국의 해석³⁾에 의문을 던지고, ‘그 일상 생활 하나하나가 정치적 의미로 충만한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⁴⁾’는 텍스트에서 정치성을 읽어내는 방법과 같은 입장에 선다. 본고는 텍스트 「新京」속에서 도시 ‘신경’의 도시계획과 건축양식에 관한 부분을 읽어내고, 1942년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신경’의 공간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에서 ‘만주’로

(1) ‘새로운’ ‘만주’를 향한 시선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설 「新京」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성’의 어느 대학에 재학중인 철은 졸업생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주’ ‘신경’으로 간다. 도중에 병상에 있는 친구 옥을 만나러 평양에 들리지만, 옥은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신경’에 도착한 철은, 12년 전에 보았던 ‘장춘’과는 전혀 달라진 ‘신경’의 변모한 모습에 놀란다. 그러나 학생들의 취업을 부탁하러 방문하는 곳곳 마다 조선인에 대

2) 高媛의 정리를 빌리면, ‘최근 「식민지도시」를 둘러싼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선, 문헌적인 영역에서는, 식민지도시상을 작가의 신체와 겹쳐서 중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①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번째로는 중주국 주도의 도시계획이나 민족별 거주분화의 실체에 초점을 두고 지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②이 있다. 세번째로는, 식민도시의 건축양식이나 중주국에서 건너간 건축가의 활동의 쫓은 건축사적 고찰^③이 있다. 마지막으로, 덴스나 야구, 호텔문화 등을 제재로, 식민지도시를 「이문화 접촉」의 장으로 파악하는 도시사회적인 연구^④도 전개되어 왔다’고 정리하여, 각각의 선행연구를 들고 있다. ①川村湊 『異国の昭和文学』(岩波新書, 1990년), 川村湊 『ソウル都市物語』(平凡社新書, 2000년), ②水内俊雄 「植民地都市大連の都市形成」(『人文地理』第37卷 第5号, 人文地理学会, 1985년), 越沢明 『植民地滿洲の都市計画』(『アジア經濟研究』, 1978년), 越沢明 『滿州国の首都計画』(日本經濟評論社, 1988년), 越沢明 『哈爾濱の都市計画』(総和社, 1989년), 飯塚キヨ 『植民都市の空間形成』(大明堂, 1985년), 로버트·홈 『植えつけられた都市—英国植民都市の形成』(布野修司·安藤正雄監訳, 『アジア都市建築研究会誌』, 京都大学学芸出版社, 2001년), ③이 분야는 西澤泰彦의 일련의 저작을 들 수 있다. 『図説「滿洲」都市物語』(河出書房新社, 1996년), 『海を渡った日本の建築家』(彰国社, 1996년), 『図説大連都市物語』(河出書房新社, 1998년), ④永井良和 「植民地都市—近代日本が経験したもう一つの都市」(『日本都市社会学年報』第16号, 日本都市社会学会, 1998년), 永井良和 「異文化接触とネットワーク—植民地都市·大連と文化の重層」(組織とネットワーク研究班 『研究双書第一二冊·組織とネットワークの研究』, 関西大学經濟·政治研究所発行, 1999년), 武庫川女子大学生活美学研究所ホテル小研究会 『ホテル学研究—生活美学研究所ホテル研究会報告書』(武庫川女子大学生活美学研究所ホテル小研究会発行, 1996년). 그리고 高媛 「「樂土」を走る観光バス—一九三〇年代の「滿洲」都市と帝国のドラマツルギー」(『拡大するモダニティ』, 岩波書店, 2002년)에서는 「연출된 공간(演じられた空間)」으로써의 식민지도시를 고찰하고 있다. 高媛 이후의 새로운 연구로는 橋谷弘 『帝国日本と植民地都市』(吉川弘文館, 2004년), 孫禎睦·李終姫 『日本統治下朝鮮都市計画史研究』(柏書房, 2004년), 金振松 『ソウルにダンスホールを—1930年代朝鮮の文化』(法政大学出版局, 2005년),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釜山』(桜井書店, 2007년) 등이 이어지고 있다.

3)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초판발행:평화출판사, 1966년), 2002년, 271쪽.

4)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년, 195쪽.

한 차별과 차가운 태도에 부딪히고, 고국에서부터 옥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까지 받아, 철은 실의에 빠진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경’ 시내에서 13년전 대학 연구원 시절에 연모하던 여인 삼주와 재회한다. 그녀와의 대화는 철, 옥, 삼주가 셋이서 즐겁게 지냈던 때를 추억할 수 있게 하였고, 덕분에 철은 기분이 풀어진다. 철은 ‘사람이란 우선 오래 살고서야 불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요절한 친구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오죽 그 간단한 사실에 대해’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장면에서 소설은 끝난다.

소설은 철이라는 인물이 ‘신경’행 열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호화로운 급행 열차 이등차’에 앉아, 열차안의 ‘건국 십년 마-크를 붙인 젊은 관리들’과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국(異國)적인 역이름’, ‘철교나 터널’, ‘양편가에 불품사납게 서 있는 낮서른 토-치카’, ‘만인들의 반듯반듯한 지붕모양과 푸르둥둥한 옷빛갈’ 등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철(哲)에게 아무런 감명도 주지 못했다’ 이 도입부분의 묘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식민지문학의 경관묘사에서 흔히 있는, 문명의 상징인 기차에 탄 인물의 시선이 근대적인 기차의 내부와 전근대적인 외부라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두 쪽 모두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 쪽에도 딱히 흥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물론 텍스트에 부재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항대립적인 구도의 부재를 언급하는 데에는 다음 인용에 나타난 주인공의 시선과 관련시켜서 이다.

본계호(本係湖)를 지나 겨우 기차가 산악지대를 벗어나자 비로소 대륙적인 넓은 벌판이 시작된다. 아무데를 돌보아도 산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오죽 고랑 밭뿐인 벌판. (189쪽)

‘만주’를 제재로 한 다른 소설⁵⁾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묘사되는 ‘만주’가, 위의 인용에서는 적어도 ‘고랑밭’이 펼쳐진 벌판, 즉 인간의 노동으로 개간된 토지로 묘사되는 점은,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기차의 내부-외부, 문명-야만이라는 구도로 대치(對置)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철의 시선을 경유한 내레이터의 ‘만주’를 향한 시선은 기존의 이항대립적 구도로부터 일탈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철의 눈이 포착한 ‘만주’는 단지 그 정도에 그친다. 소설 전체를 통해 본다면, ‘만주’와 ‘신경’이라는 공간은 등장하지만, 중국인이나 ‘만주인’ 즉 그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한 거주민에 대해서는, 잠깐 만인(滿人) 마부가 등장할 뿐, 그 마부 조차 대사도 인물묘사도 거의 없다. 단지 ‘만인’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하게 적혀있을 뿐이다. 이는 철이 ‘신경’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의 에스니시티(ethnicity)가 불확실하게 되어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회사의 간부와 고급관리’ 들의 타자성

5) 김동인 「붉은 산」(1932년), 이효석 「벽공무한」(1942년) 등.

은 불가시(不可視)적인데 반해, ‘만인’ 마부의 타자성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역설적이기는 하나 ‘만인’은 텍스트에 등장함으로써 타자성이 더욱 확실해 지는 것이다. 철에게는 ‘만주’와 ‘신경’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있어도 ‘만인’은 눈에는 보여도 그들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에게 있어서 ‘만주’와 ‘신경’은 그 공간만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철은 왜 ‘신경’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

(2) 조선에서 ‘만주’로의 출장

이번 학교에서 졸업생 취직추선을 위해 만주로 출장 가라는 말이 났을 때 사퇴 하려면 사퇴 못 할 것도 아니었는데 선뜻 그 임무를 맡은 것도 실상인즉 만주 가는 길에 옥을 만나 하로 저녁 깨끗한 이야기나 하리라는 생각이 속에 있었던 것이나 또 한가지 이러한 새 만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190쪽)

위 인용에서 철이 ‘신경’으로 가는 이유를 세 가지 찾아 볼 수 있다. ① 졸업생의 취직 알선을 위한 ‘만주’출장, ② 옥을 만나기 위해, ③ ‘새로운 만주’에 대한 호기심이 그 세 가지이다. 그러면 먼저 이유①의 배경을 텍스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졸업한 학생들의 취직일을 맡어 본다는 것은 좋은 일임에는 틀림 없으나 결국은 남에게 구차한 소리를 하러 다니는 일이라, 그런일을 자기가 능히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이 될 지경이었다. 그것도 사람을 구하는 수요가 졸업생 수요보다 많은지 하다면 또 그리 힘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철의 학교의 경우에는 쓰짚다는 사람보다 졸업생 수요가 훨씬 많았다. (193쪽)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0년대를 전후하여, 전문학교의 졸업생이나 해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대량으로 사회에 진출하지만, 세계공황의 여파로 인하여 취직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적고, 대다수는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만주’나 간도로 유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⁶⁾.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1930년대 한국 소설에는 ‘룸펜’ 즉, 인텔리이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퇴행적이고 나태한 사고를 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뿐인 ‘고등실업자’를 등장인물로 하는 작품들이 이상할 정도로 많았다⁷⁾.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식민지 상황이 초래한 식민자의 기술직 점유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39년경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체 기술자의 90%는 일본인이었고, 그 대부분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6) 김진송 『서울에 파스홀을 허하라——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1999년, 120쪽 참조.

7) 현진건 「빈처」(1921년),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1921년), 유진오 「5월의 구직자」(1929년), 염상섭 『삼대』(1931년), 이광수 『흙』(1932년),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년),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1934년),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1935년), 임화 「다시 네거리에서」(1935년), 이상 「날개」(1936년), 채만식 「치숙」(1938년) 등.

자들이었다⁸⁾. 그러나 중일전쟁의 장기화되고 태평양전쟁의 발발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기술자·기능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화학공업과 군수공업은 발달하는데 반해, 일본인 기술노동자 중 일부는 전쟁에 소집되거나 하여 노동력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인 기술자는 1942~1944년간에, 1,215명에서 1,632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사에 의하면, 공업 부문에서 조선인은 기술자의 18.1%, 노무자의 92.9%를 점했다’⁹⁾ 고 한다. 이 시기에도 ‘상위직은 일본인, 하위직은 조선인’이라는 조선의 식민지적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인용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직’ 자리를 찾기 위해 ‘만주’에 가는 철의 출장 배경에는 기술한 바와 같은 조선의 상황이 있는 것이다. 즉, 식민지적 사회구조로 인한 직업적 격차라는 암울한 현실을 등에 지고, 철은 ‘신경’으로 향한 것이다.

철의 ‘신경’행 이유^②는 병상에 있는 절친한 친구 옥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기다리던 철이 문병 갔을 때, 평양의 병원에서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옥은 아주 일순간이긴 하지만 의식을 차릴 정도로 철과 옥의 관계는 각별했다. 그 둘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는 것은 다음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 옥을 잃는 것은 조선의 문학을 위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고완품(古玩品)을 잃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아니 그런 것 보다도 한 사람의 벗을 잃는 것이 서러웠다. 괴로움과 서러움을 난호고 서로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면서 서로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든 벗——그런, 다섯 손가락을 꼽을 수효가 되지 못하는 벗의 한 사람을 철은 지금 잃게 된 것이다. 철에게는 옥과 가까이 지낸 지나간 십오륙년 동안의 기억이 두서 없이 이것저것 떠오르고 하였다.
(188~89쪽)

옥은 철에게 있어서 친구이자, ‘문학’이고, 전우이며, 청춘이었다. 철의 ‘문학’에 대한 애착, ‘문학’이야말로 ‘진실’이고 ‘인생’이라는 신념을 상기한다면 ‘하로 저녁 깨끗한 이야기나 하리라’ 생각했던 당초의 기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옥의 죽어가는 순간을 바라보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바람은 철의 ‘신경’행을 더욱 어두운 것으로 만든다.

그에 비해 철이 ‘신경’에 가는 이유^③에 해당하는 ‘새로운 만주’에 대한 호기심은 희망에 가득찬 듯이 보인다.

봉천까지는 여러번 다닌 길이지만 신경은 철에게는 두번째 발을 들여놓는 곳인데다가 그 첫번 길이라는 것이 벌써 열두해 전, 만주사변도 채 일어나기 전 일

8) 강만길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빼앗긴 들에 서다』 역사비평사, 2000년, 177쪽.

9) 상동

이라, 철은 신경이 가까워 오자 차차로 호기심에 마음이 긴장되어 갔다. 십여년 이란 세월이 흘러간 그것보다도 사변이란 커다란 사실의 얼굴을 신경서 보라는 것이었다. 물론 철은 사변후 십년 동안에 신경이 장춘(長春)시대의 옛모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홀륭한 근대도시가 된 것을 글로 이야기로 사진으로 싹것 듣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실지로 보는 신경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여전히 컸다. (189쪽, 밑줄은 인용자)

철은 ‘사변이란 커다란 사실의 얼굴’을 ‘홀륭한 근대도시’ ‘신경’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변이란 커다란 사실의 얼굴’은 ‘만주국’을 말하는 것이고, ‘글로 이야기로 사진으로 싹것 듣고 보고’ 한 ‘홀륭한 근대도시’는, 그곳에 실현되고 있는 ‘새로운’ ‘근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철이 ‘신경’에서 본 ‘만주국’과 ‘새로운’ ‘근대’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음 절에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3. 표현하는 공간, ‘신경’의 표상

(1) ‘국도건설계획도’에 나타난 ‘舊’와 ‘新’의 경합

소설 속 ‘신경’에 관한 묘사는 철이 기차를 타고 ‘신경’에 접근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고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철이 만일 처음으로 신경에 발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면 그만 광경에 그다지 신기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철은 열두해 전 장춘시대의 신경을 알고 있었다. 그때의 장춘은 정거장만 커다란, 보잘것없는 초라한 시골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남만주철도의 종점인 동시에 중동철도(中東鐵道)의 종점이어서, 일본과 노서아와 장학량의 세 세력이 부드트리느 지점이라, 정거장에는 낮과 마치가 엇질린 모표를 단 중동철도 사원과, 피스톨을 찬 장학량의 헌병과, 만철 사원이 제각각 어깨를 빼기고 어지러히 걸어다니고 있어서, 분위기는 몹시 무시무시하였으나, 한발짝 정거장 문을 나서면 납작한 집들이 헛되히 큰 도시 계획의 실패를 말하고 있고, 넓은 마당에는 잡초가 제법 우거져 있었다. 곧장 시베리아 본선으로 연락된다는 「인터내슈날 · 왜곤리」의 침대차가 이곳까지 드리다야 있었고, 그 차를 타고 한거름 북쪽으로 나가면 정거장마다 벌써 소련의 붉은 기빨이 나무끼고 있었고 ——.

그때의 장춘과 지금의 이 신경과의 대조. 장학량의 헌병도 중동철도의 사원도 그림자도 찾아 볼 수 없는 신경역. 그것만으로도 철의 신경에 대한 호기심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190쪽)

‘만주국’ 건국 전, 또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이전의 ‘신경’, 즉 창춘은 ‘정거장만 커다란, 보잘것없는 시골도시’였지만, ‘일본과 노서아와 장학량의 세 세력이 부드트리는 지점’ 이었다고 회상한다. 그에 이어서, 중동철도의 ‘인터내슈날·왜곤리’를 타고 북진할 때의 창밖 풍경을 통해, 소련과 이어지는 연결부로서의 창춘을 떠올리고, ‘장학량의 헌병도 중동철도의 사원도’ 볼 수 없는 지금의 ‘신경’을 대비시킨다. 지금의 ‘신경’은 ‘인터내슈날’한 연결은 있을 수 없다. ‘장학량의 헌병’과 ‘중동철도 사원’이 떠나버린 후 ‘신경’에 남아 있는 것은 ‘일본’ 뿐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소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승리하여 확장해 가는 일본제국을, ‘신경’의 ‘역사’와 겹쳐서 보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舊’는 가고 ‘新’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써의 ‘신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철이 실제로 목격했을 ‘신경’은 현실에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당시의 ‘신경’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니시자와 하타히코(西澤秦彦)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주사변이 일어나던 때, 창춘에는 네 개의 시가지가 있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창춘성,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동지철도(동청철도의 청조 멸망 후에 불려진 일본명)의 철도부속지, 그 사이에 만철의 철도부속지와, 1905년에 청국이 설정한 상부지(商埠地) 이렇게 네 군데이다.¹⁰⁾

위 자료에서 ‘만주국’ 이전의 창춘에는 중국 세력 구역이 두 군데,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구역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주사변 당시, 이미 창춘에서는 만철부속지, 상부지, 창춘성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 가고 있었지만, 관동군사령부가 ‘만주국’ 정부에 입안하도록 한 도시건설계획은 이를 무시하고, ‘만철 철도부속지만을 이용하면서, 바로크적 도시계획에 중국의 전통적 도시계획 수법을 조합하여 만주국을 장식하고자 한 것’¹¹⁾ 이었다. 1933년에 공표된 국도건설계획(國都建設計劃)이 【그림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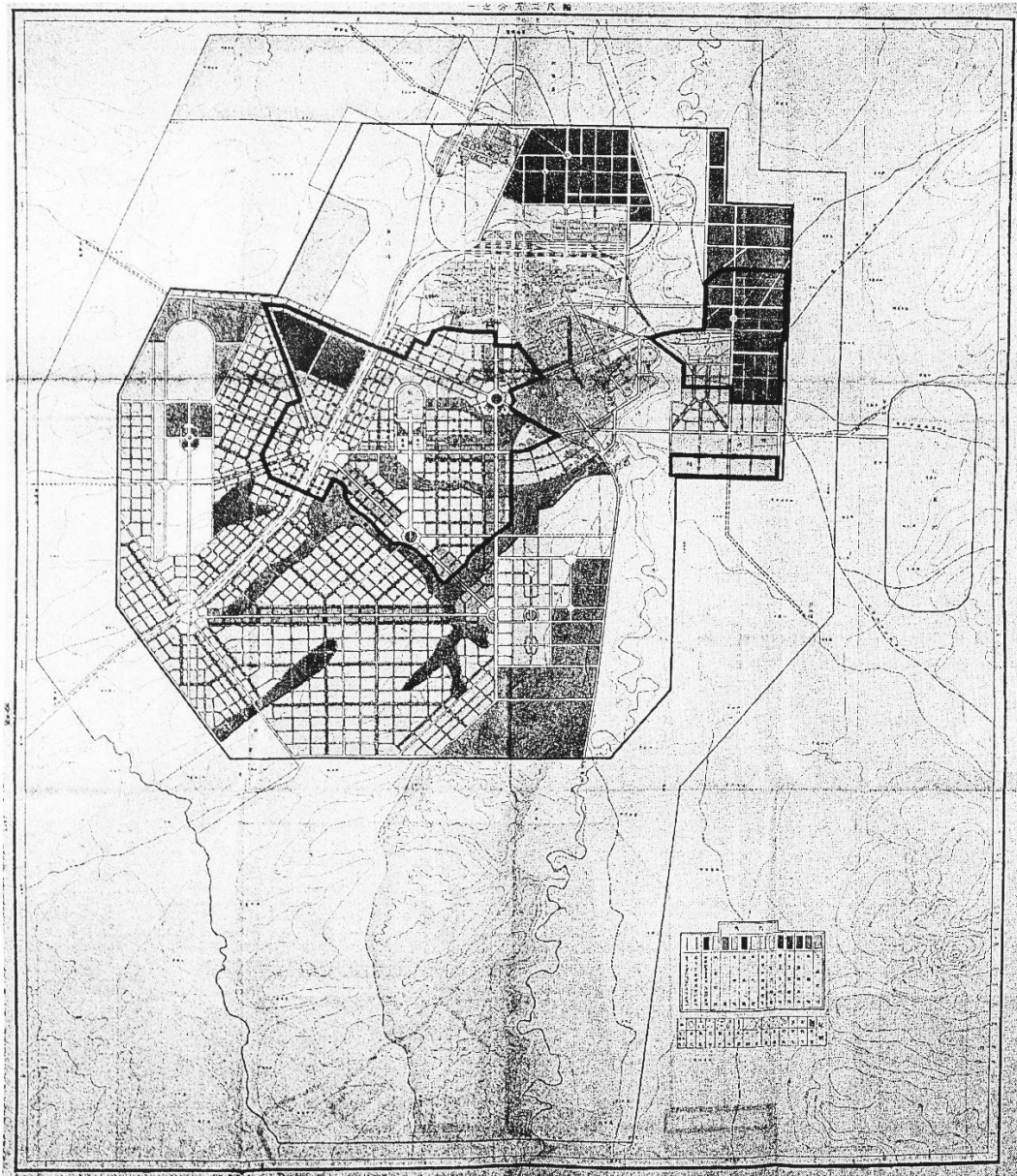
【그림1】의 국도계획도 가운데를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가 대동대가(大同大街)이고, 그 북단이 신경역이다. 만철 철도부속지에서 시작되는 대동대가의 중간에는 지름 1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대동광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방사선상으로 도로가 뻗어져 나오고 있어, 대동대가가 ‘신경’의 중심축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대동광장의 동쪽에 위치하는 창춘성과, 창춘성과 신경역 사이의 상부지는 거기서부터 확대되는 도시계획도 없고, 새로운 개발도 없다는 사실을 계획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중국세력은 봉쇄되는 형태가 된다. 말하자면 창춘은 소멸하고, ‘신

10) 西澤秦彦 『図説「滿洲」都市物語』 河出書房, 1996년, 106쪽.

11) 西澤秦彦, 앞의 책, 107쪽.

【그림1】 만주국 국도건설계획(1933년) 상동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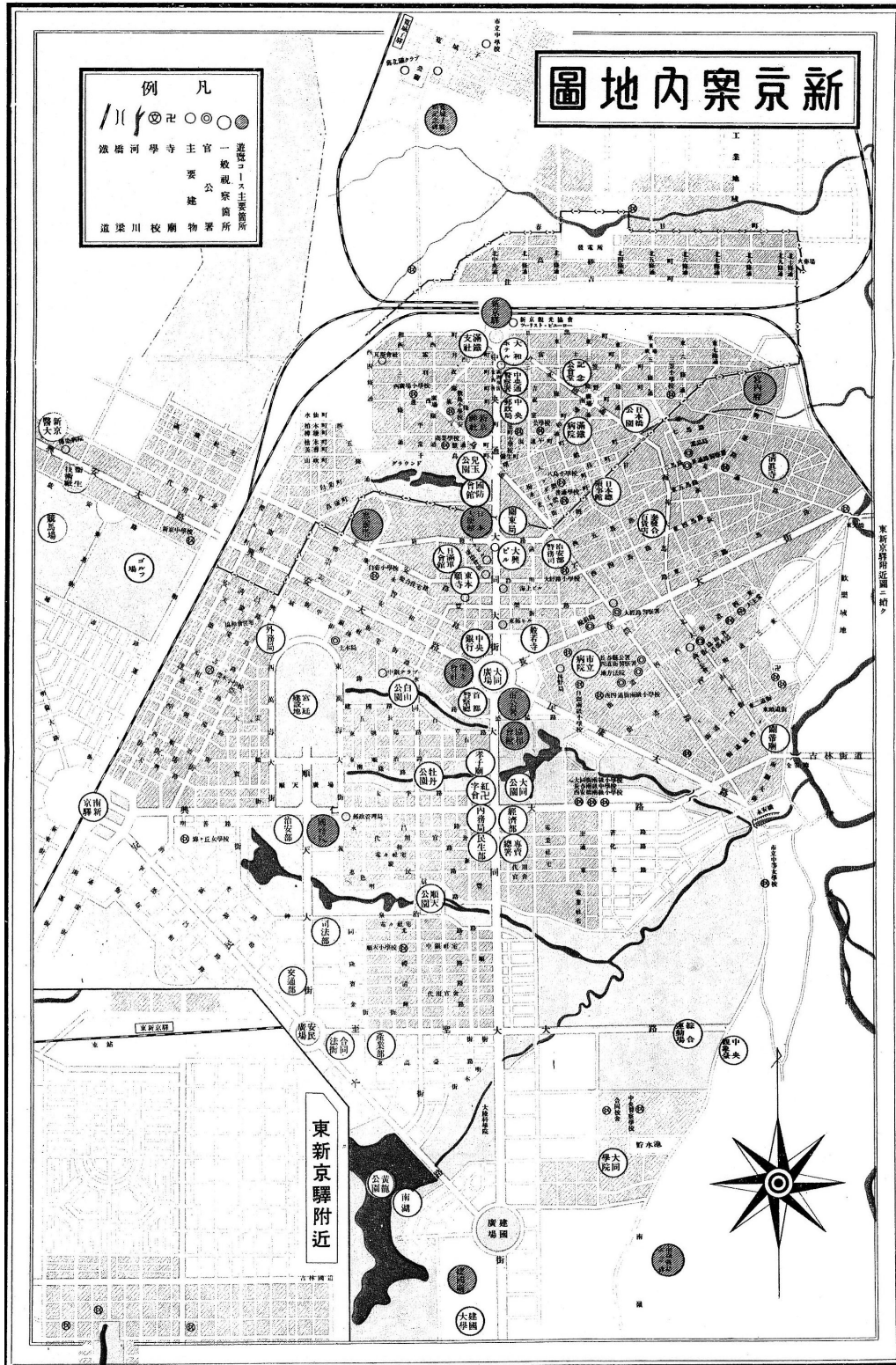


경'이 '새로운' 질서를 전개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이 계획도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대동광장 서쪽에 위치한 역U자형의 공간은 신궁전의 건설 예정지로, 거기서부터 대동대가에 평행한 형태로 남쪽으로 뻗어나오는 도로가 순천대가 (順天大街)이다. 순천대가에는 관아(官衙) 건물이 양쪽으로 늘어서게 된다. 이 신궁전과 관아건축의 구도는 '황제와 그 앞에 줄지어 선 문무백관(文武百官)과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만주국 정부가 추구했던 '왕도락토(王道樂土)'의 도시공간을 연출한 가장 좋은 기회

12) 상동

[그림2] '신경' 안내지도(1939년) 永見が太郎, 앞의 책, 권말부록 지도.¹³⁾



13) 永見文太郎, 앞의 책, 권말부록 지도.

였다'¹⁴⁾ 고 니시자와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건설계획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야마토(大和) 호텔, 관동군 사령부, 미쓰비시강덕회관(三菱康德會館), 수도경찰청, 중앙은행, 전신전화회사, 수도건설국, 관동국 등이 늘어선 대동대가에 비하면, 관아가인 순천대가는 명백히 짧고, 도시의 중심축이 될 수 없는, 한가운데의 격리된 공간으로 보인다.

게다가 창춘성과 신궁전·관아를 차단하는 형태로 대동대가가 놓여져 있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언젠가 정착할 '신경'의 '새로운' 질서가 안정될 때까지는 중국 또는 중국인의 세력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봉쇄'는 국도건설계획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주국'의 수도를 선정하던 단계에서부터, 장쥘린(張作霖)장쉐량(張學良) 정권이 붕괴한 후에도 다수의 중국 동북군벌의 유력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유로, 평토편(奉天 : 현재의 선양)은 수도 후보에서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창춘이 '신경'이 된 주요 원인이라고 선행연구¹⁵⁾에서 지적하고 있다.

소설 텍스트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철이 회상하는 창춘과 눈앞의 '신경'이 대조되어, 창춘시대의 '장학량의 헌병'과 '중동철도의 사원'이 모습을 감추고, '일본'만이 남은 '신경'은 실로 '만주국' '국도건설계획'의 '성과'였던 것이다. (1939년 현재, '신경'의 주요시설은 대동대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2】 참조.) 그리고, 그 '성과'를 확인한 철의 심경을 내레이터는 '그것만으로도 철의 신경에 대한 호기심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즉 '장학량의 헌병도 중동철도의 사원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신경역'을 본 것만으로 철의 '신경' 출장은 만족스러운 것이 됐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학량의 헌병도 중동철도의 사원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신경역'이란, 아시아에서 승리해 가는 일본제국과 '舊'는 가고, '新'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을 의미함과 동시에, '新' 질서는 일본제국의 지배에 의한 것이라는 암시로 기능하고 있다. 철은 그러한 암시된 동향을 '신경'에 가기 전부터 예상하고, 기대했으며, '신경'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근거를 찾아서 확인한 것이다.

신경역에 도착해서 바로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한 철은, 마차로 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12년 전에 들른 적이 있는 러시아식 카바레¹⁶⁾ '카페 임페리알'을 지나친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카페 임페리알'¹⁷⁾이 철에게 주는 인상은 전혀 틀린 것이었다.

14) 西澤秦彦, 앞의 책, 114쪽.

15) 越沢明, 앞의 책, 90쪽, 西澤秦彦, 앞의 책, 107쪽 등.

16) '카바레——카바레란, 먹고 마시며, 러시아 여자를 끌어안고 춤추고, 서툰 레뷰를 관람하면서, 재물을 낭비시키는 곳이다.——「하얼빈」안내는 카바레를 이런 말로 정의하고 있다'永見文太郎『新京案内』新京案内社, 1939년, 124쪽.

17) 「카페 임페리알」은 실재했던 곳으로, 신징역에서 가까운 니혼바시도오리 미카사초(日本橋通り)三笠町, 현재 長春市寬城区黄河路)에 있었다. '일층짜리 눈이 띄지 않는 건물이었다. 밤에 앞을 지나쳐도 커튼을 드리우고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이래도 장사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永見文太郎, 앞의 책, 125쪽)이라고 1939년에 발행된 '신징' 가이드북에 실려있다.

허나 어찌 이렇게도 초라한가. 길 좌우에 주욱 늘어선 큰 빨당들의 당당한 풍채와 호화로운 장식과 최신식 설비에 비해 ‘카페 임페리알’은 그 납작한 키며 누루칙칙한 색깔이며 구식 뒹뒹이가 허털없이 서울 한복판에 잡아다 놓은 촌뜨기였다.

「흠」

철은 다시금 그동안의 변화의 심함을 뼈에 사모쳐 느꼈다. 역사는 변한다. 그 변화는 역사를——생각하다가 문득 보니 기운 좋게 포도를 거니는 양장의 젊은 여자들이 거이 전부가 맨발에 구두를 신은 그때 나타-샤의 차림 차림이었다. 서울 거리에서도 눈이 시도록 본 여자들의 이 풍속에서 철은 새삼스레 역사를 느꼈다. (193쪽)

‘카페 임페리알’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길 좌우에 주욱 늘어선 큰 빨당들의 당당한 풍채와 호화로운 장식과 최신식 설비’에 대비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당당’하고 ‘호화’로와진 ‘최신’의 ‘신경’에 비하면, 창춘의 흔적은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최신’의 ‘신경’으로의 변화를 보고 철은 ‘역사는 변한다’고 생각한다. 창춘은 ‘신경’으로 변하고, ‘역사’는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세력이 다투던 공간에서, 일본제국이 주도하는 ‘만주국’이라는 공간으로 변한 것을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철은 일단 사고를 멈추는 것을, 내레이터는 주의 깊게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철의 시선이 이동하여, ‘신경’의 거리를 걷는 여자들의 옷차림으로 눈이 옮겨진다. ‘신경’ 여자들의 옷차림 변화와 서울 여자들의 풍속의 변화를 발견한 철은, 거기에서도 또 ‘새삼스레’ ‘역사’를 느끼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나타-샤의 차림새 같은 ‘서양화’된 서울 여자들의 차림새에서, 여자들이 맨다리를 드러내지 않았던 이전보다 ‘근대화’한 근대도시 서울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근대도시 ‘신경’에 와서 ‘새삼스레’ 깨닫고, ‘새삼스레’ ‘역사’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창춘이 ‘신경’으로 변한 변화와 서울의 풍속의 변화를 인지한 지점에 철의 인식을 멈추게 한다. ‘舊’가 ‘新’이 되고, ‘역사는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 변하는 역사를——’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역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 또는 일단 내려진 판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렇다면 과연, 판단이 보류된 ‘역사’는 어떠한 것인가, ‘신경’의 ‘새로운’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소설 「新京」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2) '신경'의 관아 건축양식과 이데올로기성

당시, 급행열차 ‘히카리(ひかり)’가 부산과 ‘신경’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열차는 ‘신경’

의 남서방향에서 남신경역을 지나, 신경역에 도착했다. 신경역으로 접근하는 열차에서 철이 본 ‘신경’은, 철의 시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그 기대하던 신경은 과연 철의 예상에 어그러지지 않았다. 남신경(南新京) 근처부터 벌써 별판 이곳저곳에 맘모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우뚝우뚝 보이더니 인해 웅대한 근대도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즉도 건설 도중이라는 느낌은 있었으나 갖나온 연녹색 버들 사이로 깨끗한 콩쿠리-트의 주택들이 깔리고, 멀리 보이는 큰 건축물들의 동양적인 지붕도 눈에 새로웠다.—이 건축의 새로운 양식도 동양이 서양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견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한 나타남일까 하고 철은 생각했다. (1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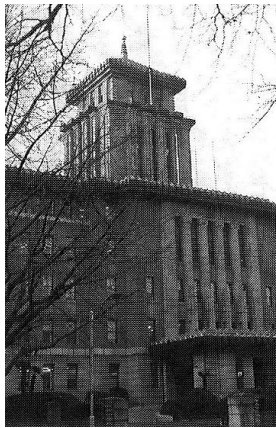
철이 본 것은 ‘맘모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 ‘깨끗한 콩쿠리-트의 주택’, ‘멀리 보이는 큰 건축물들의 동양적인 지붕’이 있는 ‘아즉도 건설 도중’인 ‘웅대한 근대도시’였다.

위의 인용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멀리 보이는 큰 건축물들의 동양적인 지붕’에 대한 철의 감상이다. 지금의 창춘을 가 봐도 ‘만주국’ 시대 건축물의 규모와 모양은 눈에 띈다. 더군다나 1940년대의, 아직 마천루도, 고층 아파트 단지도 없었던 시대라면, 그 광경은 보는 사람을 압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철은 그 광경에 막연히 압도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새로운’ 건축양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서양건축의 몸체에 동양풍 지붕을 올린 건물, 일본의 건축용어로 하면 제관양식(帝冠樣式)의 건축물이다. 『건축대사전』 18)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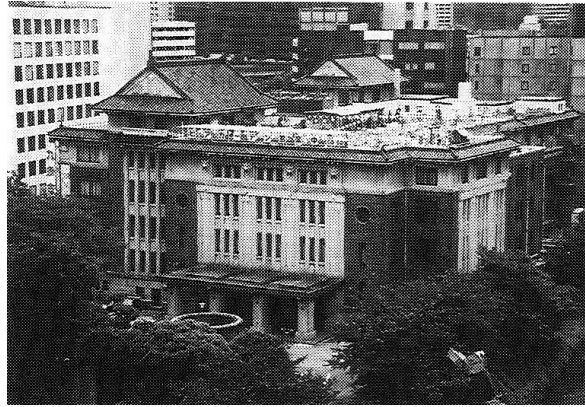
쇼와초기 내셔널리즘의 대두를 배경으로하여 무국적 또는 국제적 양식인 근대주의 건축에 대항하여 주장된 양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구조이고, 이에 전통적인 지붕을 얹은 것이 최대의 특색이다. 일본풍 또는 동양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풍의 색채가 강한 외관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내셔널리즘과 파시즘이 고양되던 1930~40년 경의 것들을 일컫는다. (후략)

철이 본 제관양식 건물은 위 사전의 설명을 보면, 1930년대 일본의 내셔널리즘 대두를 배경으로 ‘서양’의 모더니즘 건축에 대항하여 고안된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관양식은, 일본 ‘내지(内地)’뿐 아니라, 대만, ‘만주’ 등 ‘외지(外地)’에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건축물을 보면 【그림 3~7】 과 같은 것들이 있다.

18) 彰国社編 『建築大辞典』 第2版, 彰国社, 1993年, 11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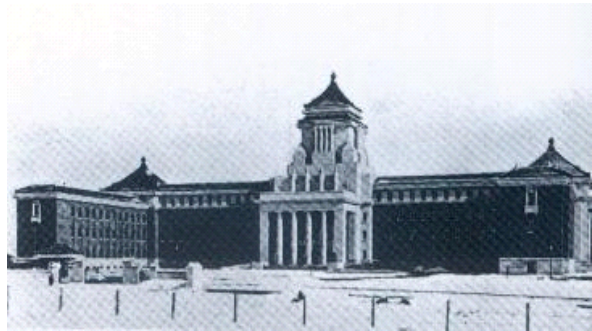
【그림3】 가나가와현청 (1928년 준공)¹⁹⁾



【그림4】 군인회관 (1934년 준공)²⁰⁾



【그림5】 미츠비시강덕회관 (1936년 준공)²¹⁾



【그림6】 만주국국무원청사 (1936년 준공)²²⁾



【그림7】 관동군사령부(1934년 준공)²³⁾

제관양식이 일본 ‘내지’ 이외의 곳에서 적용될 때는 흥아양식(興亞樣式)이라고도 일컬어졌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이국의 쇼와문학 —— 「만주」 와 근대 일본』²⁴⁾의 서장

19) 越沢明, 앞의 책, 183쪽

20) 越沢明, 앞의 책, 183쪽

21) <http://blogs.yahoo.co.jp/yosihei8jp/folder/1060536.html>, 최종확인 2008년 9월9일.

22) 西澤秦彦, 앞의 책, 112쪽.

23) <http://blogs.yahoo.co.jp/yosihei8jp/folder/1060536.html>, 최종확인 2008년 10월 20일.

에서 ‘신경’의 흥아양식에 대해 ‘서양의 과학문명과 동양의 정신문화의 융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독특한 건축양식은 ‘흥아’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한 방향이었던 아시아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내지’에서 활동하던 건축가들에게 있어 ‘만주’ 건축물의 디자인성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은 것이 못 됐다.

이치우라 켄 - 실제로 신경 부근의 건축가는, 그게 만주에서 할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책상의 문제로 그런거 밖에 못 한다고 하는 걸까요. 어느쪽이든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돈이 부족하다든가라는 이유로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²⁵⁾

이 자료는 일본의 건축가 단체인 일본공작문화연맹(日本工作文化連盟)이 1939년에 개최한 「대륙건축좌담회(大陸建築座談會)」에서 한 건축가의 발언이다. ‘만주’의 건축물이 ‘정책상’ 그러한 형태로 된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런거’는 ‘최고’가 아니라는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지 기술적, 공학적 영역에 속하는 듯이 보이는 건축양식이, 실제로는 다양한 사상이나 정치성과 결합해, 무형의 것들을 유형화하는 표현 수단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일본만의 사정이 아니라, 상하이의 구(舊)공동조계지 와이탄(外灘)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열강들은 건축물을 통해서 독자적인 대외 식민지 정책을 표현했다. 후지타 히로오(藤田弘夫)의 『도시의 논리』에서 수도와 권력과 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 보자.

수도에 건설된 신전, 왕궁, 공공시설 등은 가능한 한, 각각의 권력을 상징하도록 설계되었다. 나아가 그에 더하여 권력을 기념하는 거대한 <비(碑), <상(像)>, <묘(廟)> 등이 위엄있게 건립되었다. 거기에야말로 권력이 갖는 ‘의미’가 세겨져 있는 것이다. 즉 권력은 건조물의 모습을 빌어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 (중략) 수도의 중심부에는 어디든 기념비적 건조물이 뻗뻗히 들어서 있다. 나아가 그곳에는 국가의 탄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기호화’되어 있다. (중략) 권력은 스스로의 힘과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거대한 기념비적 건조물을 조영(造營)한다. (중략) 그때, 건조물의 크기와 높이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²⁶⁾

‘건조물의 모습을 빌어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권력이 바로 아시아주의

24) 川村湊 『異境の昭和文学 —— 「満州」と近代日本』 岩波書店, 1990년, 5~7쪽.

25) 日本工作文化連盟 「大陸建築座談會」 『現代建築』 第8号, 1939년 10월.

26) 藤田弘夫 『都市の論理』 中央公論, 1993년, 95~96쪽.

를 표방하는 ‘만주국’과 일본제국이고, ‘신경’은 실로 ‘거대한 기념비적 건조물’로 그 권력의 힘과 정당성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만주국’의 수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경’의 건물에는 기능성 이상의 기호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신경’의 거대한 관아건축의 건축양식을 보면, 몸은 서양, 머리는 동양이라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표현으로 보이는 한편, 서양 위에 올라탄 동양이라는 「근대의 초극(近代の超克)」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에서의 제관양식이 내셔널리즘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는데, 대만이나 중국의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민족양식’과도 형식 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근대의 초극」과 「동아신질서」의 공간을 그리는 것, 자기표상하는 것

고시자와 아키라(越沢明)는 ‘신경’의 제관양식이 일본 파시즘의 구현이라는 건축학계의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시아주의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러나 애초에 일본의 내셔널리즘이나 파시즘은 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 아시아주의를 흡수하여 진화시킨 형태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이었고, 그 최대의 선전 공간이 ‘만주국’이었다. 일본제국에게 있어서의 ‘만주국’을 18·19세기형 유럽식 식민지와 차별화하여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이 뒤늦은 제국주의로 해외에 팽창해 감에 있어서, 서구열강의 이른바 고전적인 식민지 통치로는 한계와 비난, 모순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동조론(同祖論)’에 기반한 한일합병과 ‘황민화(皇民化)’정책을 취하고, 중국대륙에서는 괴뢰정권 ‘만주국’을 세워,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일만일체(日滿一體)’를 내건 간접지배를 행한 것이다.

아시아주의는 당초의 일본과 중국, 조선의 관계론에서 시작하여, 러일전쟁 이후, 아시아의 혁명세력을 지원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였고, 중일전쟁의 정세변화와 함께 이윽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아시아의 신질서 구축, 즉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로 전개된다. 이는 다시 대동아공영권 구상으로, 더욱 노골적인 확장주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주의는 애초에 ‘서양’에 대응하는 ‘동양’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출발했다는 것과 근대 이전의 중국을 중심으로한 일원적 구조에서 벗어나 다원성을 지향한다는 성격이 전제된다. 명목상으로는 근대 서구열강과 근대 이전의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일본이었고, 근대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의 일본군의 ‘승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그 ‘진화해 가는 아시아주의’에 충분한 설득력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동아공영권’ 제창 이전,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의 브레인 집답이었던 쇼와연구회(昭和硯究會)가 ‘동아신질서’의 구체적인 실현형태로 제기한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쇼와연구회의 멤버이자 중국연구가였던 오자키 호즈미(尾崎秀實)의 「『동아공동체』 이념과 그 성립의 객관적 기초」²⁷⁾라는 글을

27) 尾崎秀實 「『東亜共同体』の理念とその成立の客観的基礎」 『中央公論』第54卷 第1号, 1939년1월

발췌해 보겠다.

‘동아협동체’ 이념은 이미 옛것일 것이다. 만주국 성립에 즈음한 왕도주의도, ‘팔괘일우(八紘一宇)’의 정신도 근본에는 ‘협동체’ 관념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동아연맹’ 사상과 함께 ‘대아세아주의’론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 하에 있어서 ‘신질서’의 실현수단으로 나타난 ‘동아공동체’는 바로 일지사변(日支事變) 진행과정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중략) 동아공동체론 성립의 기초 중 하나가, 이상과 같이 일본의 일방적 방식에 의해 동아 제국(諸國)을 경제적으로 조직하하는 일은 곤란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결과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동아공동체’론의 발생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에 있어서 민족문제를 재인식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의 민족문제는 이것이 현대 지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몇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너무도 가까이에 존재하고 게다가 너무도 큰 문제가 간과되기 쉬운 것과 같이, 지나의 민족문제는 때때로 지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때 쉽게 잊혀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중략)

그러한 협동체의 확립은 반드시 그 지도적 구성원인 일본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인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함께, 많은 이익을 얻게 할 것이다.

오사키는 위의 글에서, 중일전쟁이 장기화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본이 확장주의적인 정복이 아니라, 중국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중국의 민족의식과 반일항전이 일본측의 예상 이상으로 격하고, 뿌리 깊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중국연구가다운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 중국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협동체제에 일본과 아시아가 살아남는 길이 있다는 의견은 쇼와연구회 멤버들의 동의 하에, 1938년 11월 3일에 행해진 고노에 성명의 큰 골자이기도 했다. ‘동아협동체’ 논자들은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를 비롯한 ‘동아연맹’ 논자들과도 구별되는 그룹으로, ‘당시 일본의 중국 침략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침략정책과 군사침공을 막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가능한 한 궤도수정을 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던 사람들’²⁸⁾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는 ‘우한(武漢) 함락’을 ‘새 사태’로 인식하여, ‘동아협동체’를 ‘일지사변의 진행과정이 낳은 역사적 산물’, 즉 전쟁의 진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맞게 될 미래상으로 제창하는 학적 연구가 어떠한 설득력을 획득하여 전개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8) 伊東昭雄編 『アジアと近代日本 反侵略の思想と運動』 社会評論社, 1990년, 256쪽.

유진오는 『삼천리』 1940년 9월호에 「소감(所感)」이라는 짧은 글을 일본어로 남기고 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지난 3년 간에 사변은 당초 내가 상상도 못 했던 웅대한 규모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사변은 지금은 단순한 장(蔣)정권 타도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동아신질서의 건설이라는 적극적인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사변이 단지 소극적이고 군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문화인들은 단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시국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이었다. 허나 이렇게 적극적인 것으로 발전해 오면, 우리들은 단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만이 아니라, 실로 문화인으로써의 책무까지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건대 동아신질서의 건설은, 또한 동아신문화 건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²⁹⁾

여기서는 중일전쟁의 장기화, 특히 1940년 왕자오밍(汪兆銘) 정부 성립 이후의 정세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군사적인 침략일 뿐이었던 중일전쟁에 할 수 없이 ‘협력’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동아신질서’라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전화되었음이 드러난다. 이 자료만 봐도 유진오가 오자키를 비롯한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이 주장하고 있던 ‘동아공동체’론에 찬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아시아의 전장에서 이어지는 일본의 승리,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한 왕자오밍 정권의 등장, 일본과 영미 간의 본격적인 대전, ‘신경’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상황을 목격한 조선의 지식인이, 필연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협동체’를 미래상으로 그리는 것은 그리 의외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가장 먼저 완성된 위풍당당한 수도건설국, 경창국, 관동군사령부 등과는 달리, 일본의 패전, 즉 ‘만주국 붕괴’까지 신궁전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만주국’의 ‘권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소설 텍스트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동양이 서양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견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한 나타남’이라는 철의 생각은 제관양식에 담긴 ‘근대의 초극’과 ‘동아신질서’의 의미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에 대한 아시아의 해방과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배라는, 일본제국의 더블 스탠다드는,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실제로는 무수한 모순을 배태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본 소설 속에도 ‘만주국’에서 조선인이 처하는 입장이라는 면에서 극명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본 ‘신경’의 도시계획·건설과 그 정치적 의미는 작중 인물인 철의 시선을 통한

29) 유진오 「所感」 『삼천리』 1940년 9월, 91쪽.

것이였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신중하게 자신을 철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내레이터는 철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통해, 그 모순을 드러내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인공 철과 내레이터와의 거리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다음의 인용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놓여진 지위란 무서운 것이어서 몇해 그일을 맡아보아오는 동안에 철도 인제는 그런 일에 제법 익기도 하고, 여간해서 불쾌감을 이르키지도 않게끔 되였다. 아무 앞이나 아무 거리낌 없이 고개를 숙일 수도 있었고, 택없는 비난을 받아도 그저 허허 웃으며 이리저리 변명해 넘길 수도 있게끔 되였다. 가끔 철은 그렇게 변한 자기를 일종의 타락이 아닌가 하고 도리켜 생각해 보는 때도 있었다. 좀 더 젊었을 때 철이 쓴 글들에서 보든, 튀기면 끊어질 듯 날카로운 신경(神經)을 생각해 본다면 철의 오늘날 심경은 미상불 일종의 타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철은 그것을 자기의 성장이라 해 스스로 변명했다. 책상물림이 약간이라도 세상맛을 알게 된 결과거니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란 것을 잃지만 앓고 있다면 고만 아닌가. 현실을 현실 대로 보고, 그것을 우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항상 꿈꾸는 좀 더 큰 문학을 낳기 위해 도리혀 필요한 수련(修練)이거니도 했다. (193~94쪽)

철의 내면 기술과 내레이터의 직접기술이 교차·경합하면서, 철의 변화를 나타내는 밑줄 친 ‘일종의 타락’은 확정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두 서술 간에서 철은 자신의 ‘일종의 타락’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내레이터의 직접기술이 아니라, 철의 내면을 기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에 의해 이 합리화가 어디까지나 철의 시점에서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의 ‘튀기면 끊어질 듯 날카로운 신경’을 잃고, ‘아무 앞이나 아무 거리낌 없이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택없는 비난을 받아도 그저 허허 웃으며 이리저리 변명해 넘길 수도 있게끔’ 된 자신을 ‘좀 더 큰 문학을 낳기 위해 도리혀 필요한 수련’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성장’은 철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기(自己)>, 또는 내레이터가 존재한다. 이러한 철과 내레이터 = <또 하나의 자기>의 교차·경합에 의한 자기반성과 자기합리화 그리고 그에 대한 냉정한 시선은, 주인공에 밀착된 내레이터가 아니라, 그 사이의 거리를 의식케 한다. 철 자신이 아무리 ‘현실을 현실 대로 보고, 그것을 우선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장’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일종의 타락’으로 보는 내레이터 = <또 하나의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소설 「新京」은 유진오가 자기자신과 주변의 인물들을 소설의 등장인물로 그린 ‘모델소설’³⁰⁾, ‘자기표상 텍스트’³¹⁾이다. ‘<표상>이라는 말을 도입함으로써, <씩여지는 자기>와

30) 정호용 「일제하 지식인의 내면풍경——유진오 「신경」」 『문학사상』 第24卷 9号, 문학사상사, 1995년9월, 282쪽

<쓰는 자기>, 및 컨텍스트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길이 열린다.³²⁾는 히비 요시타카(日比嘉高)의 주장을 받아들여, ‘씩여지는 자기’ 철과 ‘쓰는 자기’ 즉 좁게 말하면 작중 내레이터, 넓게 말하면 작자는 모두 작가 유진오의 ‘자기표상’으로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텍스트는 다시 현실의 컨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변형과 억압의 과정을 거쳐, 존재하고, 나타나게 된다. 소설 「新京」은 그러한 변형과 억압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실’에 밀착하면 밀착할 수록 ‘일종의 타락’으로 부정되는 ‘자기’를 그린 ‘자기표상 텍스트’로 위치지을 수 있을 것이다.

4. 맺으며

본고는 유진오 「新京」을 통해 작품 전체의 해석 보다는 ‘신경’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를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확인해 가는 작업을 하였다. 「新京」의 주인공이, ‘옛[舊]’ 것은 가고 ‘새로운[新]’ 것이 도래한다고 인식하고 확인한 ‘신경’이라는 공간은, 실제로는 ‘만주국’의 수도로 선정되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중국 세력은 ‘봉쇄’한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국도건설계획도’를 통해 읽어 보았다. 그리고 주인공이 ‘동양이 서양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견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한 나타남’으로 인식하는 ‘신경’의 건축물은, 제관양식이라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대두를 배경으로 ‘서양’의 모더니즘 건축에 대항하여 고안된 건축양식으로 세워진 것들이고, 그 안에는 ‘근대의 초극’과 ‘동아신질서’라는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경’이라는 공간은 이렇게 도시계획과 건축양식을 통해 ‘대동아’를 구현하고, 필연적으로 올 미래상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유진오가 ‘만주국’의 수도 ‘신경’을 제재로 하여 쓴 소설 「新京」에는 ‘신경’이라는 도시공간이 만들어낸 ‘대동아’의 이상과 현실에 존재하는 ‘만주’의 다양한 모순을 자각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통찰, 그리고 필연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미래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작중 주인공, 그리고 현실의 작가는, ‘현실’에 밀착하면 밀착할 수록 ‘일종의 타락’으로 부정되고 마는 이 텍스트의 내러티브 장치에 처음부터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한 달 후에 열릴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조선대표로 참가하는 「新京」의 작가 유진오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자기자신이 납득하고, 자기비판을 하기 위해, ‘자기표상 텍스트’ 「新京」을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31) 日比嘉高 『〈自己表象〉の文学史——自分を書く小説の登場』(翰林書房, 2002년)의 키 텀. 보다 상세한 정의는 日比의 책 9~12쪽 참조.

32) 日比嘉高, 앞의 책, 11쪽.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시인들의 만주 거주 유형과 만주 인식

田月梅(한국학중앙연구원)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거류형 : 서정주, 유치환, 김조규, 박팔 |
| 2. 한국근대시인들의 만주 거주 유형의 분류 근거 | 양, 윤해영, 이육사, 백석 등 이주시인들의 경우 |
| 3. 만주인식의 제상 | 4) 방문형 노천명: 타자시각으로서의 공간 |
| 1) 토착형 : 윤동주-모성의 원형 공간 | 4. 결 론 |
| 2) 정착형: 심연수-개척을 통한 정착 공간 | |

1. 서 론

만주는 고대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외교, 영토 등 문제로 한국, 중국, 일본 삼국내지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각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청조 때부터 만주라는 지명으로 불리던 이 지역은 그 전에는 遼東으로 불렸고 지금은 중국에서 동북3성으로 불리고 있다.

광활한 요동벌은 고조선, 부여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대까지 1000년을 걸쳐서 대제국의 흥성을 구가했던 곳이고, 더욱이 발해(699~927)가 2세기 이상 남쪽 대동강 유역으로부터 북만주의 너른 평원 즉 북쪽 흑룡강 중하류 일대, 우수리강 중하류 유역, 송화강 중하류 지방의 사방 5천리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통할하여 흥성했던 곳이다. 또한 중국에 遼를 건국한 거란족, 金을 건국한 여진족, 元을 건국한 몽골족, 淸을 건국한 만주족이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근대에 일제는 1931년 ‘9.18사변’을 일으켜 무력으로 만주를 점령한 후 1932년 3월 1일 청나라 말대 황제 부의를 내세워 괴뢰정권 ‘만주국’을 건립하고 1945년 8.15 직전까지 14년간 잔혹한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만주는 1946년 2월 국민당이 접수했으며 1947년 遼沈戰役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들어갔다.

일제강점기 만주에 이민을 갔거나 만주를 다녀갔거나 만주를 체험화한 한국근대시인의

숫자는 30을 상회한다. 그들로는 김조규, 김달진, 김복원, 김동환, 김기림, 남승경, 윤동주, 박팔양, 이육, 이육사, 이용악, 이수향, 이복명, 이찬, 이포영, 유치환, 윤해영, 백석, 함형수, 심연수, 신상빈, 천청송, 송철리, 모운숙, 임학수, 노천명, 손소희, 조학래, 장기선, 채정린 등이다. 그들이 만주에 대한 거주방식, 체험이 다름에 따라 시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만주인식도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만주가 한국 문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문학적 제재와 배경으로 작용하던 1930, 40년대에 있어서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문학적 삶을 영위하였거나 체험을 했던 한국근대시인들의 거주 방식의 유형을 정의하며 이 유형과 관련된 시문학 작품에서 만주가 어떠한 문학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의 성격과 한국문학사상의 의의를 규명해본다.

2. 한국근대시인들의 만주 거주 유형의 분류 근거

시인 피테는 체험을 통한 주관의 문학이 시라고 하였다. 시인의 체험이 다름에 따라 같은 공간이라도 시작품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장소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과 의식은 자기 삶의 현장에 대한 물리적 경험이자 의미공간에 대한 각기 다른 탐색의 결과이다.

이 연구는 공간, 시간, 인간 삼자의 관계를 토대로 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만주라는 공간과 한국근대시인이 만나는 시간에 따라 만주출신지로서의 토착형, 만주정착지로서의 정착형, 만주체류지로서의 거류형, 만주방문지로서의 방문형, 만주 간접체험지로서의 간접 체험형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만주인식에 관한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로 만주출신지 개념인 토착형이다. 토착형은 만주가 태어나고 성장한 출신지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출신지는 체류지나 거주지와는 달리 그 본질상 피동적, 근원적, 그리고 불변적 속성을 지닌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적어도 본인에 의해서 자율적, 능동적으로 선택된 곳이 아니라 신적 내지 인간적 타자에 의해 운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출신지는 존재의 삶의 뿌리이고 또 자의적 또 타의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다. 출신지의 조부모와 부모, 어린 시절의 친구, 그밖에 자연풍경과 풍물은 인간의 자아형성과 개인 발전에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출신지인 고향은 아동시절과 동심의 세계 가운데 있다. 아동시절은 현재와 만나고 있는 고향의 과거 지평이고 동심은 고향에 머물고 또 고향은 동심에의 회상가운데 거한다. 윤동주에게 만주는 출신지 공간이다. 윤동주 집안은 1886년에 한반도를 떠나 간도 자동에 이주하여 거기에서 윤동주 부친이 출생하고 1900년에 명동 촌으로 이주하여 1917년에 명동에서 윤동주가 출생하였는바 윤동주는 운명적으로 북간도에서 태어난 3세이다.

둘째로 만주정착지 개념으로서의 정착형이다. 정착형은 태어난 고향은 떠남의 장소이고

만주는 들어옴의 공간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태어난 한반도나 다른 지역은 출발지이고 만주는 귀착지이고 정착지가 된다. 정착형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산 지 오래되어 의식에서 고향이 희미하게 되었거나 사라졌고 또 고향을 자기에게서 멀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타향이 더욱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위 고향의 타향화, 타향의 고향화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만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1.5세로 심연수와 이육을 들 수 있다. 심연수 집안은 1800년대 중엽부터 한반도에는 전래 없던 재황이 잇따르고 기근이 발생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서 만주로 이주하였고 이육 집안은 러시아에서 만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만주로 건너간 뒤 거기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고 평생을 만주에서 정착하여 보냈다.

셋째로 만주거류지, 생활지개념으로서의 거류형이다. 거류지 또는 생활지는 ‘집’이나 ‘hom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만주에서 생활한 것을 말한다. 성인이 되어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거류목적으로 자리 잡은 만주 공간은 방문지처럼 짧고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가변적이다. 만주는 들어왔다 나감의 공간이고 한반도는 떠났다 돌아옴의 공간이다. 거류형에는 김조규, 김달진, 박팔양, 백석, 서정주, 유치환, 윤해영, 이육사 등 시인들이 포함된다. 만주에 거류한 시인들로는 항일혁명 목적으로, 자의로 이주, 자의로 피난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항일혁명목적으로 만주에 거류한 시인으로는 이육사를 들 수 있다. 1905년 乙巳勒約의 체결이후 조선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진보적 지식인과 항일 투사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들은 허허 넓은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근대적인 학교를 세우고 이민과 자제들에 대한 계몽과 반일 독립 투쟁에 진력한 것이다. 이육사는 만주와 중국, 한반도를 누비며 독립 투쟁에 몸을 담근 항일 투사이자 시인이다.

자의피난으로 만주에 거류한 시인으로는 김조규, 김달진 등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일제는 20년대의 소위 문화정치란 미명의 식민통치 방식을 버리고 조선을 완전히 일본화하기 위해 내선일체와 황국화신민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억압되었고 그들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각하였다. 이런 상황은 조선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대거 만주행을 선택하게 하였다. 김조규, 김달진 등은 일경의 감시를 피해 거류의 목적으로 자의피난으로 만주로 건너간 시인이다.

자의이주로 만주에 거류한 시인으로는 박팔양, 서정주, 백석, 유치환 등을 들 수 있다. 만주국이 성립된 후 미지의 세계로 떠오르자 어떤 이는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는 일자리를 찾아서, 어떤 이는 친척이나 친구 등의 소개 혹은 스스로 자의 이주로 거류목적으로 만주로 건너갔다. 박팔양은 일자리를 구해 만주로 갔고 백석은 스스로 신경으로 이주 갔으며 유치환은 형 동량의 부탁으로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갔다. 윤해영은 그보다 훨씬 이른 1920년대에 자의이주로 만주로 건너갔다.

넷째로 만주 방문지 개념으로서의 방문형이다. 방문형은 방문 목적으로 만주에 체류하

였기에 그 공간은 짧고 간단하며 가변적이다. 방문지는 타자시각으로 안겨온다. 방문형에는 노천명이 있는데 그는 여행목적으로 1937년 북간도의 용정, 연길 등지를 다녀왔다.

한국근대시인들의 이러한 만주거주방식의 유형에 근거하여 본론에서는 만주가 태어난 출신지인 토착형, 어릴 때 만주로 가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정착형, 항일혁명이나 거류 목적으로 자의 피난 혹은 자의 이주로 만주로 갔다가 돌아온 거류형, 만주를 방문이나 여행으로 다녀온 방문형으로 분류하며 이 유형에 따라 만주인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3. 만주인식의 제상

여기에서는 위에서 나눈 한국근대시인들의 만주인식이 만주거주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아래 그 제상을 검토해본다.

1) 토착형 : 운동주-모성의 원형 공간

토착(土着)은 출생지, 그 지방 고유의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영어로는 native이다. 그 땅에서 출생하여 대대로 그 땅에서 뿌리내려 살고 있는 백성은 토착민 혹은 본토박이, 토민, 토인이라 한다. 토착형은 만주에서 태어나 만주를 고향으로 삼아 시 창작활동을 한 시인들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운동주가 포함된다.

운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이민 3세로 북간도의 명동마을에서 태어나 9세에 명동소학교에 입학하여 15세에 졸업하고 중학 과정은 은진중학, 평양숭실중학, 광명중학교에 전입학을 거듭하면서 수학했다. 그 후 22세에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하여 26세에 졸업하고 1개월 반 정도 고향집에 머물렀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선후로 東京 立教大學 문학부 영문과, 京都 同志社大學 영문학과 선과에 입학하였다. 1943년 7월 14일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고 1944년 4월 1일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목으로 징역 2년을 언도를 받아(구형은 3년) 福岡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앞두고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옥사하였다.¹⁾ 시인의 유골은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고 현재 용정에는 그의 묘소가 있다. 운동주의 조부모와 부모, 동생 광주는 모두 북간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스물아홉의 짧은 생애 중 22년을 만주에서 보냈고 그중 14년을 고향 명동에서 보냈으며 학업으로 인해 이향을 거듭하는 운동주에게 고향 명동마을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리움에는 어머니가 핵을 이루었는데 시인에게 어머니는 타향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초적 대상이었다.

1) 왕신영, 심원섭, 오오무라 마스오, 윤인석 엮음, 「운동주 연보-故 尹一柱교수가 작성한 것 토대로 하였음」,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1999, 385쪽 참조.

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속의 별들을 다 헤일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색여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來日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靑春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하나에 追憶과
별하나에 사랑과
별하나에 쓸쓸함과
별하나에 憧憬과
별하나에 詩와
별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小學校때 冊床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일흔과 佩, 鏡, 玉 이런 異國少女들의 일흔과 별서 애기어
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일흔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일흔과 비둘기, 강아지, 토
끼, 노새, 노루, 「푸랑시쓰·짬」, 「라이넬·마리아·릴케」 이런 詩人의 일흔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北間島에 계십니다.

—윤동주, 〈별헤는 밤〉 부분, 1941.11.5

1941년 11월 연전 졸업을 앞두고 시인이 어머니에게 편지글 보내는 형식으로 쓴 이 시
에서 느껴지는 기본적인 정서는 그리움이다. 그 그리움은 시인이 별을 헤는 것으로 표현되
었다. 시인이 별을 헤는 것은 별을 동경하는 마음과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의 이름, 곧 옛 고향의 추억을 헤는 것이고 현재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별에는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그리고 소학교 때의 동무 이름들, 중국 여자 아이의 이름들, 가난한 이웃,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와 같은 순수하고 약한 동물들 등등이 들어 있다. 화자가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대상들은 원초적이고 근원적이며 자연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그리움의 핵심을 이룬다.

4연 마지막 행에서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반복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동경의식의 중심에 어머니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는 생명 탄생의 근원이자 모든 인간이 마침내 귀소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의 삶이 모성에서 시작하여 그의 품으로 돌아가듯 어머니는 생명의 원적으로, 그리고 삶 이후의 궁극적인 세계라는 점에서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 시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이 모두 어머니에 귀착이 되는데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北間島에 계신’다는 것이다.

화자에게 있어서 어머님이 계시는 북간도는 나서 자란 고향이고 시와 시심을 키운 터전이다. 화자에게 안겨오는 이 세계는 아름다운 화해와 사랑의 세계다. 마치 동화처럼 모든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또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심미의 세계이다. 이는 시인의 삶이 근원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데아(idea)이며 그 구체적인 심상은 명동마을에서의 삶으로 표상된다.

윤동주가 간도 은진 중학교에서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한 후에 쓴 동시 <南쪽 하늘>에서도 ‘제비는 두 나래를 가지었다/시산한 가을날-//어머니의 젓가슴이 그리운/서리 내리는 저녁-//어린靈은 쪽나라의 鄉愁를 타고/南쪽하늘에 떠돌뿐-’ 쓸쓸하고 스산한 가을날 두 날개를 펴고 날고 있는 제비를 바라보면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여기에서 ‘시산한 가을날’, ‘어머니의 젓가슴’, ‘서리 내리는 저녁’이 그리움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두 날개를 가진 제비에 비해 ‘쪽 나라의 향수’는 구체화된 아픔으로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동경의식을 부채질한다.

그 외 윤동주의 초기 동시인 <고향집>에서도 ‘따뜻한 내고향/ 내어머니 계신곳/ 그리운 고향집’이라고 고향을 떠난 외로움 속에서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윤동주의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이미지는 고향을 떠나면서도 점점 되살아나 어머니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항상 달무리처럼 환히 비쳐지고 있다.

이토록 윤동주의 시에서 어머니는 순수한 동심 지향적 의식세계를 이루는 요체로서 낙원으로 표상되는 북간도는 어머니와 결합된 평화 공간으로 나타난다.

2) 정착형 : 심연수-개척을 통한 정착 공간

정착(定着)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불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settlement, domiciliation이다. 정착형 시인은 한반도 등에서 태어나 만주로 이민을 간

뒤 거기에 뿌리를 박고 정착한 시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심연수가 포함된다.

심연수는 1918년 5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했다. 그가 6살 나던 해인 1924년에 그의 가족은 가난을 피해 고향 강릉을 떠나 구소련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사한다. 거기에서 생활한 지 6년째 구소련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조선인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집단 이주시키는 바람에 살길 찾아 1931년에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중국에 건너온 후 처음에는 흑룡강성 밀산, 그 다음에는 신안진에 살았다. 1935년에는 지금의 용정 吉興村에 정착하여 용정사립동소학교에 편입해서 1937년에 졸업하고 그해 용정의 동흥중학에 입학하여 1940년 12월 6일에 졸업하였다. 1941년 2월에는 일본유학의 길에 올라 일본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하였다. 1943년에 일본군의 학도병 징발을 피해 일본에서 용정에 돌아온²⁾ 심연수는 신안진으로 가서 진성 국민우급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8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안진으로부터 도보로 용정으로 돌아오던 도중 왕청현 춘양진에서 일제 앞잡이에게 붙잡혀 28세의 젊은 나이에 무참하게 피살되었다.

28년의 생애 중 후반 14년을 만주에서 보낸 심연수에게 만주는 이주한 고향, 개척을 통한 정착 공간이었다. 그의 시 <만주>에서는 ‘잘살려고 故郷떠나/못사는게 他郷사리’이고 ‘흐무할 품을찾어/들뜬마음 잡으려고/두려서 東海를 漁船에실려/대인꿈은 漠漠한 별판이 었’으며 ‘싸늘한 北風바지 헤넛은곧/떼장막을치고누어/떠돌든몸 쉬이려든心思/불상한流浪民의 꿈이었다’고 이주초기 고향을 떠나 타향에 떠돌아야 하는 고달픔과 서글픔, 고난의 삶을 엮은 이주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서러움과 울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연에서 ‘서글퍼 가없든 부모형제/헐벗고 주림을 참든일/지금도 뼈아픈 눈물의記錄/잊지 못할 拓史의 血痕이었다.’고 만주를 새로운 정착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개척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만주는 결국 ‘척사의 혈흔’으로 땅을 넓히고 개척해 온 피가 묻은 흔적의 땅이다. 새로운 터전에 대한 개척의지는 시 <들꽃>에서도 개척민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다.

曠野에 피는꽃
참다운 삶의靑春
塵世를 떠난곳에
微笑하며 춤을춘다
끝없이 맑은하늘에

2) 심연수가 일본대학 예술학원 창작학과 입학하여 졸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엇갈린다. 김혜웅 「심연수 문학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황규수의 『심연수 원본대조 시 전집』(학술정보, 2007)등에서는 모두 졸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상규의 「재탄생하는 심연수 선생의 문학」(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4)논문에서는 일본대학에 직접 가서 확인해본 결과 졸업생 명단에 심연수 이름이 누락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태평양 전쟁이 극도로 심화되었을 당시 일본군의 학도병 징발을 피해 심연수가 졸업하지 않고 용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하고 있다.

키도듬을 하며 크다
 大地의 품에 안겨
 별에 붉은 天真한 얼굴
 雜草숲에 추려 자란 哲土의 뜻
 역세일 天候를 익히려는 힘
 보다 높은 理想에 살려는 맵시
 들에서 찾아낸 귀여운 님이였다
 내가 찾는 참다운 生命의 꽃
 零落없을 열매의 꽃이란다

- 심연수, 〈들꽃〉 전문, 1941.7.4

시적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대상인 ‘님’을 들에서 찾고 있다. 들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키우는 생명력의 근원이고 개척민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다면 시적화자가 찾는 ‘님’은 누구일까? 제목에서 제시된 들꽃이다. 여기에서 들꽃은 개척민을 상징한다. 들꽃은 드넓은 광야에서 塵世를 떠나 나뭇대로 자라는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꽃이다. 광야에 뿌려진 들꽃의 씨앗은 맑은 하늘과 키 돌음하며 자라고 관계하는 이 없어도 미소하면서 춤을 추며 쑥쑥 잘 자란다. 이러한 들꽃은 마치 햇볕아래 말없이 열심히 일을 하여 얼굴이 붉게 탄 개척민과 흡사하다. 들에서 찾아낸 이 귀여운 님인 들꽃이 영락없을 열매의 꽃이고 참다운 생명의 꽃이라면 광야를 건설하는 참다운 한 떨기 꽃으로 피어나는 개척민 또한 대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키워나가는 참다운 생명의 꽃인 것이다. 잡초 숲에서 추려 자란 철사의 뜻은 바로 역세일 천후를 이기려는 힘이고 보다 높은 이상에 살려는 의지이다. 이 시는 새로운 터전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나가는 개척의 뜻을 찬양하고 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시적화자는 간도 이민들에게 생명수인 해란강과 용정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심을 느낀다. 시 <追憶의 海蘭江>에서 해란강은 ‘검은 땅 간도의 품을 흐르는 生命水’이고 ‘永遠히 믿음성 있는 나의 동무였’으며 ‘마음속엔 동무’였다고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조 <龍井驛頭에서>는 ‘맨땅인 용정거리’가 제일 ‘낮익고 마음에 간다’고 했고 <낮익은 품속의 사랑>에서는 ‘용정의 품속’은 ‘평화의 내 전당’이라 했으며 <수학여행을 맞이고> 에서는 용정만이 “마음이 편하고 이곳에 내집을 짓고 싶도록 제일”인 안식처라 하였다. 이토록 심연수의 시에서 해란강, 용정 등 새로운 삶의 터전은 화자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정착한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거류형 : 서정주, 유치환, 김조규, 박팔양, 윤해영, 이육사, 백석 등 이주시인들의 경우

거류(居留)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거나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살을 이른다. 영어로는 residence, residing이다. 여기에서 거류형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만주로 가서 몇 개월 내지 1년 혹은 몇 년을 임시로 체류하면서 조국이 광복되거나 그 전에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 시인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김조규, 김달진, 박팔양, 백석, 서정주, 유치환, 윤해영, 이육사 등 시인들이 포함된다.

거류형의 만주인식은 크게 망명과 이민공간과 개념적 상징공간으로 나뉠 수 있다. 망명과 이민공간은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정주, 유치환, 김조규 등을 다루고 개념적 상징공간에서는 이육사, 박팔양, 윤해영, 백석 등을 다룬다.

① 거류형 : 서정주, 유치환, 김조규-망명과 이민 공간

•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텅 빈’ 공간-서정주

미당 서정주는 1939년 10월³⁾에 직장을 구해 만주로 이주한다. 만주로 가기 전에 그는 결혼을 하고 처자를 거느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고창 군청 경리과 임시고원, 사법서사의 견습수업, ‘노가대’판 三仙組 결성 등을 하기도 했으나 맘에 맞지 않았다. 무료하게 직업 없이 지내다가 직장을 찾아 돈 벌러 만주를 간 것이다.

만주로 건너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는 연길 局子街의 만주 양곡 주식회사 간도 출장소 경리과에 한 자리를 얻어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용정 출장소에 옮겨져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일본인 소장과 맞지 않아 일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서정주의 <만주 일기>⁴⁾에서는 그가 만주에서의 항상 의식주에 시달려 집에서까지 돈을

3) 김학동 외, 『서정주연구』, 새문사. 2005. 730쪽에서는 서정주가 ‘1940년을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중략) 만주로 갔다’ 즉 1939년 12월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서정주 <만주일기>의 날짜를 추정해보면 1939년 11월 1일 전에 만주로 간 것으로 그의 만주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5개월 정도로 보인다.

4) 1939년 11월 1일 下宿料와빚을습하면 百圓은잇서야한다. 또 外套와內衣等도 사야만한다. 또 汪淸을가면 月給을타기까지 누가 나를밧고먹이여주나 最小限 二百圓은 잇서야할텐데 어찌케하나 아버지한테선 두달이넘도록 無一張消息이다. 그러케여러번이나 편지와電報를 하엿건만는 低劣하게도 血書까지 써보냈건마는 어머니에게서 二十圓돈이 누이의편지와가치 왔습뿐이다. 妻한테서도 요새는 消息이없다. 지난달初에 어서돈버러서 升海사탕을 사주라는 집에서는 銅錢한넛 갖다쓸생각말라는 封套가온뒤엔 도무지 잠잠하다.’-서정주, <滿洲日記 中> 전문, 매일신보, 1941

1939년 11월 7일 ‘아무 奇別도없다....中國人飲食店에가서胡酒한리食과 만두한그릇을사먹었다. 마지막一圓이다. 마지막一圓으로는 언제나胡酒와 만두를 살일.’ -서정주,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1941.

1939년 11월 6일 ‘기막히는일이다. 하로예나는 멧마디식이나 말올하는가 이러케 한一年만지내면 말하는습관을 아조이져버릴것만같다. 그건조혼일일까.’ -서정주, <滿洲日記 3> 부분, 매일신보, 1941

부쳐올 정도의 경제난, 타국에서의 언어의 불 소통, ‘외국인’으로서의 소외감, 적막함과 고독함, 더불어 가족과 고향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그는 만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5개월 만에 그곳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짐을 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가 1940년 봄이었다.

아무튼 너무나 춥고 고통스러웠던 만주에서의 생활은 25세인 그에게 <만주에서>와 같은 시를 남기게 하였다.

참 이것은 너무 많은 하늘입니다. 내가 달린들 어대를 가겠습니까. 紅布와같이 미치기는 쉬웁습니다. 몇千年을, 오- 몇千年을 혼자서 놀고온 사람들이겠습니까.

.....

바로 말하면 하르빈市와같은것은 없었습니다. 자네도 나도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처음의 복숭아꽃 내음새도 말소리도, 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정주, <滿洲에서> 부분, 『인문평론』, 1941.2

‘참 이것은 너무많은 하늘입니다’는 바로 끝없이 무한정 넓디넓고 막막한 만주벌판에 지평선 끝이 안 보이니 하늘이 꼭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시인은 하늘을 형상화하여 경제난으로 큰 기대를 품고 만주로 간 자신이 도처에서 부딪치게 되는 허무감과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계속 이어지는 ‘내가 달린 들 어대를 가겠습니까’는 이 역시 내가 아무리 달려봐도 똑같은 하늘에 똑같은 벌판, 내가 아무리 달리고 노력을 해봐도 허사했다는 표현이다. 처음 이런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접하는 사람은 ‘紅布와같이 미치기는 쉬웁습니다.’ 즉 붉은 천을 보고 마구 덤비는 소처럼 미치기 쉽다는 말로 풀이되는데 처음 홀로 만주로 간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 절망 등으로 미칠 지경으로 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바로 말하면 하르빈市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는 만주에 많은 기대를 품고 간 서정주가 특히 하르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얼빈은 재정 러시아의 중동철도부속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계획도시이다. 1903년 중동철도 전선이 개통된 시기를 전후하여 철도 부속지가 확대되면서 러시아인, 중국인 등 인구가 급증했고 따라서 하얼빈도 거대 국제도시로 형성되어 나갔다. 그러나 서정주의 눈에 안겨오는 하르빈은 국제

1939년 11월 7일 胡人이 무얼보고 그러는지나보고 막 “니야나야”한다. 醉한김에 좀火가나서 “고노야로썸마니야다...고노야로!”하고 소리를 하여보았다. 胡人들은어안이병병하야 그양무섯고 나도事實은 좀우수었다 來日도기다릴까? -서정주,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1941.

1939년 11월 12일 ‘就職이고 무엇이고 다아거죽말이다. 아무도 나를 그러케는식혀주지안는것이다. 내게서는 별서무슨그런냄새가 나는것이안일까 步行할때는 나를쫓는 고향소리가 四方에서 들린다 이놈아 이속모를놓아 바보같은놈아外國人의 外國人아 가거라地球밖으로...宇宙밖그로! 일테면 씩上座로 찬란한 구름近傍으로 가겠습니다. 테테가겠습니다.’ -서정주,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1941.

1939년 11월 7일 ‘아무 奇別도없다. 참지웁고아무라도막 나를함부루해도 조을것만갓다’ -서정주,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1941.

도시라는 생각과는 달리 일자리 제대로 없고 경제난 해결하기 어려운 기대일 곳 없는 ‘텅 빈 공간뿐’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절망적인 광야와 허무의지-유치환

靑馬 柳致環이 만주로 건너간 시기는 1940년 3월⁶⁾이다. 그가 간 곳은 북만주인 濱江省 延壽縣 維新區 2號였다. 연수현에는 유치환의 형 동량 유치진의 처가에서 소유한 농장이 있었는데 그는 형의 부탁을 받고 그 농장을 관리하였다.

유치환이 만주로 가게 된 원인을 그의 산문집 『구름에 그린다』(1959)에서는 ‘자의 피난’, 어쩔 수 없는 ‘탈출’이라 했지만 이 후일담들은 조국이 광복된 후에 적은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형 유치진이 조선에서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면서 거대한 경제적 부를 이루었기에 유치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친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형의 부탁으로 농장관리로 갔을 것이다.

유치환이 만주에서 생활한 시간은 1940년 봄에서 1945년 6월까지 5년 3개월 정도, 만주에서 창작한 작품은 50여 편이다. 유치환에게 안겨오는 만주는 인위적인 것 하나 없는 거칠고 황막하고 외롭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광야였고 절명지였으며 절도였다. 그러나 한편 시인은 이를 철학적 사유가 도달하는 허무의지로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興安嶺 가까운 北邊의
이 광막한 벌판 끝에 와서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 위에
오늘은 이레째 暗愁의 비 내리고
내 망난이에 본받아
화투장을 뒤치고
담배를 눌러 꺼도
마음은 속으로 끝없이 울리노니

5) 김윤식은 「우리 문학의 만주체험-염상섭의 경우」(하) (『소설문학』, 1986.7)에서 만주를 ‘국내에서나 일본에서 배우고 체험한 작가의 안목에서 보면 만주국은 하늘뿐이고 텅 빈 곳으로 파악’하였는데 필자는 서정주의 경우도 만주를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하늘뿐인 텅 빈’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6) 유치환의 만주이주시기에 관해서는 유치환의 『구름에 그린다』(경남도서출판, 2007)에서는 ‘1941년 첫봄 나의 첫 시집인 『청마시초』가 그동안의 畏友 素雲 兄의 주선으로 나오게 되자 우연한 기회를 얻어 나는 달갑게 내게 따른 권술들을 이끌고 북만주로 건너갔던 것이다’로 되어있고 그 외 문덕수의 『청마 유치환 평전』(시문학사, 2004)에서는 1940년 3월에 가권을 거느리고 북만주로 간 것으로, 박해수의 「유치환 시 연구」(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1996)에서도 1940년 봄으로, 김훈겸의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상상-일제말기 김조규, 유치환의 시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 제28집, 2005)에서는 1940년 4월로 되어있다. 통영의 청마 문학관 유치환 연보에 따르면 1940년 3월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를 사임하고 만주 빈강성 연수현으로 이주하여 농장 관리 및 정미소 경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통영 문학관의 연보에 따라 1940년 3월로 표기하도록 한다.

아아 이는 다시 나를 過失함이러노
 이미 온갖을 저버리고
 사람도 나도 접어주지 않으려는 이 자학의 길에
 내 열번 패망의 인생을 버려도 좋으련만
 아아 이 悔悟의 앓음을 어디에 號泣할 곳 없어
 말없이 자리를 일어나와 문을 열고 서면
 나의 탈주할 사념의 하늘도 보이지 않고
 정차장도 이백 리 밖
 암담한 진창한 갠히 철벽 같은 절망의 광야!

-유치환, 〈광야에 와서〉 전문, 『인문평론』, 1940.7

시적자아가 조선에서 “이미 온갖 저버리고/ 사람도 나도 접어주지 않으려는 자학의 길에”서 떠나온 곳은 바로 만주의 “홍안령 가까운 북변의/ 광막한 별판 끝”이었다. 홍안령은 흑룡강의 가장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바 만주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정거장도 2백리밖에 있는 매우 궁벽한 곳인 것을 봐서는 농장이 있는 연수현이나 혹은 가신촌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7일째 연속 내리는 ‘暗愁의 비’는 여기를 ‘암담한’ ‘진창’으로 만들어놓았다. ‘망나니를 본받아 화투장도 뒤희고 담배도 피우고 놀러끄고’ 하지만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암담함’과 ‘절망’을 느낀다. 자신의 ‘悔悟의 앓음’을 유일하게 호소하고 싶은 ‘사념의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철벽같은 절망의 광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절망’을 안겨주는 광야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처벌하고자 한 것, 그 의지와 광야의 빈틈없는 어울림, 이것이 바로 이 시가 뛰어난 작품이게 하는 한 요인이다.⁷⁾

비슷한 내용의 시 <絶命地>에서도 ‘고향도 사랑도 회의도 버리고’ 만주로 온 시인은 ‘굳이 立命하려는 길’에 들어선다. ‘굳이 立命하려는 길’이란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보겠다는 비원이 서린 각오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다가온 북만주의 세계는 ‘陰雨에 바다처럼 황막히 거칠은’ 광야, 바로 시인이 ‘여기에 소리 없이 죽기로’ 한 ‘絶命地’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만주는 시인의 이상과 포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망의 곳이었다. 그러나 ‘회한을 오열인양 냇을 쪼아’ 시험하려는 허무의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허무의지란 스스로 자신이 밝힌 것처럼 일체의 인간적 감정을 초극하고 냉혹하고 비정한 인간이 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시적 내지 철학적 사유가 도달한 인식으로서 단순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고 그 순수함 내지 순정을 강렬하게 만드는 동력원이다.⁸⁾

만주는 유치환에게 있어서 ‘봄이라고 와봐야 봄 같지도 않은 소박하고도 단조롭기도 한 허허별판’(<생명의 서>재판 서문)이었고 ‘허무 절망한 그 곳 광야에 위협을 당하며 알아

7)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공간」,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188쪽.

8) 김종길, 「청마 유치환론」, 『청마 유치환 시 전집』, 정음사, 1984, 350쪽.

야’(<생명의 서>초판 서문) 했던 공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시월은 ‘죽음의 계절의 시초’(<首>)였다. 까마귀는 성귀에 오구작작 모여서 근심하고 있다. 구름이 짙 뒤덮여 다시 해조차 볼 수도 없는 한 장 납빛 하늘은 쇠로 만든 울짙인 鐵柵인양 황막한 광야를 눌러 막아서 그야말로 갑갑하고 침침하며 황막하기만 하다. 십이월은 “北滿 눈도 안 오고/ 오직 만물의 茄刻하는 흑룡강 말라빠진 바람에 헐벗은”(<首>) 거칠은 계절이었다. 그야말로 “허구한 세월이/ 광야는 외로워 絶島”(<絶島>)이다.

● 이주민들의 절망적인 삶의 공간-김조규

김조규는 1938년경⁹⁾에 만주로 건너갔다. 그 경위는 시 <북행열차>에 고스란히 나타나있다. “안개 짙은 밤 / 나는 그늘진 나의 청춘을 안고 / 북행열차에 실려 /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노라 / 산 속을 기여 / 해안을 달음질쳐/ 북관천리.....//”, “오라는 글밭도 없고 /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 밤과 밤을 거듭한 / 追放의 막막한 나그네 길”이라고 적고 있다. 김조규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일경의 감시를 피해 본인 스스로 고향을 떠나 간도로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

만주에서 김조규는 조양천 농업실천학교 영어과 교사로 취임하면서 어문 수업도 하였다. 당시 ‘국어’인 일본어 수업에 한국고전문학을 강의하고 또 자신이 쓴 창작시를 직접 학생들에게 읊어주기도 하였다. 1942년 10월에 『재만조선시인집』을 편찬하여 출간하였고 1943년 가을에는 위만주국 신경에 있던 『만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기자로 일하였다. 1945년 3월경 조선 평남 향리로 돌아온 김조규는 고향에서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7년간 만주에 체류하면서 김조규는 60여 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김조규에게 안겨오는 만주는 식민지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현장이고 공간이었다. 이는 그의 시에서 ‘열차(기차)’, ‘대합실’, ‘停車場’, ‘역’ 등의 공간을 가리키는 어휘들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북행열차>, <삼등대합실>, <대두천역에서>, <한 교차역에서>, <연길역 가는 길> 등 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9) 김조규가 만주로 건너간 연대에 대해서는 1937년 설, 1938년 설, 1939년 설, 1940년 설이 있다. 조양천제일중학교 校史에는 김조규가 1937년 조양천 농업학교에 부임되어 온 것으로 되어있다. 권철의 「김조규 연보」(『김조규 시전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 조양천 농업학교의 졸업생인 시인 설인의 회억 「김조규 선생과 춘향전」, 김경훈의 「김조규의 해방 전 시세계」(『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6 김조규, 윤동주, 리옥』, 보고서, 2006), 장춘식의 「김조규의 재만시기 시문학 연구」(『조선-한국언어문학 연구』, 2007) 등에도 모두 1938년으로 보고 있다. 권영진의 「김조규의 시세계-해방이전의 작품을 중심으로」에서는 김조규가 1940-1944년 시기 만주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희는 「1930-1940년대 해외 기행시의 인식과 구조-임화와 김조규의 일본. 만주 기행시를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 한국문학연구회, 2007)에서 “내가 독서회 사건으로 고향으로 떠나 간도로 피신하여 연길현 조양천에서 영어, 역사 교원으로 있던 때가 1939년 6월부터 1944년 3월”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단층』은 1937년에 창간되어 1937년 9월 7일에 제2집, 1938년 2월 28일에 제3집, 총 3권으로 폐간되었다. 김조규가 1938년 김이석·김화청·최정익·유하림·양운한 등과 함께 『단층』의 동인으로 활동한 것을 감안한다면 김조규의 만주행은 1938년이 정확하다고 보아진다.

근대에 등장한 ‘열차(기차)’, ‘대합실’, ‘停車場’, ‘역’은 떠남과 돌아옴, 이별과 만남을 상징하는 공간들이다. 그러나 김조규의 시에서 이들은 떠남과 이별의 공간이며 이향을 상징한다. ‘눈물의 북쪽 만리 아하하 / 쫓기우는 족속이여’(<三等待合室>), ‘北行列車에 실려 /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노라’(<北行列車>), ‘제 고장 기름진 땅 누구에게 빼앗기고 / 이리도 멀고 먼 이역 땅 / 두메 막바지에 흘러왔담?//쫓기는 신세라...’(<大肚川驛에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행열차>에서는 車室이 “행복은 문 어구에도 없고/ 불행만 짝 차 숨이 막”히는 이주민들의 ‘한 쪽의 생활축도’였다고 하였다. 차안에서의 ‘빈 젖을 파고드는 애기의 울음을 멈출 길 없는 어머니’가 있고 ‘북행열차는 더 큰 불행과 슬픔을 싣고/어텐가 자꾸 떠나고 있다.’ 그리고 <삼등대합실>¹⁰⁾에는 ‘슬픈 석고상처럼 창에 기대여 실신한 듯 창밖을 내다보는 젊은이’가 있다. 이주민들의 피폐한 모습은 <대두천역에서>라는 시에서 더 한층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묘사되었다.

마을도 없는
산비탈에 서있는 외진 山間驛
하늘엔 눈발이 부연데
待合室은 지친 얼굴들로
가득차 있다

우묵 패운 불
두드러진 뼈
눈동자는 저마다 닥쳐올 운명에
초불처럼 떨고 있으니
貧窮의 한 배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나
행복이란 손에 한번 쥐어 못본 얼굴들이다

.....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올릴 생각도 없이
흠바닥만 뿌리지게 들여다보는 녀인
눈물 자욱 마르지 않은 걸 보니
오는 길에 애기를 굶어 죽인 게로구나

할머니는 천리길 걸어 아들 면회 갔다가

10) 일제는 객차의 내선 차별과 등급 분리를 제도화하여 급행열차의 경우 조선인과 일본인이 타는 차량과 기차의 칸까지 구분하였다. 만주로 가는 궁핍한 조선인들이 타는 기차는 3등 완행 열차였다. 3등 대합실은 3등 완행열차를 타는 조선인들이 대기해있는 대합실이었다.

‘비적’의 어머니라 구두발에 채여
감옥 문간에서 쫓겨났다지요?
먹다 버린 벤또를 주워 먹는
애야 너는 그렇게도 배가 곱으냐?
(중략)
고향은 강 건너 조선땅이지만
흠 한번 밟아보지 못했다는 사람들

—김조규, 〈大肚川驛에서〉 부분. 『만선일보』, 1941.4

‘大肚川’은 현재의 길림성 東豊현의 속칭이다. 위의 시는 행복이란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불행하기만 한 조선 이주민의 비극적 모습이 생생하게 서사적으로 그려져 있다. 시적 화자가 대두천역에서 본 유이민들의 모습은 오는 길에서 애기가 굶어죽어 눈물 자국이 마를 새 없는 여인, 비적으로 몰린 아들을 면회하러 천리 길 걸어왔으나 비적¹¹⁾ 어머니라 구두발에 채여 감옥 문간에 쫓겨난 할머니, 먹다 버린 벤또(도시락)를 주워 먹는 아이 등등의 이야기는 조선 이주민의 비극적 실상들이다.

② 거류형 : 이육사, 박팔양, 윤해영, 백석-개념적 상징 공간

• 사상 실천지와 항일 의식-이육사

陸史 李源祿(1904~1944)은 1925년 李正基와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이듬해 그와 함께 북경으로 들어갔다. 1926년 22세에 베이징에서 수학하다가 후학기는 광동성 광주 중산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이때 李活이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중산대학에서 반년만 다니다가 1927년 여름에 귀국하였다. 1931년 독립군 자금모집 관계로 만주로 갔으며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奉天으로 김두봉을 찾아가 그곳에서 머물렀다. 봉천에서 尹世胄를 사귀었는데 1932년 9월 친진에서 윤세주로부터 자신이 義烈團員이라는 고백과 함께 ‘朝鮮革命幹部學校’¹²⁾에 입교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리고 1932년 9월 중순경 남경으로 가서 李範奭과 접선

11) 일제는 만주국에서 활동하는 항일무장투쟁 단체들을 공식적으로는 강도 집단과 구분하지 않고 ‘匪賊’이라 통칭했는데 내부적으로는 ‘政治匪’, ‘思想匪’(민족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비적들)로 구분하였다. 1937년 만주의 ‘비적’들은 30 만 명(1931)에서 2 만 명으로 급속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무장 세력인 ‘共匪’였다. 이정식, 『만주혁명운동과 통일전선』, 사계절, 1989, 281-282쪽.

김조규의 시에서 등장하는 ‘비적’과 ‘통비분자’는 모두 항일무장 투쟁하는 조선인이나 혹은 거기에 협력하는 조선인을 가리킨다.

12) 이 학교의 명칭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이동영은 ‘朝鮮軍官學校’(1974)로, 강만길은 ‘朝鮮革命幹部學校’(1995)로, 김희곤은 ‘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2000)로, 경찰 「신문조서」(1934.6.17)에서는 ‘國民政府軍事委員會 幹部 訓練班 第6隊’로 칭했다. 정우택의 「이육사 시에서 북방의식의 의미-호 ‘육사’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어문연구』 제33권 통권12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202쪽 참조. 본인의 조사에

하여 그의 안내로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입교하여 6개월의 과정을 수료하고 이듬해 1933년 4월 20일 졸업했다. 그리고 상해를 거쳐 귀국하였다. 1943년(40세)에 북경에 갔다가 모친상으로 귀국하는 도중 일제에게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어 1944년 1월 16일 북경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하였다.¹³⁾

이육사는 1926-27년, 1931-33년, 1936년, 1943년에 광둥, 만주일대, 북경, 남경, 상해 등지에서 활동했다. 그가 정기적으로 중국에 거류한 시간은 광둥성 광주의 중산대학에서 수학한 반년, 남경 조선혁명 간부학교에서 6개월, 합하면 1년이다. 그 외 수차례 대륙 다녀온 시간을 합하면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육사의 많은 작품은 중국과 만주 등지를 전전하면서 썼던 만큼 육사의 구국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중국대륙과 무변장황한 고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대륙들은 北極, 北方, 北海岸, 北海, 북쪽 등 이름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북방의 情調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육사의 시에서 ‘만주’라는 용어가 한마디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강한 기호적 울림을 동반하는 ‘만주’를 부정하는 그의 민족 의식적 지향을 내다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陸史 이름 또한 육사가 조선혁명간부학교에 다닐 때 사용했던 이름으로서 이는 보안을 위해 중국인으로 위장을 하고 이름도 중국식으로 지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李陸史란 이름은 ‘陸’은 ‘大陸’을, ‘史’는 歷史라는 뜻으로 곧 大陸의 歷史를 뜻한다.¹⁴⁾ 이는 육사가 꿈꾸었던 革命的 熱情과 결의가 내포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육사의 작품에서 <꽃>과 <광야>는 그가 조선을 떠나 중국 대륙에 와서 쓴 시로 추정되고 있으며 <광야>는 육사가 살아생전에 햇볕을 보지 못한 작품이다. <광야>는 혁명가이고 시인인 육사가 “살아 생전 끝까지 갈무리 가진 심혼의 기록”¹⁵⁾이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랴

모든 山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의하면 국가보훈처(1990)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8권에서는 ‘朝鮮軍官學校’로, 이육사 문학관의 연보에는 ‘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로 중국 百度사이트에서는 ‘朝鮮革命幹部學校’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국민정부자료에는 ‘조선혁명간부 훈련반’ 혹은 ‘탕산(湯山)훈련반’이라 칭하였고 일본정보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조선간부혁명학교’ 혹은 ‘의열단간부학교’로 칭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朝鮮革命幹部學校’ 명칭을 따른다.

13)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8권, 국가보훈처, 1990, 220쪽. 김정민 엮음, 『열사의 노래』, 비단길, 2003, 361쪽. 이육사 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264.or.kr> 이육사 생애 연보 참조.

14) 김윤식, 「절명지의 꽃」, 김용직 편, 『이육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52쪽.

15) 김용직, 「항일저항시의 해석문제 - 이육사의 <광야>」, 『이육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147쪽.

참아 이곳을 犯하든 못하였으리라

끈임없는 光陰을
부지런한 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노아 부르게하리라.

-이육사, 〈曠野〉 전문, 『自由新聞』, 1945.12.17

이 시는 이육사의 대표작으로서 식민지 치하의 민족적 悲運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 의지와 꺼지지 않는 민족정신을 장엄하게 노래하였다. 시적화자는 천고의 뒤에라도 조국 광복의 날은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과연 그 해방의 날은 시인이 일제의 북경 감옥에서 순국한 바로 그 다음해에 찾아왔다. 유치환이 절망적인 광야에서 그 옛날의 기상을 되새기는 ‘흙빛병정’을 연상했다면 이육사는 이 광야에서 승리를 위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연상하면서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었다.

그의 시 <꽃>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하루도 쉬임없이 정진하겠다는 결의와 미래의 조국이 해방될 밝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동방도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방울 내리잖는 이때’,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과 같은 척박하고 차갑고 추운 일제치하의 현실의 극한상황에서 화자는 “한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 바람결 따라 타고르는 꽃城”을 위해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없’이 보내겠다고 하였다.

● 낙토만주와 일제 협력 - 윤해영, 박팔양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친일시를 쓴 대표적인 한국 근대 시인으로는 윤해영과 박팔양을 꼽을 수 있다. 박팔양은 만주에 거주하는 8년 기간 내내 친일기관인 『만선일보』사, 협화회 등에서 고위직 간부로 활약했고 윤해영의 경우 지방 협화회에서 일해 왔으며 그가 쓴 <낙토만주>는 만주국에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등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윤해영은 <만주 아리랑>, <오랑캐고개>, <해란강>, <아리랑 만주>, <사계>, <발해고지>,

<척토기>, <낙토 만주> 등 일본 제국의 만주 침략으로 세워진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찬양하는 다수의 친일 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낙토 만주>는 만주국에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한 노래이며 <아리랑 만주>는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한 『만선일보』의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다.

五色旗 너울너울 樂土滿洲 부른다
 百萬의 拓土들이 너도나도 모였네
 우리는 이나라의 福을받은 百姓들
 希望이 넘치누나 넓은땅에 살으리

松花江 千里 언덕 아지랑이 杏花村
 江南의 제비들도 봄을따라 왔는데
 우리는 이나라의 흙을맡은 일꾼들
 荒蕪地 언덕우에 힘찬광이 두르자

끝없는 地平線에 五穀金波 굽실렁
 노래가 들리누나 아리랑도 興겨워
 우리는 이나라에 터를담는 先驅者
 한千年 歲月後에 榮華萬世 빛나리

—윤해영, 〈樂土滿洲〉 전문,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1943

이는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친일서적인 『半島史話와 樂土滿洲』의 제일 마지막 쪽에 실린 가사이다. 이 가사를 보면 만주는 오색기 너울너울 춤추는 ‘낙토’의 땅, 환락의 땅, ‘희망이 넘치’는 ‘넓은 땅’이다. 이 땅에서 ‘백만의 척사’가 모인 채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고 ‘이 나라에 터를 담은 선구자’들이다. 만주국을 찬미하는 반민족적인 의식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박팔양은 1942년 자신이 편찬한 『만주시인집』에 두 편의 시 <계절의 환상>과 <사랑함>을 수록하였는데 모두 친일 성향을 띠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나의거리는
 나에게잇서 한개의그윽한 密林이외다
 沈默하며 걷는 나의무거운 行進속에서
 나는 五色의 꿈과 무지개를 봅니다.

白雪이 大同廣場우에 冥想을 발브며

世紀의 驚異속을 나는 移動합니다
康德會館은 正히 中世紀의 육중한城郭
海上[썰딩]은 陸地우의 巨艦이외다.

[삐스]는 궁둥이를 뒤흔드는 양도야지썰
牧者도업시 툄툄거리며 몰려오고가고
[넉게]는[스마--트]하게 洋裝한 아가씨
[오리지널]香水 내음새가 물컹 물려듭니다.

大陸의 太陽이 西便하늘우에 眞紅이 될 썰
나는째로 超滿員[삐스]속에 雜木처럼 佇立하야
이나라 男女同胞의 體溫과重量을 堪耐하기도 합니다
窓外에는 建物들이 龍宮처럼 어른거립니다

- 朴八陽, 〈季節의 幻想〉 부분, 『만주시인집』, 1942.9.29

시적화자는 아침저녁으로 다니며 출퇴근하는 거리가 하나의 ‘그윽한 밀림’과도 같다고 하였다. 침묵하며 걷는 행진과도 같은 걸음걸이 속에서 ‘오색의 꿈과 무지개’를 보고 있다. 그 오색의 꿈과 무지개는 무엇일까? 오색은 만주건국의 이념인 오족협화, 오색기로 연상해 볼 수 있다. 만주국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해본 것이다.

‘正히 中世紀의 육중한 城郭’인 康德會館, ‘陸地우의 巨艦’인 海上썰딩, ‘龍宮처럼 어른 거리는’ 建物, ‘궁둥이를 뒤흔드는 양도야지썰’처럼 ‘牧者도업시 툄툄거리며 몰려오고가’는 삐스, ‘오리지널 香水’를 치고 ‘넉게는 스마--트하게 洋裝한 아가씨’ 등 이러한 근대화한 도회의 모습은 화자의 눈에 ‘世紀의 驚異’로 비치고 있다. ‘大同廣場’, ‘康德會館’, ‘오색의 꿈과 무지개’, ‘世紀의 驚異’ 등 표현에서는 화자의 현세에 부응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그의 시 <사랑함>에서도 ‘나의 일본-조선과 만주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 줄표는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한다는 뜻인데 일본에는 조선과 만주가 속해있다는 것이다. 즉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이고 만주국도 일제가 세운 정권이니 조선과 만주는 일본에 속한 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본과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조선과 만주를 옹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 고토의 공간

만주가 고구려, 발해의 고토라는 의식은 유치환, 김달진, 윤해영 등 시인들의 시작품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토의식은 찬란하고 황홀했던 옛 터전에 대한 감회와 회고

에만 그치고 있다.

이곳 시월은 벌써 죽음의 계절의 시초리노
 까마귀는 성귀에 모여들 근심하고
 다시 天日도 볼 수 없는 한 장 납빛 하늘은
 황막한 광야를 철책인 양 눌러 막아
 아아 북방 이 거대한 鬱暗의 의지는
 娼婦인 양 허무를 안고 나누었나니
 내 스스로 여기에다 버리려는 고독한 사유도
 이렇게 적고 찾을 길 없음이여
 호을로 허물어진 城터에 서건대
 삭풍에 남은 高粱대만
 갈 데 없는 감정인 양 못 견디어 울고
 한때 騎馬의 흠빛 병정 있어
 인력이 아닌 듯
 묵묵히 서쪽 별 끝으로 향하여 달려가도다

-유치환, 〈北方 10月〉 전문, 『생명의 서』, 1947.

이 시에서 ‘성귀’, ‘허물어진 성터’는 옛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를 말한다. 광개토대왕 시기 국세는 절정에 달했고 영토 또한 최대로 넓었다. ‘묵묵히 서쪽별 끝으로 향하여 달려가도다’는 표현은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서쪽 별 끝으로 계속 확장해나갔음을 뜻한다. 그리고 ‘騎馬의 흠빛 병정’은 드넓은 광야인 만주벌에서 말 타고 달린 병정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상태여서 황토빛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시인이 서있는 북만주는 그야말로 갑갑하고 침침하며 황막하기만 한 죽음의 계절의 시초이다. 여기에서 시인이 하는 행위라곤 ‘호을로 허물어진 城터’에 서서 “삭풍에 남은 高粱대만 / 갈 데 없는 감정인 양 못 견디어 울”듯이 자신도 우는 것뿐이다.

김달진의 시 <龍井>에서도 자신이 용정에 온 것을 “강남 제비새끼처럼 / 새론 옛고향을 찾아왔거니”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새론 옛고향’이란 옛 고구려 땅을 말하고 있다. “황혼 길거리로 허렁허렁 헤매이는 흰옷자락의 그림자는 / 서른 내 가슴에 허렁허렁 떠오르는 조상네의 그림자”는 용정에서 어쩌다 발견하는 흰옷자락의 그림자로부터 조상네의 그림자를 떠올린 것이다. 이 고장은 결코 낯설지만은 않은 곳이고 정도 붙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슬픈 가슴을 달래고자 어디 가서 나 혼자라도 빼주 한잔 마시고 싶다 하였다.

尹海榮의 시 <渤海古址>에서도 시적화자는 ‘五月의 夕陽’이 비치는 ‘渤海 옛터’에 지팡이를 짚고 섰다. 대조영이 세운 찬란했던 발해국은 거짓말같이 저 멀리로 허구하게 사라지

고 화려한 ‘六宮’의 자리엔 주춧돌이 맹그러니 남아있고 왕궁터에는 풀만 무성하다. ‘應靈寺鐘’이 울러 퍼지고 만백성이 태평성세한 날들을 보낸 지난날의 榮華는 오늘날 懷古와 감회에만 잠기게 한다.

• 자연친화, 종족화합의 공간과 축제적 신시-백석

백석은 1940년 1월 조선일보사를 그만두고 만주로 옮겨간다. 그는 신경의 舊市街 東三馬路 시영주택 35번지 황 씨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만주 생활을 시작하였다. 백석은 만주국 군무원 경제부에 잠시 근무하다가 측량 보조원, 측량 서기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1945년 해방 후 고향 정주로 돌아온다. 백석이 바라본 만주는 자연친화, 종족화합의 공간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축제적 신시의 공간이었다.

아득한 넷날에 나는 떠났다
扶餘를 肅愼을 渤海를 女眞을 遼를 金을,
興安嶺을 陰山을 아무우르를 승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익갈나무의 슬퍼하든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이 불드든 말도 잊지않았다
오로촌의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팔어나와 울든것도 잊지않았다.

—백석, 〈北方에서—鄭玄雄에게〉 부분, 『문장』 2권6호, 1940.7

역사적 화자의 목소리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북방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는 백석의 북방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거침없는 시적 어조와 웅대한 서사적 화폭으로 이채를 띤다.

제1연에 보이는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등은 북만주에서 흥망을 거듭했던 나라들이다. ‘아득한 넷날’의 만주는 부여, 읍루와 옥저의 땅이던 데로부터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그 뒤에는 발해의 영토였던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느껴졌던 정서 깊은 곳이었다. 길짐승,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물고기,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북만주 옛터에서 자연과 합일 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과의 친화는 제2연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육지에서 자라는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고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장풍이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음은 물론 흥안령 북구 소흥안령에 사는 북통구스계의 한 종족인 ‘오로촌’(Orochon족)과 남방통구스계통의 부족 ‘솔론’등이 멧돌(멧돼지의 오자)을 잡아 장도를 축하하고 십리 길을 따라 나와 이별을 슬퍼하던 것을 잊지 않았다고 화자는 말한다. 자연과의 친화는 물론 이웃부족들과도 평화롭게 살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시적화자의 개인적 슬회만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을 노래하고 있다.

백석이 발견한 민족의 공동체는 정을 나누며 살고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영원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이다. 여러 종족들은 서로간의 투쟁과 대립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관용함으로써 그리고 자연적인 사랑의 생명력을 서로 나누어주고 가짐으로써 평화스런 세계, 더욱 풍요롭고 강력해진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에 의해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종속적으로 되어 지배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여러 소국들이 자치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조화시킨 연방제’¹⁶⁾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특유한 정치 철학과 사상-축제적 신시인데 바로 상호이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조화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적 중심지이다.

이토록 <북방에서>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합일하고 여러 종족이 어울려 화합하는 축제적 신시의 깊은 의미는 백석의 다른 시 <귀농>에서도 나타난다.

시적화자는 근대적 표준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測量도 文書도 실증이 나서‘ 집어치우고 정작 잃어버렸던 구체적 삶의 숨결을 ‘밭을 老王한테 얻‘어 귀농하면서 얻는다. 그의 한가하고 편안한 생활과 더불어 그 속의 자연과 사람들도 그 주변 여건 속에서 합일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 또한 흥겹고 벽차다. “날은 뽕뽕 좋기도 좋은데 / 눈도 녹으며 술렁거리고 버들도 잎트며 수선거리고 / 저한쪽 마을에는 마뚝에 닭개슴생도 들떠들고 / 또 아이어른 행길에 뜰악에 사람도 웅성웅성 흥성거리 / 나는 가슴이 이 무슨흥에 벽차”오른다.

시적화자는 보잘 것 없는 소작인의 처지일망정 수박과 감자를 심고 게다가 까막까치나 두더지, 돌벌기(감자밭에서 뿌리나 줄기를 자르는 해충) 그리고 도적까지도 포용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 땅주인인 노왕과의 관계도 매우 화애롭다. “눈녹이는 밭가운데 땅풀리는 밭가운데/ 촌부자 老王하고 같이 서서” “아, 老王, 나는 이렇게 생각하노라 / 나는 老王을 보고 웃어말한다” “老王은 팔장을 끼고 이랑을 걸어 / 나는 뒤짐을 지고 고랑을 걸어” “老王은 나귀를 타고 앞에 가고 / 나는 노새를 타고 뒤에 따르고” 지주와 소작인사이의 화해와 융합을 읽을 수 있다.

16) 신범순, 「축제적 신시와 처용신화의 전승」, 『한국근대문학의 정체성』, 2006 서울대 강의자료, 16쪽.

4) 방문형 노천명 : 타자시각으로서의 공간

방문형은 방문 목적으로 만주에 잠깐 여행하거나 다녀온 시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천명 등이 있다. 노천명은 1937년 조선중앙일보사를 사직하고 북간도의 용정, 연길 등지를 여행한 후 돌아와서 시와 단편소설들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문필생활을 하게 된다. 만주에 대해 그린 그의 작품으로는 <국경의 밤>, <옥수수> 등이 있다.

엇그제도 이 胡地에선 匪賊이 났단다
먼땃 개들이 불안스레 짖는 밤
허룩한 방안에 사모와르의 끓는 소리가
화룻가에 높고.....

잠은 머물고.....
재도 장난할수 없는 마음
온밤 사모와르의 물연기를 응시하며
독수리같은 어떤 인생을 풀어보다

-노천명, <국경의 밤>전문, 『산호림』, 1938.

이 시에서 시적화자의 관심은 ‘허룩한 방안의 사모와르가 끓는 소리’, ‘사모와르의 물 연기’의 이국적 풍물에 있다. 사모와르(Samovar)는 러시아식茶具이다. 시적화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胡地에서 匪賊이 난’ 사건에는 무관심이고 오직 이국적 취향에만 젖어있다. 이는 전형적인 타자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4. 결 론

이상 한국근대시인들의 만주 거주방식의 유형도 정의해보았고 그 유형에 따라 작품에서 나타나는 만주인식을 짚어 보았다.

한국근대시인들의 만주거주방식 유형은 출신지, 정착지, 생활지 등 개념에 따라 토착형, 정착형, 거류형, 방문형으로 분류하였다.

토착형은 만주에서 태어나 만주를 고향으로 삼아 시 창작 활동을 한 시인이다. 여기에는 윤동주가 포함된다. 윤동주의 고향은 북간도 명동마을로서 고향 명동은 어린 시절 동심과 추억이 있는 곳으로 아름답고 황홀하기만 하다. 학업을 위해 서울과 일본을 거듭 오가며 타향살이를 하는 윤동주에게 모성의 공간인 북간도 명동은 영원한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리움의 대상들은 어머니, 친구, 이웃, 동물, 풍물들로서 원초적이고 근원적이며

자연적인 것이다. 그 중에서 어머니는 항상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고향공간은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하는 모성의 공간이다.

정착형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만주로 이민을 간 뒤 거기에 뿌리를 박고 정착한 시인이다. 여기에는 심연수가 포함된다. 심연수에게 만주는 개척을 통한 정착공간이었다. 이는 이들이 어릴 적 만주로 건너와서 오랜 세월 만주에 정착함으로써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연적인 성격의 타향의 고향화이다.

거류형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거류 목적으로 만주로 가서 일정기간을 체류하면서 조국이 광복되면서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 시인이다. 여기에는 서정주, 유치환, 김조규, 이육사, 박팔양, 윤해영, 백석 등이 있다. 거류형 시인들이 만주나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윤해영(26년정도), 박팔양(8년), 김조규(7년), 유치환(5년 3개월), 백석(5년), 김달진(4년), 이육사(짧은 기간 여러 번 왔다갔다 함, 대체로 2년 정도), 서정주(5개월)이다.

서정주의 만주 인식은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하늘뿐인 텅 빈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유치환에게 안겨오는 만주는 거칠고 외롭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광야이고 절명지이고 절도였다. 그러나 시인은 철학적인 사유의 허무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조규에게 만주는 식민지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현장과 공간이었다.

이육사의 만주 인식은 그의 陸史라는 호와도 연결되며 만주에서 대륙으로까지 이어진다. 그의 시에서 등장하는 대륙들은 北極, 北方, 北海岸, 北海, 북쪽 등으로 나타나며 단 한마디의 만주라는 용어가 발현되지 않는다. 이는 시인의 일본 제국주의의 강한 기호적 울림을 동반하는 만주를 강하게 부정하는 시인의 민족 의식적 지향을 볼 수 있다. 만주, 대륙에서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 운동을 하면서 언젠가는 조선이 꼭 독립될 날을 믿었던 시인에게 만주는 일제가 세운 만주국도 아니고 오직 중국 대륙일 뿐이며 조국 광복을 꿈꾸며 기상을 드높이는 훈련 터전, 사상 실천지로서의 만주였다.

박팔양과 윤해영은 만주에 거주하는 8년과 26년 동안 줄곧 친일기관에 종사하여 왔고 그리고 친일 시들을 남겼다. 박팔양은 만주를 고향과 나라로 보았으며 나아가서 만주와 조선을 일본의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윤해영도 오족협화, 낙토 만주로서의 만주국을 극찬하고 있다.

유치환, 김달진, 윤해영이 바라본 만주가 고구려, 발해의 고토라는 의식은 찬란하고 황홀했던 옛 터전에 대한 감회와 회고에만 그치고 만다. 그러나 백석이 바라보는 만주는 자연과 합일하고 여러 종족이 어울려 화합하는 축제적 신시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방문형은 방문 목적으로 만주에 잠깐 여행하거나 다녀온 시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천명이 있는데 그는 이국적 풍물에만 도취되는 타자시각을 드러냈다.

종합적으로 일제강점기 한국근대시인들의 시작품에서 나타난 만주는 ‘그리움의 원형 공간’, ‘개척을 통한 정착공간’, ‘망명과 이민공간’, ‘개념적 상징공간’, ‘타자시각으로서의 공

간'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한국근대시문학에서 중층적으면서도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일제강점기 한국근대시인들이 바라본 만주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품뿐만 아니라 소설, 기행문, 수필 등을 포함한 문학 작품과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의 연구나 재만중국인시문학, 재만일본인 시문학에 나타난 만주인식 비교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영인본, 『滿鮮日報』(전 5권)(1939.12.1-1940.9.30), 아세아문화사, 1988.
- 金朝奎 編, 『在滿朝鮮詩人集』, 間島省 延吉街 (株)藝文堂, 1943.
- 朴八陽 編, 『滿洲詩人集』, 第一協和俱樂部文化部發行, 1942.
- 김동훈·권철 주편, 『김조규 시 전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
- 김학동 편, 『白石全集』, 새문사, 1990.
- 심원섭 편주, 『원본 이육사전집』, 집문당, 1986.
- 왕신영·심원섭·오오무라 마스오·윤인석 엮음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민음사, 1999.
- 최동식 편, 『청마 유치환전집1 시』 정음사, 1984.
- 황규수 편, 『심연수전집』, 학술정보, 2007.
- 고형진 해설, 『백석 시 바로 읽기』, 현대문학, 1996.
-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8권, 1990.
- 권 철, 『광복 전 중국 조선민족 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1999.
- _____, 『중국조선족문학(상)』, 연변대학출판사, 2000.
- 金虎雄, 『在滿 朝鮮人 文學 研究』, 國學資料院, 1998.
- 김경훈, 『중국조선족 시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열규, 허세욱, 오양호, 채훈,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 대륙연구소출판부, 1992.
- 김영수, 『몽상의 시인-윤해영 : 가곡 <선구자>의 작사자』, 우신, 2005.
- 김용직 편, 『이육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장선, 『僞滿洲國時期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연구』, 역락, 2004.
- 김재용 외 8명,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6.
- 김학동 외, 『서정주연구』, 새문사, 2005.
- 류연산,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보고서』, 아이필드, 2004.
- 문덕수, 『청마 유치환 평전』, 시문학사, 2004.
- 민족문학연구소,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 체험』, 역락, 2007.

- 소재영 편, 『間島流浪 40年』, 조선일보사, 1989.
- 송우혜, 『운동주 평전』, 열음사, 1988.
- 오문석, 『백년의 연금술』, 박이정 도서출판, 2007.
-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 _____, 『만주 이민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2007.
- _____,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 유치환, 『구름에 그린다』, 경남 도서출판, 2007.
-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학사, 1987.
- 이승원, 『백석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2006.
- 임범송, 권철 주필,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 장춘식,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2004.
- 조규익, 『해방 전 만주 지역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국학자료원, 1996.
- 조성일, 권철 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 권영진, 「김조규의 시 세계－해방이전의 작품을 중심으로」, 『승실어문』 제9집.
- 권철, 조성일, 「조선문학개관」, 『아리랑』, 제3기, 1980.
- 곽효환,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연구-김동환, 백석, 이용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경훈, 「김조규의 해방 전 시 세계」,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6 김조규, 운동주, 리옥』, 보고서, 2006.
- 김영익, 「白石 詩文學 研究」, 忠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8.
- 金楨宇, 「운동주의 소년시절」, 『나라사랑』 제23집, 1976.6
- 김종길, 「청마 유치환론」, 『청마 유치환전집1』, 정음사, 1984.
- 김종철, 「육사시의 의의와 한계」, 『한국현대시문학대계 8 이육사 운동주』, 지식산업사, 1982
- 김종희, 「일제강점기 한국문학의 만주 체험」, 『한국문학평론』, 1999.
- 김진희, 「1930-40년대 해외 기행시의 인식과 구조－임화와 김조규의 일본. 만주기행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07.
- 金楨宇, 「운동주의 소년시절」, 『나라사랑』, 1976, 여름호,
- 김해웅, 「심연수 시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훈겸,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양상-일제말기 김조규, 유치환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28집, 2005.
- 마광수, 「운동주 연구－그의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박주택, 「백석 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신범순, 「축제적 신사와 처용신화의 전승」, 『한국근대문학의 정체성』, 2006서울대 강의 자료.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여름호, 1976.

윤희탁,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 연구재단, 2005.

정우택, 「이육사 시에서 북방의식의 의미—호 육사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어문논문』 제33권 제 1호, 2005.

정호웅, 「한국 현대 소설과 만주 공간」, 『문학교육학』, 한국문학 교육학회, 2001.

차혜영, 『1920년대 해외 기행문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내면형성경로』, 『국어국문학』, 2004.9

한미경, 「유치환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岡田英樹, 『文學からみる 滿洲國の 位相』, 研文出版, 2000.

大村益夫, 布袋敏博, 編, 『旧滿洲文學關係資料集(1. 2)』, 綠蔭書房, 2001.

川村湊, 『文學から見る 滿洲—五族協和の 夢と 現實』, 吉川弘文館, 1998.

이육사 문학관 <http://www.264.or.kr>

김달진 문학관 <http://www.daljin.or.kr/>

청마 문학관 <http://gnty.net/ty/literature/01welcome/>

The Future of Harbin's Past

James Carter(Saint Joseph's University)

Manchuria has been for at least 400 years a contested land. In the 17th century, it was a zone of contact between Han Chinese and Manchus, who eventually moved south and conquered all of China, and between the Manchus' Qing dynasty and the expanding Russian empire. The first treaties between a Chinese and a European state were concluded in the region, establishing the Sino-Russian border. Two hundred years later, China, Russia, and Japan competed to claim this resource-rich, sparsely populated region. Russian influence and interest in the region reached a peak in the construction of the Chinese Eastern Railway, centered on the virtual colony of Harbin, founded in the 1890s. Although technically a joint administration of the Chinese and Russian states, Harbin existed in its first two decades—until the Bolshevik revolution of 1917—was ruled and developed by Russians, and the legacy of that era remains.

Much of Harbin's 20th-century history revolved around struggles over the city's identity, and also struggles for control of the city's colonial legac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mpetition over Harbin's identity continues to evolve in the early 21st century. After many decades of denying and dismissing Harbin's colonial past, local, regional, and national Chinese governments are now exploiting that past as an asset for the city's economic development. Building on trends that first emerged in the 1990s, Harbin's Chinese rulers are now turning to the city's non-Chinese past as a means of competing in a global 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

BACKGROUND : THE HISTORY OF HARBIN'S HISTORY

Modern Harbin was defined by its Russian builders: colonizers in the Manchurian wilderness who established a Russian city in China. Starting in the 1890s, Harbin grew quickly to become a modern metropolis: the "Paris of the East." By World War I, there were perhaps 100,000 people living in the Harbin, and it was the center of transportation and commerce in Northern Manchuria, sitting at the junction of two major railroad lines and a navigable river.¹⁾ Orthodox churches, synagogues, cobblestoned boulevards, and art

nouveau buildings all conveyed the impression that Harbin was a Russian provincial capital. In the city's central districts, white faces far outnumbered Asian ones, adding to the city's European appearance. The city was administered by the Chinese Eastern Railway's Board of Directors: a body that in principle divided power between Russian and Chinese officials, but which in practice oversaw Harbin as a virtual Russian colony.

After the 1917 revolution, Russian power in Harbin collapsed. The Chinese government did not recognize the Bolshevik state, and the Tsarist government was no longer able to maintain its obligations. Into this vacuum stepped Chinese administrators, who took control of the city and worked to promote its Chinese identity. Harbin remained cosmopolitan, with a diversity of ethnic, religious, linguistic, and cultural people and institutions, but Chinese administration, architecture, and population came to dominate—or at least contextualize—Harbin's Russian features. The Japanese invasion of 1932 again placed Harbin again under non-Chinese rule, and the city retained its identity as an amalgam of Chinese, Russian, Japanese, and traits until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²⁾

Tensions among different versions of Harbin's past were particularly evident in the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Official government histories were careful to assert a millennia-old *Chinese* past for the city, and bristled at suggestions that Harbin owed its existence in any fundamental way to Russian or European influences. Harbin's greatest historical importance in the modern era was asserted to be its role as the first Communist-ruled city in China, not its semi-colonial origins. Archeological finds were also marshaled to confirm the proper version of Harbin's past: evidence that the Jurchen Jin dynasty had one of its 12th-century capitals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modern Harbin were presented as proving that Harbin had a long Chinese history (notwithstanding that the site was many miles from Harbin's 20th century center,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Jurchen, ancestors of the Manchus, were not Chinese, but defeated the Chinese Song dynasty to occupy much of what is now northern China).³⁾ The denial of Harbin's European past peaked in 1998, when a planned conference to celebrate the centennial of Harbin's founding was rejected by authorities in Beijing unwilling to acknowledge that modern Harbin was founded in 1898 (and, thus, by Russians).⁴⁾

Beginning in the late 1990s, though local authorities were becoming more interested in embracing a complex past than presenting Harbin as an unequivocally Chinese city. One reason for this was the appeal of tourism and commerce as economic engines. Harbin's heavy industrial base had become obsolete and inefficient, and the city's unique past

1) For accounts of Harbin's early development see David Wolff, *To the Harbin St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esp. Ch. 1; and James Carter, *Creating a Chinese Harbi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esp. Ch. 1

2) Details on the transition to Chinese rule can be found in Carter, *Creating a Chinese Harbin* and Blaine Chiasson, *Administering the Colonize* (UBC, forthcoming)

3) Details on the use of historiography in support of Harbin's history can be found in Søren Clausen and Stig Thøgersen,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M.E. Sharpe, 1994)

4) Thomas Lahusen, "A Place Called Harbin: Reflections on a Centennial," *The China Quarterly* 154 (June 1998): 400-410.

appeared as an option to lure Russian and European tourists, traders, and consumers. The most dramatic example of the revival of “Russian Harbin” was the renovation and reopening (as a museum) of the onion-domed St. Sofia’s church, in 1998.⁵⁾ Although it did not resume its role as a religious edifice, a Russian orthodox cross was reinstalled atop the building’s dome, and the opening ceremony was described as a “Baptism” (洗禮, *xili*) The script that accompanied the opening made clear that the building would evoke memories of the city’s Russian past: “when you toll your bell you again open the floodgates of memory for many.”⁶⁾ In the decade since it reopened, St. Sofia’s has become the public face of the city. This building features prominently in tourist literature, and the silhouette of its onion dome adorns many of slogans. The plaza in front of the church is frequently filled with tourists and also locals, many of whom consider the church a desirable backdrop for wedding photos, and at night, the building is brightly lit.

The spectacle of St. Sofia’s exterior is not matched by its interior. The building has not been reopened as a church, but rather as a small museum of Harbin architecture. Although the topic could easily support extensive exhibits and displays, the museum at St. Sofia’s features mainly poor reproductions of old photographs. The exhibitions feel temporary and low-budget, in contrast to the impressive façade visible from the outside. Moreover, soon after the building was reopened, signs of water damage and temporary braces to shore up the structure’s architectural integrity were visible inside. In recent years, the deterioration has continued, and the building may be in significant structural jeopardy, though this has not been officially acknowledged.⁷⁾

Whatever its flaws, the reopening of St. Sofia’s signaled a revival of Harbin’s colonial past, and the colonial architectural legacy became celebrated throughout the city, centered on St. Sofia’s and the adjacent Zhongyang dajie (Central Street, which in Russian times had been called Kitaiskaya ulitsa: China Street). This cobblestoned pedestrian zone has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European architectural styles in the city, and leads to the Russian-designed waterfront along the Sungari River.⁸⁾

HARBIN’S PAST TODAY

Since this revival of Harbin’s colonial history approximately ten years ago, Harbin has continued rehabilitating and repackaging its non-Chinese past. Although this past is

5)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 Sofia restoration here. For more details on the reconstruction, see Carter, “Touring Harbin’s Pasts.”

6) “Xili - Sheng Suofeiya jiaotang [Baptism - St. Sofia’s Church] in *Quanguo zhongdian wenwu baohu danwei: Sheng Suofeiya jiaotang* [National Protected Cultural Site: St. Sofia Church] (n.p: n.d), 134. Quoted in Carter, “Touring Harbin’s Pasts,” 159.

7)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April 19, 2008.

8) I wrote about this turn of events in “Touring Harbin’s Pasts,” in Daniel Walkowitz and Lisa Knauer, eds., *Memory and the Impact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 Public Spac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4: 149-165.

sometimes treated as a single thread, several distinct strands can be discerned within it. The first of these is “Russian Harbin,” which treats historical Harbin as the largest Russian city outside the Soviet Union, and builds on that legacy to promote trade and tourist connections, mainly through the Russian Orthodox churches in the city. The second category, “Jewish Harbin,” portrays Harbin as a model of tolerance and a haven for Jewish society and culture outside the predations of 20th-century Europe. Harbin’s local administration is promoting this version of the city very aggressively, motivated mainly by a belief that this can make money for the city, both through tourism and direct investment. Third, a more generic “European Harbin,” promotes the city as embodying the style and sensibility of European architecture, city planning, fashion, and taste.

RUSSIAN HARBIN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Russian émigré communities sprang up outside the Soviet Union, a “Russia Abroad” that preserved pre-revolutionary Russian culture and enabled development of Russian culture outside Soviet control. While all of these communities became, to greater or lesser extents, artifacts of a lost empire, Harbin’s geographic isolation from Europe made it a special case. Without easy access to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 that connected (for instance) Berlin, Paris, and Prague, Harbin’s Russian community preserved pre-revolutionary culture with less change (and less development) than any other city.⁹⁾ The timing of Harbin’s founding and its proximity to the Bolshevik Revolution, as well as the geographic and cultural isolation of Harbin, led to a strong sense of nostalgia among Harbin Russians (*Kharbintsy*) as early as the 1920s, and that sense of nostalgia has remained a major feature of Russians’ recollections of Harbin since that time, especially as the *Kharbintsy* have emigrated from Harbin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¹⁰⁾

This sense of nostalgia has been central to the rehabilitation of Harbin’s non-Chinese past. Seeking tourism and investment, Chinese authorities in the city attempted, starting with the renovation of St. Sofia’s in the late 1990s, to renovate or rebuild elements of Harbin’s Russian past, and from the start it has centered around religious structures, like St. Sofia’s. Russian orthodox churches were the most numerous religious structures in Harbin, and those that survived the Cultural Revolution have been key elements in the repackaging of Harbin’s Russian past. Sources differ, but it seems that there were between fifteen and twenty such churches in the city. The website “Orthodoxy in China” (www.orthodox.cn), which maintains the most complete records of churches in the city, lists sixteen churches in the Harbin Diocese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twelve of which were located within the city of Harbin (the territory of the diocese extended across what

9) Marc Raeff, *Russia Abroa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2-23

10) The most prolific student of the Russian émigré community in Harbin, is Olga Bakich, herself born in Harbin.

See for instance “Émigré Identity: The Case of Harbi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 1, Winter 2000): 51-73

are today the provinces of Heilongjiang, Jilin, Liaoning, and Inner Mongolia. Of these twelve, four are known to have been destroyed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and another three, although I have been unable to confirm their fates, appear to have been destroyed either in the Cultural Revolution or through neglect in the decades since. Five structures remain: the St. Sofia Church (now the Museum of Harbin Architecture); Church of the Protection of the Virgin Mary (today an active Russian Orthodox Church); the St. Aleksejev Church (today active as a Roman Catholic Church); the Church of the Dormition of the Virgin Mary (today an arcade and restaurant inside the Harbin Culture Park), and St. Ibrvel Church (the current condition of which is in question, and about which more will be said later).

The most famous Orthodox church in Harbin was its most famous victim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athedral of St. Nicholas. Destroyed by Red Guard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St. Nicholas's was the most recognizable symbol of the city and was the most common motif on postcards and photographs from the city. The razing of the church on August 23, 1966 left an empty circle, surrounded by some of Harbin's most important building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Hotel, the Provincial Museum, and Choorin's Department Store—all examples of European architectural styles. In 1997, an abstract glass and concrete sculpture was erected to fill the gap, but in 2005, it was suggested to rebuild the elaborate wooden church. Although public discussion has been minimal, and no official plans have been announced, what has been reported evokes the same debates over the city's identity that have dominated Harbin architecture since the 1920s. One Chinese resident of the city said that he believed a rebuilt St. Nicholas could "represent the city's history and style," adding that he had fond memories of visiting the church as a child.¹¹⁾

Local historians are less convinced. The same article included dissenting views, including that of Li Xingsheng, a "researcher from the city's Culture and History Research Centre." Li opposed the rebuilding of the church because it represented colonialism: "The St. Nicholas Church is a symbol of the Tsarist colonialism and rebuilding it means recognizing it." Harbin's mayor at the time endorsed a study of the project, but further plans have yet to be announced, and there is no physical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planned renovation are underway, or even that they are formally in place.¹²⁾ The debate over the St. Nicholas cathedral shows clearly that the arguments over Harbin's identity, and over who owns its history, are still active.

These tensions can also be seen in the plans—or potential plans—for St. Ibrvel Church. St. Ibrvel (sometimes referred to as Holy Iveron Icon Church) was built in 1908 and dedicated to the Russian victims of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5. Although not destroyed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it fell into neglect and came to house the workshop of a thermal products factory. In 2004, plans surfaced to restore the church so that it could be reopened as "a community center."¹³⁾ These plans were connected to the

11) Li Fangchao, "Harbin talks of rebuilding church," *China Daily* (Sept. 5, 2005), 3

12) *Ibid.*

opening of a new entrance to the Harbin railway station, and the church building was to be the centerpiece of a 137,000 m² plaza that would be a transportation hub for the city.¹⁴⁾

This usage would be consistent architectural politics throughout Harbin's history, in which the passenger arriving at Harbin by rail was immediately surrounded by visual markers of the city's identity: the railway station itself was originally a grand Art Nouveau design, and passengers exited the station (passing a statue of St. Nicholas the Miracle Worker) to see the Cathedral of St. Nicholas dominating the landscape from atop the small hill before them. When Chinese officials took over Harbin's city planning in the 1920s, one of their first efforts was the construction of a new Middle School, which they built on the plaza opposite the station's entrance and was the first publicly financed building in Harbin to feature Chinese architectural styles. The renovated St. Iver Church would represent a reversal: passengers exiting the station and transferring to one of the 17 bus and tram lines that currently converge on the square would do so beneath St. Iver's five onion domes, a clear statement of Harbin's unique Russian past.

But while this usage resonates with certain versions of Harbin's past, it's not clear how serious the plans are. Versions of the plan can be found in Harbin's city planning office, and on that organ's website, attempts to confirm that these plans are underway have not succeeded. Photographs taken in May, 2007, show the building to be structurally sound and well-maintained, but not under renovation.¹⁵⁾ Neither do these pictures suggest that the plaza or transportation hub discussed in the article are under construction. The difference of opinion, and lack of action or substantive information, suggests that the debate over how to restore, remember, or promote Harbin's past is still active.

The other surviving buildings that were constructed as Russian Orthodox churches figure less prominently in the city's revival of "Russian Harbin," perhaps because they are less centrally located and thus both less symbolically—or commercially—significant. Two remain active as Christian places of worship. St. Alekseyev Church is now Roman Catholic, and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Harbin Catholic Cathedral. Built in 1930 to replace an earlier wooden structure, it is the headquarters of the city's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 It, too, is under discussion as an object of urban renewal plans by the city. The city's plans call for it to remain as a religious edifice, but want to use the church's appearance as an asset for redeveloping the surrounding area. Specifically, the plans call for demolishing "some buildings that influence the church, forming a public open space for city life" as well as "enhance the visual importance of the church and make the church a landmark of the commercial area."¹⁶⁾ As with the plans for St. Iver, details about these plans, or

13) Jin, Guang-jun and Zhao, Cong-xi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China: Some Significant Good Practices." Chapter in Gerard, et al., eds. *The Human Sustainable City: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rom the Habitat Agenda* (London: Ashgate, 2004): 488

14) Li Fangchao, "Harbin to Rebuild Orthodox Church," *China Daily* (December 10, 2004), 3.

15) http://www.orthodox.cn/contemporary/harbin/iveron_en.htm

16) Jin and Zhao, 489.

evidence of their implementation, are lacking.

Harbin's only active Russian Orthodox Church is the Church of the Protection of the Virgin Mary, sometimes called the Ukrainiya Church. Built in 1922, this church reopened in 1984 after being closed in the Cultural Revolution. No further renovation or renewal plans surround this building; its role in preserving Harbin's Russian past is more personal and less public. The congregation has been without a priest since Father Grigory Zhu passed away in 2000, but services have been conducted by laity every Sunday, and as many as sixty Orthodox faithful (all of them apparently ethnically Chinese) attend.

The other building that survives is the Church of the Dormition of the Virgin Mary (the Orthodox term for what Catholic dogma teaches as the Assumption). This building has been used for many years as a game arcade, snack bar, and restaurant in the Harbin Culture Park.

The other most prominent sign of "Russian Harbin" is the complex of churches, cemeteries, and monuments surrounding the relocated graveyards in the Harbin suburb of Huangshan. Harbin's Orthodox cemetery had originally been located on the current site of the Culture Park, surrounding the church that now serves as a restaurant. The cemetery was relocated to Huangshan in 1958. With few Russians remaining in the city, and the cemetery located far from the city center, few visitors came to Huangshan, and the facilities at the site deteriorated until 2006, when a renewal of ties between the Chinese and Russian governments led to a rapid renovation of the cemetery, including a new fence and the repair and cleaning of many of the tombs and headstones. A year later, in the fall of 2007, a "new" cemetery was constructed to honor the Soviet war dead who had helped defeat the Japanese. The cemetery was completed within two weeks and immediately put to use as a political symbol: the opening ceremony was presided over by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and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who used the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histor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illustrated by the sacrifice of the soldiers whose names adorned the newly carved stones.¹⁷⁾

Foreign Minister Lavrov's visit to the Huangshan cemetery suggests the renewed importance of Sino-Russian ties (several months later, Russian President Andrei Medvedev made China his first official visit abroad after assuming the Presidency). The two countries' interests appear closely aligned: Russia is the world's largest energy producer, and China is poised to pass the United States as the greatest consumer. Their 2,700-mile long land border is the longest on earth.¹⁸⁾ Both countries are seeking power in a "multipolar" world, i.e., a world that is not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The creation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in 2001,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17) The accou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Huangshan memorial cemetery is provided by Prof.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May 21, 2008). The meeting between Yang and Lavrov was reported in *Asia Time* (Oct. 31, 2007, available online at <http://www.atimes.com/atimes/China/IJ31Ad01.htm>)

18) Portions of the Sino-Russian border have been disputed for some time, most violently during a brief shooting war in 1969. The section of the border that was the focus of this fighting was finally agreed to in an agreement signed on July 21, 2008.

comprising China, Russia, and four former Soviet republics in Central Asia, is one example of this attempt. The predecessor to the SCO, the Shanghai Five, was founded in 1996, the same year that plans for the renovation of St. Sofia's cathedral were announced. Though perhaps only coinciden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events shows the power of the Sino-Russian relationship, and also the importance, both actual and potential, of Harbin—and Harbin's history—as a symbol of that relationship.

JEWISH HARBIN

As with “Russian Harbin,” the rehabilitation of Harbin's Jewish legacy started in the late 1990s. Professor Dan Ben-Canaan, an Israeli scholar who works in the School for Western Studies at Heilongjiang University in Harbin, has documented the provincial initiative to encourage Jewish investment in Harbin, beginning in 1999. At that time, Zhang Tiejiang, a Research Fellow in the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wrote an essay titled “Suggestions for the Study of Harbin Jews to Quicken Heilongjiang Economic Development,” in which he advocated researching and promoting Jewish historical sites in the city in order to encourage Jewish tourism and investment. The essay was republished in the national media, and led to a directive from the provincial party secretary to intensify research and promotion of Harbin's Jewish past. A Center for Jewish Studies was established at the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s—the goal of which was, according to Provincial Party Secretary Song Fatang, to “reestablish Jewish presence in Harbin, and bring Jewish money to the city”¹⁹⁾ Although all tourist development has a commercial component, the attempt to promote and develop tourism surrounding Harbin's Jewish past is remarkable for its clear and aggressive pursuit of profit, and also for its public endorsement of stereotypes of Jewish financial and business acumen.

According to tourism development plans published in August 2004 by the Harbin Social Science Academy's local history and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Harbin Jewish cultural resources are perfect, their historical value,...scale, preservation, and market potential...unsurpassed.” This same document called on city authorities to differentiate the city's Jewish past from its Russian one, to enable more focused development and better facilitate tourism.²⁰⁾

As part of this initiative, several conferences on Harbin's Jewish history were organized in order to bring together scholars, as well as business and political leaders. The largest of these conferences, titled “International Forum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World Jewry,” took place in June, 2007, with 83 participants. Of these, 17 were academics (one Israeli, one American, and 15 from the Heilongjia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remaining 66 were politicians, businesspeople, lobbyists, and their guests. In his introductory remarks, Harbin Mayor made clear the meeting's goal:

19)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15 May 2008.

20) Wang Jing, Harbin Jews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unpublished paper (n.p., 2004), 5

“The Jewish nation has won the reputation of ‘world’s No. 1 merchant’ with their unique business skills and large number of successful entrepreneurs over the world.... [It is said that] ‘the world’s money is in the pockets of Americans, and the American’s money is in the pockets of the Jews’. This is the highest acclaim and praise to the Jewish wisdom... We will be more supportive, more open-minded and more pragmatic, and work together with you, for a brighter tomorrow....”²¹⁾

The speech included other familiar stereotypes, and repeated the frequently encountered claim that American captains of industry, including J.P. Morgan and John T. Rockefeller, were Jewish, as means of supporting the claim that appealing to Jewish investors was the key to Harbin’s financial future.²²⁾

Such plain-spoken ethnic stereotyping is rare in the West, particularly at a conference with academic pretensions, but it is consistent with other examples of how Harbin is marketing its Jewish past. The belief in Jewish financial genius and that Jewish investment would be profitable in Harbin is made clear in the most cynical of terms by the film “Relics of the Jews in Harbin,” produced by the Harbin municipal government’s office of foreign affairs. An astonishing mixture of cynicism, ignorance, and anti-Semitic stereotypes, the film begins by asserting that “The Jews have wandered the world for centuries,” and that these wanderings led them to Harbin in the late 19th century. After a brief history of the Jewish community in the city, the film recites a list of surviving buildings that are associated with former Jewish residents of Harbin. In one typical example, the script introduces the former site of a famous Russian restaurant: “Its owner was E.A. Katz: a Jew.” A few moments later, the titles on the screen declare “Hotel “Modern” was established by Jewish people.” (Unbelievably, as the camera pans the corridors and architectural features of this early 20th century hotel building, the accompanying score begins a big-band rendition of “The Christmas Song.”) The scene closes by quoting Montesquieu that “Wherever there are the Jews, there is wealth.”²³⁾

The film ends with a facile portrayal of Harbin’s history as a paradise for Jews fleeing persecution in Europe: “When the Jews faced adversity, the kindhearted Chinese offered them their selfless hand. Similarly, the Jews returned their gratitude with equal sincerity.... Harbin is... a place of happiness for the Jews.” The closing offers an invitation: “Harbin people today still welcome you to renew the prosperity of the Jewish community in the city.”²⁴⁾

Accompanying the clichéd and demeaning rhetoric, the film depicts many of the physical renovations and improvements that have been made. The city government spent RMB 33

21) Speech by Zhang Xiaolian, quoted in Ben-Canaan, “The Business of Stereotyping Business,” *Mirekh, Jewish Studies in the Far East* (November 2008)7.

22) Ibid.

23) Harbin City Bureau of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犹太人在哈尔滨的遗. *Youtairen zai Harbin de yij. The relics of Jews in Harbi*. (DVD), 2008

24) Ibid.

million in 2004 to renovate prominent Jewish historical sites in the city, primarily the synagogues, schools, and hospitals, as well as the cemetery. The Old Synagogue and the former Jewish middle school are described by the narration a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their unique architecture makes them “among the best for futur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attraction.”²⁵⁾ Currently, the Middle School functions, as it has since 1956, as a Korean Middle School, while plans for the Old Synagogue remain unclear. It currently houses a café and internet bar. Also renovated during this time was the New Synagogue (originally built in 1921), which has been made into a museum of Jewish culture and history. The New Synagogue/museum and the other architectural sit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Jewish “tourist route” that is marketed to travel agents in China and abroad, helping to make Harbin a standard stop of tours of “Jewish China,” which often also include Shanghai, Kaifeng, and Tianjin.

The cemetery at Huangshan—the largest Jewish cemetery in East Asia—is along with the New Synagogue/museum, the centerpiece of “Jewish Harbin.” Founded in 1903, the cemetery was moved in 1958 (along with the Orthodox cemetery) from Nangang district, one of the central parts of the city, to the suburb of Huangshan.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among different descriptions of the cemetery, but it seems that there are more than 850 sets of remains, and more than 600 legible tombstones, of which more than 500 have been catalogued in an online database. Like the Orthodox cemetery, the Jewish cemetery was largely neglected until visits from important foreign dignitaries early in the 21st century. In the case of the Orthodox cemetery, these official visits were tied to larger strategic and political interests. Since Sino-Israeli ties hold little strategic ties, Harbin and Chinese authorities have viewed the Israeli connection to Harbin’s Jewish past primarily as a money-making opportunity. In 2004, Ehud Olmert, then Israel’s Designated Acting Prime Minister, came to Harbin to visit the grave of his grandfather, Joseph. Hoping to hitch its wagon to Olmert’s star, the Harbin government invested as much as four million U.S. dollars in the reno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cemetery. However, as Olmert’s career declined in allegations of misconduct, the financial wisdom of this strategy became suspect. In the spring of 2008, the city government stated that it planned to cease further funding of the cemetery, and called on members of the Jewish Studies Center to seek financial support from Israel.²⁶⁾

Accompanying these physical developments have been numerous academic books and articles focusing on Harbin’s Jewish history. The Chair of Heilongjiang University’s History Department identified the history of Jews in Harbin as one of the main focuses of research among Chinese historians in Harbin. Chief among these works has been Zhang Tiejiang’s *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 shequ kaocha yanjiu* (Revealing the Enigma of Jewish History in Harbin: A Survey of the Harbin Jewish Community), published in 2004.²⁷⁾ Zhang’s book includes articles compiled from the period 1999-2003,

25) The relics of Jews in Harbi

26)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May 21, 2008.

as well as primary sources on the history of Harbin's Jewish community.

Books like Zhang Tiejiang's are welcome insights into the past of the community, and are part of a global increase in research on Jewish Harbin. A recent review of literature indicates that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Germany, and Israel are currently publishing work on Jewish Harbin. (In April, 2007,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t the University of Heidelberg focused largely on questions about Jewish Harbin, and a follow-up conference is being planned for the summer of 2009 in Harbin.) Scholarship on the Jewish community in Harbin is limited, though, by the inaccessibility of sources. Materials that are held in the Harbin Municipal and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are not available to the public. Foreign scholars are generally denied access to these repositories, especially those materials related to foreigners, including the Jewish Archive. Chinese scholars, too, find their access very restricted and carefully monitored. Published primary sources like those found in Zhang's collection provide rare glimpses into these collections, but their use is largely anecdotal without systematic access to the holdings. By restricting access to these holdings, the Harbin authorities reinforce the sense of nostalgia about that community, because until the Harbin archives are opened, ironically, the study of Harbin's Jewish past reinforces a nostalgic view of the community since most materials for study (with the exception of collections like Zhang's book) are found in émigré collections located mainly in North America, Australia, and Europe. As long as this encourages tourism, however, it is unlikely the authorities would prefer scholarship to nostalgia.

Harbin's revival of its Jewish past—both in terms of scholarly production and architectural renovations—appear superficial. The architectural renovations produces tourist attractions, but appears focused very narrowly on profit, removing government funding when foreign investment appears in jeopardy (as in the denial of funding after the Olmert affair). Likewise, the scholarship produces attractive and useful books, but fails to provide access to the sources that would permit a real understanding of Harbin's Jewish history.

EUROPEAN HARBIN

I use this term to apply more generically to sites of European cultural or architectural significance in Harbin. Typically, these sites are secular, as most of the religious sites are associated either with specifically "Russian" or "Jewish" histories of the city. Like the other two elements, "European" sites are being renovated and promoted in order to advance political and economic agendas. Without a specific constituency in mind, these projects focus on promoting tourism and investment more generally. The centerpiece of this movement is the pedestrian zone around Zhongyang dajie (Central St.), connecting St. Sofia's church and the Sungari River waterfront. This mile-long avenue has been the center

27) Zhang Tiejiang江. 揭开犹太史—犹太人社区考察研究 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shequ kaocha yanjiu(Revealing the Enigma of Jewish History in Harbin: A Survey of the Harbin Jewish Community). Harbin: Heilongjiang Renmin Chubanshe, 2005.

of Harbin's commercial district since the founding of the Russian city, and it is the densest concentration of European architecture in Harbin. Conversion of the street into a pedestrian zone began in 1997, and today it 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nd pleasant, city centers in China, featuring European architectural features and European themed businesses, such as the Bellagio Café, the Café Cézanne, and several Russian restaurants. Similar development can be found in other Chinese cities with colonial and semi-colonial histories, such as Shanghai, Tianjin, and Qingdao. Although not unique to Harbin, the non-Chinese style and design of the buildings, streets, and promenades feature prominently in tourist advertising, and present the city's business district as strikingly European in appearance.

Accompanying the redevelopment of Zhongyang dajie came scholarly justification of its importance. A volume published in 2000 declared Zhongyang dajie the “most splendid street on earth,” giving a detailed history of the street, its many occupants, and its importance for Harbin.²⁸⁾ The book simultaneously celebrates the prosperity and creativity of the street's colonial past, with headings such as “the businesses of foreign capitalists,” “Moscow of the East,” and features on the (French-built) Hôtel Moderne or the origins of Harbin's famous “Black Bread” (baked by a Russian bakery), while at the same time contextualizing this period as one of national humiliation by documenting the “suffering of the Chinese people” on Zhongyang dajie under foreign domination. This juxtaposition illustrates the challenge confronting Harbin's authorities as they try to market the city's non-Chinese past: how to capitalize upon foreign nostalgia while maintaining the central narrative that foreign domination—if not outright colonialism—was the primary obstacle to China's development since the mid-19th century.

Another example of this is the 2001 photo album, *The Oriental Paris* (titled in both English and Chinese). This book is a photographic record of Harbin architecture, and includes important Chinese-style buildings, but the emphasis is clear: of 151 pages, the chapter on “Chinese classic architecture” includes only six pages, and three examples (the Buddhist temple, Confucian temple, and the #3 Middle School). Unlike the book on Central Street, which is in Chinese only, *The Oriental Paris* is published in both Chinese and English, on glossy paper with color photographs. While *Tianjie yicai* targets a Chinese audience, and promotes a vision of “European Harbin” in which foreign success came at the cost of Chinese suffering, *The Oriental Paris* is aimed, at least in part, at an English-speaking audience, and shows a city that is celebrating its grand colonial inheritance.

CONCLUSIONS

Harbin's non-Chinese past is a valuable asset for a city with few economic advantages. Once the industrial strength of China, Manchuria's economy has declined dramatically since

28) Yang Rongqi 杨荣 and Xie Zhongtian 谢中. 天街异彩: 哈尔滨中央大街 Tianjie yicai: Haerbin Zhongyang dajie (The world's most splendid street: Harbin's Central Street). (Beijing: Jiefangjun wenyi chubansh, 2000).

1980, the victim of several trends. The movement away from heavy industry and toward light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located mainly in the coastal provinces); the dismantling of the state-owned sector of the economy, which has removed guaranteed employment; and the erosion of the state's social safety net have all combined to leave Harbin with high unemployment and little economic growth. By the late 1990s—exactly when the shift toward tourism began, symbolized by the renovation of St. Sofia's—60% of the urban population in Heilongjiang province was either unemployed or not being paid.²⁹⁾

With few other resources, tourism became an attractive commodity. This trend seemed evident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first tentative signs of promoting Harbin's colonial past began to appear. Recent events have confirmed this trend, and shown it to be accelerating. Russian Orthodox churches have been renovated as museums and cultural attractions, and other renovations have been suggested. Interestingly, these new plans are more easily found in the English-language press than in Chinese sources, which suggests that the prospect of such renovations is targeted at foreign sources more than domestic ones. Harbin's Jewish legacy has been most crassly repackaged,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brand-new "cemeteries" to coincide with visiting Israeli officials, and the subsequent abandonment of state funding for these facilities. Nonetheless, Harbin's new museum of Jewish culture, its renovated synagogue, and its Jewish cemetery remain staples of tours marketed to Israeli, American, and European Jews.

Harbin presents its colonial past in mixed terms. While China's government depends on strong nationalism to maintain its legitimacy in the absence of clear socialist principles, the architectural legacy of imperialism in Harbin is appealing, despite the apparent—at least tacit—endorsement of colonialism that it represents. The common denominator is money. As the central government moves increasingly toward a market economy and undoes the social programs typically associated with socialism, it strives to hold political reform at arm's length. In this familiar bargain of exchanging the right to get rich for the right to rule, China's middle class has ridden a wave of consumer goods since the early 1990s. In economically depressed Harbin, the state's ability to mollify critics through economic gain has been limited. (Harbin, like many cities, was the site of large protests in 1989, concurrent with the more widely known Tiananmen Square protests in Beijing.) Because of this, the city's colonial past has been permitted to reappear, with an explicit goal of financial gain. Russian engineers in the 1890s seeking to exploit the mineral and commercial potential of Manchuria built a Russian provincial city on Chinese territory. A century later, it is that city itself that Chinese officials are using as a commodity, hoping to sell Harbin's non-Chinese legacy for profit.

29) Patricia Ebrey, et al., eds. *East Asia: 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n ed. (Boston: Houghton Mifflin, 2009), 478

BIBLIOGRAPHY

- Bakich, Olga. "Émigré Identity: The Case of Harbi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1 (Winter 2000): 51-73.
- Ben-Canaan, Dan. "The Business of Stereotyping Business," *Mizrek, Jewish Studies in the Far East I* (November 2008): .
- _____. "The Jews of Harbin: Nostalgia versus Historical Reality," *Mizrek: Jewish Studies in the Far East I* (November 2008): 52-71.
- Carter, James. *Creating a Chinese Harbin: Nationalism in an International City, 1916-1932*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A Tale of Two Temples: Nation, Region, and Religious Architecture in Harbin, 1928-1998,"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 1 (Winter 2000): 97-115.
- _____. "Touring Harbin's Pasts." Chapter in Daniel Walkowitz and Lisa Knauer, eds., *Memory and the Impact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 Public Spac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4: 149-165.
- Chiasson, Blaine. *Administering the Colonizer: The Chinese Administrative Takeover of the Chinese Eastern Railway Concession, 1918-29* Vancouver: UBC Press, forthcoming.
- Clausen, Søren and Thøgersen, Stig.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Harbin*. Armonk, NY: M.E. Sharpe, 1995
- Duan Guangda 段光达 and Ji Fenghui 纪凤辉. 历史回眸：东方珍珠：哈尔滨 *Lishi huisuo: Dongfang zhenzhu: Haerbin* (A glance back in history: Oriental pearl: Harbin). Harbin: Harbin renmin chubanshe, 1998.
- Jin, Guang-jun and Zhao, Cong-xi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China: Some Significant Good Practices." Chapter in Gerard, et al., eds. *The Human Sustainable City: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rom the Habitat Agenda* (London: Ashgate, 2004): 479-490.
- Johnson, Ian. "Saving China's Past,"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15, 2008:
- Lahusen, Thomas. "A Place Called Harbin: Reflections on a Centennial," *The China Quarterly* 154 (June 1998): 400-410.
- Li Fangchao. "Harbin talks of rebuilding church," *China Daily* (September 5, 2005), p. 3.
- _____. "Harbin to rebuild Orthodox church," *China Daily* (December 10, 2004).
- Song Hongyan 宋紅岩. 東方小巴黎 *Dongfang xiao Bali (The Oriental Paris)*. Harbin: Heilongjiang kexue yishu chubanshe, 2001.
- Harbin City Bureau of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犹太人在哈尔滨的遗迹. *Youtairen zai Harbin de yiji. (The relics of Jews in Harbin)*. (DVD), 2008.
- Raeff, Marc. *Russia Abroad: A Cultural History of the Russian Emigration, 1919-19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Wang Jing, "Harbin Jewish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unpublished paper. n.p., 2004.
- Wolff, David. *To the Harbin Station: The Liberal Alternative in Russian Manchuria, 1898-191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Yang Rongqiu 杨荣秋 and Xie Zhongtian 谢中天. 天街异彩：哈尔滨中央大街 *Tianjie yicai: Haerbin Zhongyang dajie* (The world's most extraordinary street: Harbin's Central Street). Beijing: Jiefangjun wenyi chubanshe, 2000.

Zhang Tiejiang 张铁江. 揭开哈尔滨犹太人历史之谜—哈尔滨犹太人社区考察研究 *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shequ kaocha yanjiu* (Revealing the Enigma of Jewish History in Harbin: A Survey of the Harbin Jewish Community). Harbin: Heilongjiang Renmin Chubanshe, 2005.

미래의 하얼빈사

James Carter(Saint Joseph's University)

번역 : 김인욱(육사)

만주는 적어도 지난 400년 이상 투쟁의 장이었다. 17세기에는 한족과 훗날 남하하여 중국을 점령한 만주족간의 접촉이 있었고,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접촉도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선을 확정한 유럽열강과 맺은 첫 조약들도 이곳에서 맺어졌다. 200년이 지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이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인구가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과 이권은 1890년대에 러시아의 실질적인 식민지였던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동부철도가 건설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하얼빈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정구역이었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이전까지 러시아가 지배하고 발전시킨 도시였고, 때문에 이 시기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하얼빈의 20세기사의 많은 부분은 도시의 정체성과 식민지 유산에 대한 통제에 의해 발생한 몸부림의 역사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하얼빈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21세기 초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중국의 지방, 지역, 중앙 정부는 오랫동안 하얼빈의 식민지의 역사를 부정하고 걷어치워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과거를 하얼빈의 경제발전을 위한 포석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추세를 기반으로, 하얼빈의 관리들은 세계의 문화적, 경제적 분야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얼빈의 비중국적인 과거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 : 하얼빈 사학사

현대의 하얼빈은 러시아 건설자에 의해 세워졌다. 만주의 황야에서 활동하던 식민지 개척자들이 중국에 러시아 도시를 세운 것이다. 1890년대부터 하얼빈은 '동양의 파리'라 불릴 만큼 현대적 대도시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1차 세계대전 즈음, 하얼빈에는 약 100,000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두 개의 주요 철도선이 만나는 곳이자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북만주 지역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¹⁾ 정교회 예배당, 시나고그, 자갈들로

만들어진 대로, 아르누보 형식의 건물들 등은 하얼빈이 러시아의 지방도시로 느껴지게 하였다. 아시아인보다 많은 백인들이 다니는 도시의 중심가의 모습 또한 도시의 유럽식 외양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하얼빈은 중국동방철도의 경영진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얼빈을 러시아의 식민지로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17년 혁명 이후, 하얼빈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무너졌다. 중국 정부는 불세비키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러시아 황제의 정부는 더 이상 하얼빈을 유지할 힘이 없었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중국 관리들이 도시에 들어와 중국적 정체성을 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하얼빈은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문화가 있는 다국적 도시였지만, 중국 관리와 중국식 건물과 사람들이 하얼빈의 러시아적 특성을 지배 - 적어도 문맥화(contextualize) -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이 1932년에 하얼빈을 점령하면서 다시 하얼빈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고, 하얼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는 1949년까지 중국, 러시아, 일본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특성을 유지하게 된다.²⁾

하얼빈의 다양한 과거에 대한 긴장 상태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좀더 명확해진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서술한 역사들은 하얼빈이 근본적으로 러시아나 유럽에 기반하고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1000년이 넘는 중국적 과거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얼빈의 역사적 중요성은 반식민지적 기원이 아닌 중국공산당이 처음 지배한 중국의 도시에 있다고 주장되었다. 발굴된 유물들 또한 제대로 된 하얼빈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12세기에 여진 나라의 수도 중 하나가 하얼빈으로부터 수 마일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여진족은 중국인이 아닌 만주족의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현 하얼빈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하얼빈은 오랫동안 중국사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³⁾ 하얼빈의 유럽적 과거 부정은 하얼빈 건립 100주년 행사가 현대 하얼빈이 러시아에 의해 세워졌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북경의 관리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1998년도에 절정에 달했다.⁴⁾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 관리들은 하얼빈을 명확한 중국 도시로만 내세우기 보다 도시의 복잡한 역사를 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첫째, 경제의 동력으로서 관광과 상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 때문이었다. 하얼빈의 중공업 단지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고, 비효율적이었다. 한편, 하얼빈의 독특한 과거는 러시아와 유럽 관광객, 무역업자,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러시아의 하얼빈’ 복구작업은 1998년

1) For accounts of Harbin's early development see David Wolff, *To the Harbin St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esp. Ch. 1; and James Carter, *Creating a Chinese Harbi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esp. Ch. 1

2) Details on the transition to Chinese rule can be found in Carter, *Creating a Chinese Harbin* and Blaine Chiasson, *Administering the Colonize* (UBC, forthcoming)

3) Details on the use of historiography in support of Harbin's history can be found in Søren Clausen and Stig Thøgersen, *The Making of a Chinese City* (M.E. Sharpe, 1994)

4) Thomas Lahusen, "A Place Called Harbin: Reflections on a Centennial," *The China Quarterly* 154 (June 1998): 400-410

에 재단장 후 문을 새로 열은 돔 형태의 소피아 성당이였다.⁵⁾ 비록 성당이 종교적 건축물로서 다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가 돔의 꼭대기에 다시 설치되었고, 개관식은 ‘세례’(洗禮, xili)라 불리웠다. 개관식과 함께 나온 스크립트는 이 건축물이 하얼빈의 러시아적 과거를 일깨울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기도 했다. “다시 종이 울릴 때,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⁶⁾ 개관식 이후 10년 동안 소피아 성당은 하얼빈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성당은 관광 설명서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고, 돔의 실루엣은 많은 슬로건을 장식하기도 한다. 성당 앞의 쇼핑센터는 종종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꽉 차고 있고, 많은 주민들은 성당을 결혼 사진의 훌륭한 배경으로 여기고 있으며, 밤에는 성당은 환한 조명을 받고 있다.

소피아 성당의 외형은 이렇게 불만하지만, 성당 내부는 그렇지 못하다. 성당은 예배당이 아닌 하얼빈 건축을 위한 작은 박물관으로 다시 개장했다. 또한 성당에는 손쉽게 다양한 전시물들을 전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 성당 박물관에는 서툴게 복원된 오래된 사진들만 있을 뿐이다. 전시회는 임시적이고 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강한 인상을 주는 외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시 개장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물로 인한 피해 흔적과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버팀목들이 임시로 설치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의 악화는 지속되었고,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건축물이 상당한 구조적 위협에 처해있을 수 있다.⁷⁾

잘못된 점이 무엇이든, 소피아 성당의 재개장은 하얼빈의 식민지 과거의 부활을 의미한다. 소피아 성당과 중앙대로 (러시아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Kitaiskaya ulitsa: China Street라 불렸다.)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의 건축적 유산이 축복받고 있는 것이다. 이 자갈 도로 주변은 하얼빈 내에서 가장 유럽식 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한 러시아가 설계한 송화강을 따라 설치된 부두로 이어진다.⁸⁾

오늘날의 하얼빈 과거

10년 전부터 하얼빈의 식민지 역사의 부활이 시작된 이래, 하얼빈은 도시의 비중국적인 과거 복구와 재포장 작업을 지속해왔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5)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 Sofia restoration here. For more details on the reconstruction, see Carter, “Touring Harbin’s Pasts.”

6) “Xili - Sheng Suofeiya jiaotang [Baptism - St. Sofia’s Church] in *Quanguo zhongdian wenwu baohu danwei: Sheng Suofeiya jiaotang* [National Protected Cultural Site: St. Sofia Church] (n.p: n.d), 134. Quoted in Carter, “Touring Harbin’s Pasts,” 159

7)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April 19, 2008

8) I wrote about this turn of events in “Touring Harbin’s Pasts,” in Daniel Walkowitz and Lisa Knauer, eds., *Memory and the Impact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 Public Spac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4: 149-16

몇 개의 각각 다른 맥락이 발견되기도 한다. 첫 특징은 ‘러시아의 하얼빈’이다. 소련의 밖에 위치한 가장 큰 러시아적 도시인 하얼빈을 다루면서,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무역과 관광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유태의 하얼빈’이다. 하얼빈을 용서의 모델과 20세기 유럽의 유태인 약탈사에서 벗어난 유태인 사회와 문화의 피난처로 그리는 것이다. 하얼빈의 지역 관리들은 이러한 이미지는 매우 강력하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관광과 직접 투자를 통한 수입 효과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좀더 포괄적인 ‘유럽의 하얼빈’이 있다. 이는 유럽식 건축 양식, 도시 계획, 패션과 기호의 스타일과 감각을 포용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하얼빈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 망명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들이 소련 외부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Russia Abroad’라는 조직은 혁명 이전의 러시아 문화를 보존하고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 러시아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모든 공동체들은 사라진 러시아 제국의 유물이 되고 말았지만, 유럽에서 떨어져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하얼빈은 조금 달랐다. 베를린, 파리, 프라하 등을 잇는 통신 및 교류가 어려웠던 하얼빈의 러시아인 사회는 어떠한 도시들보다 적은 변화를 겪으면서 혁명 이전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⁹⁾ 하얼빈 건설의 시기,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하얼빈의 지리적 문화적 고립상태는 하얼빈에 거주하던 러시아인(Kharbintsy)의 향수를 1920년대부터 자극하였다. 이러한 향수는, 특히 하얼빈 거주민들이(Kharbintsy) 하얼빈에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로 이주한 이후, 이들의 하얼빈에 대한 추억의 주요 부분으로 남아있다.¹⁰⁾

이러한 향수는 하얼빈의 비 중국적 과거 재생의 핵심이었다. 중국 관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소피아 성당 수리를 시작으로 하얼빈의 러시아적 과거를 재정비하고 다시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소피아 성당과 같은 종교 건축물들을 중심이 되었다.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은 하얼빈에서 가장 수가 많은 종교 건축물이었고, 문화대혁명을 살아남은 성당들은 하얼빈의 러시아 과거를 다시 정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5에서 20개의 이러한 성당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하얼빈의 성당들에 대한 가장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의 정교회’ 웹사이트 (www.orthodox.cn) 에 의하면 러시아 정교회 하얼빈 교구에는 16개의 성당이 있고, 이중 12개는 하얼빈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교구는 현재의 흑룡강, 길림, 요녕, 내몽고까지 포함한다). 이 12개의 성당 중 4개는 문화대혁명 중에 파괴되었고, 3개는 이유가 확실치는 않지만 문화대혁명이나 혹은 그 이후에 잊혀지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5개 성당은 남아있는데, 소피아 성당(현 하얼빈 건축 박

9) Marc Raeff, *Russia Abroa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2-23

10) The most prolific student of the Russian émigré community in Harbin, is Olga Bakich, herself born in Harbin. See for instance “Émigré Identity: The Case of Harbi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 1, Winter 2000): 51-73

물관), Church of the Protection of the Virgin Mary (현재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사용); the St. Aleksejev Church (현재 카톨릭 성당으로 사용); the Church of the Dormition of the Virgin Mary (현재 하얼빈 문화공원 내의 놀이공원이자 식당), 그리고 St. Ibervel Church (현 상황을 알 수 없음)가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하얼빈에서 가장 유명한 정교회 성당은 문화대혁명의 가장 유명한 희생양이었던 St. Nicholas 대성당이였다. 이 성당은 문화대혁명 중에 홍군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그전에는 하얼빈에서 가장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었고, 엽서와 사진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기도 했다. 1966년 8월 23일 성당은 완전히 파괴되어 공터만이 남아있었는데, 이 공터는 유럽식 건축물인 국제호텔, 성(省) 박물관과 Choorin 백화점과 같은 하얼빈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1997년에 abstract glass와 조형물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세워졌지만, 2005년에는 목조 성당을 다시 건립하자고 건의되었다. 비록 대중적인 논의도 거의 없고,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지만, 이 건의는 1920년대 이후 하얼빈의 건축을 지배해온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하얼빈의 한 중국 거주인은 어렸을 적 성당을 방문하는 좋은 추억들이 있다고 하며, 다시 지어진 St. Nicholas는 도시의 역사와 양식을 대표할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¹¹⁾

향토사학자들은 그만큼 확신에 차있지 않다. 같은 기사에는 하얼빈의 문화와 역사 연구 센터의 연구자인 리 싱성(Li Xingsheng)의 반대 의견도 있다. Li는 재건축은 식민주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t. Nicholas 성당은 짜르의 식민주의를 나타내고, 다시 짓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얼빈시 시장은 당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허가 했지만,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복구작업이 진행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암시하는 증거도 없다.¹²⁾ St. Nicholas 성당에 대한 논쟁은 하얼빈 정체성과 누가 도시의 역사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장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긴장감은 St. Ibervel Church에 대한 계획들에서도 보여진다. 1908년에 지어진 St. Ibervel (Holy Iveron Icon Church라고도 불려짐)은 1904-5년 러일전쟁의 러시아 희생자들을 위해 지어졌다. 문화대혁명 중에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성당은 이후 잊혀지다가 현재는 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쓰이고 있다. 2004년 ‘지역사회센터’로 다시 개장하기 위한 성당 복구 계획이 표면화되었다.¹³⁾ 이 계획들은 하얼빈역의 새 정문과 연계되어, 성당 건물이 하얼빈의 교통 허브가 될 137,000m² 크기의 쇼핑 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었다.¹⁴⁾

11) Li Fangchao, “Harbin talks of rebuilding church,” *China Dail* (Sept. 5, 2005), 3

12) Ibid

13) Jin, Guang-jun and Zhao, Cong-xi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China: Some Significant Good Practices.” Chapter in Gerard, et al., eds. *The Human Sustainable City: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rom the Habitat Agend* (London: Ashgate, 2004): 488

14) Li Fangchao, “Harbin to Rebuild Orthodox Church,” *China Dail* (December 10, 2004), 3

이로써 기차 승객들은 하얼빈 역에서 내리자마자 하얼빈의 본질을 보여주는 시각적 건축물에 노출되고, 이것은 하얼빈 역사 내내 있었던 건축정치와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차역은 본래 거대한 아르누브 형식의 건축물이었고, 승객들은 작은 언덕 위의 풍경을 압도하는 St. Nicholas 대성당이 눈앞에 펼쳐진 것에 흥분하고는 했던 것이다. 중국 관리들이 1920년대에 하얼빈의 도시 계획을 기획할 때, 그들의 첫 작업은 기차역 정문 맞은편에 있는 쇼핑센터에 세워졌던 새 중학교 건립이었는데, 이것이 공적 비용을 들여 만든 첫 중국식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이었다. 복구된 St. Ivervel Church는 그 반대를 의미할 것이다. 즉, 승객들은 역에서 나와 러시아적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St. Ivervel 성당의 다섯 개의 돔 밑에서 17개의 버스나 전차 노선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가 하얼빈 과거와 일부 관계가 있지만, 이 복구 계획들이 얼마나 진지한지는 확실치 않다. 하얼빈시 기획 사무소에서 이 계획이 발견되는데, 이 기관의 웹사이트는 이 계획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고 확정지으려 한다. 2007년 5월에 찍힌 사진들은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유지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또한 복구되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¹⁵⁾ 또한 이 사진들은 위에 언급한 쇼핑센터나 교통 허브 건설이 진행 중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의견의 차이, 실행과 충분한 정보의 부재와 같은 요소들은 하얼빈의 과거를 어떻게 복구하고, 기억하며, 진척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지어진 다른 건축물들은 아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거나 상징성이 덜 하기 때문에 - 혹은 상업적으로 의미가 적기 때문에 -, ‘러시아의 하얼빈’의 부활 작업에서 비중이 낮다. 두 성당은 예배 장소로 쓰이고 있다. St. Alekseyev Church는 현재 로마 카톨릭 성당이고, 때때로 하얼빈의 카톨릭 대성당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1930년에 목조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세워진 이 성당은 하얼빈시 카톨릭 애국 협회의 본부이기도 하다. 하얼빈 시는 이 건물을 종교 건축물로 두되, 주위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성당의 외형을 사용하려 계획하고 있다. 좀더 면밀하게 말하자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은 파괴하여 더 나은 도시 생활의 위한 공공 장소를 만들고”, ‘성당의 시각적 외형을 강화하여 이 상업 지역의 상징물로 만드는 것’이다.¹⁶⁾ St. Ivervel 성당과 마찬가지로, 이 계획들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하얼빈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은 the Ukrainiya Church 라고 불리는 the Church of the Protection of the Virgin Mary 이다. 1922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문화대혁명 때 문을 닫았으나, 1984년 다시 문을 열었다. 이 건축물에 대한 복구나 재개 계획은 현재 없다. 하얼빈의 러시아적 과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성당은 공공의 성격이 적기 때문이다. 이 교구는 Grigory Zhu 신부가 2000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 사제가 없는 상

15) http://www.orthodox.cn/contemporary/harbin/iveron_en.ht

16) Jin and Zhao, 489

황이지만, 60명에 이르는 정교회 신자들이(모두 중국인이라고 한다) 평신도들에 의해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다.

Church of the Dormition of the Virgin Mary 는 살아남은 또 하나의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하얼빈 문화 공원 내의 오락/게임 센터, 식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러시아의 하얼빈’의 또 다른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하얼빈 외곽에 있는 황산 지역에 위치한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성당, 공동묘지, 기념비가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하얼빈의 정교회 공동묘지는 원래 현 문화공원에 성당을 주위에 위치한 식당에 위치했었는데, 1958년에 황산으로 옮겨진 것이다. 러시아 인들이 얼마 남지 않자, 묘지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고, 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찾자 2006년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6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이 공동묘지를 빠르게 복구하기 시작하여, 새 담장이 설치되고 많은 묘와 묘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1년 뒤인 2007년 가을, 일본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을 기념하는 새 묘지가 만들어졌다. 이 묘지는 2주 만에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정치적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개장식은 중국의 외무부장인 양 지예츠(Yang Jiechi)와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인 Sergei Lavrov에 의해 주관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적 협력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것은 희생된 병사들의 이름이 새 묘비에 새겨진 것이다.¹⁷⁾

Lavrov 외무부 장관의 황산 묘지 방문은 중러 관계의 재개를 보여주고 있다. (몇 달 뒤, Andrei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찾았다.) 두 나라의 이해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 에너지 생산국이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소비국의 위치를 넘어설 조짐이다. 2,700마일에 달하는 국경지대는 세계 최대이다.¹⁸⁾ 두 나라 모두 ‘다극 체제’내의 세력이 되고자 한다. 2001년에 설립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소련연방 소속이었던 중앙아시아 4개국의 비정부 기구들로 이뤄진 상해협력기구(SCO)는 이러한 추세에 예이다. SCO의 전신인 the Shanghai Five는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소피아 성당의 복구 계획이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의 연결성은 중러 관계의 힘과, 하얼빈의 실질적이고 또한 잠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얼빈의 역사가 이러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유태인의 하얼빈

‘러시아의 하얼빈’처럼 하얼빈의 유태인적 유산의 복구 작업은 1990년 말에 시작되었다.

17) The accou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Huangshan memorial cemetery is provided by Prof.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May 21, 2008). The meeting between Yang and Lavrov was reported in *Asia Time* (Oct. 31, 2007, available online at <http://www.atimes.com/atimes/China/IJ31Ad01.htm>)

18) Portions of the Sino-Russian border have been disputed for some time, most violently during a brief shooting war in 1969. The section of the border that was the focus of this fighting was finally agreed to in an agreement signed on July 21, 2008

하얼빈의 흑룡강성 대학의 서양학 소속인 댄 벤 캐넌 교수는 1999년을 시작으로 하얼빈에 대한 유태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성 차원의 여러 계획들을 기록했다. 당시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인 장 티에지양(Zhang Tiejiang)은 ‘흑룡강성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하얼빈의 유태인 연구에 대한 제안’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에서 유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도시 내의 유태인 관련 유적을 연구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중국내 언론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하얼빈의 유태적 과거를 연구하고 일으켜야 한다는 흑룡강성 공산당 서기 차원의 구상으로 이어졌다.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에는 유태인학 센터가 설립되었는데, 흑룡강성 당서기인 송파탕(Song Fatang)에 의하면 이는 ‘하얼빈 내의 유태인을 다시 불러오고, 하얼빈 시에 유태인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다.¹⁹⁾ 모든 관광업은 상업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이윤을 명확하고 공격적으로 쫓는다는 점이나, 유태인의 금융이나 사업적 통찰력의 전형에 대해서 대중들의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해 할 만 하다.

2004년 8월에 하얼빈 사회과학원의 지역사와 관광발전 연구소가 내놓은 관광 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하얼빈의 유태적 문화 자원은 완벽하고, 자원의 역사적 가치나, 스케일, 보호 상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뛰어나다.” 같은 문서는 좀더 집중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여 관광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 관리들이 하얼빈의 유태적 과거를 러시아의 것과 차별화 해야 한다고 청하고 있다.²⁰⁾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학자 뿐 아니라 사업가들과 정치가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하얼빈의 유태적 과거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중 가장 큰 컨퍼런스는 2007년 6월에 열린 83명이 참가한 ‘세계 유태인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었다. 83명중 17명은 학계 출신이었고 (이스라엘인 1명, 미국인 1명,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15명), 그 외의 66명은 정치인, 사업가, 로비스트와 그들의 손님 등이었다. 개회사에서 하얼빈 시장은 이 모임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유태국가는 그들의 독특한 사업 기술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다수의 성공한 기업들로 ‘세계 제일의 상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세계의 돈은 미국인의 주머니에 있고, 미국의 돈은 유태인의 주머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태인의 지혜에 대한 가장 뛰어난 칭찬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더 협조적이고, 포용력을 가지며, 실용적인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²¹⁾

19)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15 May 200

20) Wang Jing, Harbin Jews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research,” unpublished paper (n.p., 2004), 5

21) Speech by Zhang Xiaolian, quoted in Ben-Canaan, “The Business of Stereotyping Business,” *Mizrekh, Jewish Studies in the Far East* (November 2008)7

개회사에는 다른 상투적인 표현도 있었고 미국 산업의 선구자인 JP Morgan이나 John T. Rockefeller가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반복되었다. 이는 하얼빈의 금융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유대인 투자자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²²⁾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인종에 대한 표현은 서구에서 - 특히 학술 대회를 표방한 컨퍼런스에서 드물다. 하지만 이는 하얼빈이 유대적 과거를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보여주는 다른 예들과 일맥상통한다. 유대인의 금융 능력과 유대인의 투자가 하얼빈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하얼빈 지방 정부의 외무 사무소가 제작한 ‘하얼빈의 유대인 유적’이라는 영화를 통해 냉소적으로 잘 들어난다. 냉소, 무지, 반유대주의가 놀랍게 혼합되어 있는 이 영화는 “유대인은 수세기 동안 세계를 방랑했다”라고 주장하며 시작하고, 이 방랑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19세기 말에 하얼빈에서 정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얼빈 시의 유대인 공동체의 대략적인 역사가 소개되고, 이 영화는 하얼빈의 유대인 거주자들과 연계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을 읊는다. 한 전형적인 예로, 유명한 러시아 식당으로 쓰이던 장소가 소개된다. “전 소유주는 유대인인 E.A. Katz 였습니다.” 조금 지난 후, 화면 위의 제목이 “Hotel Modern”이 유대인에 의해 세워졌다고 말한다. (믿겨지지 않지만, 카메라가 이 20세기 초에 지어진 호텔 건축물의 복도와 건축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동안 유명 밴드의 연주한 “크리스마스 송”이 나온다.) 이 장면은 몬테스키외의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패가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끝마친다.²³⁾

이 영화는 유럽에서 벌어지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유대인들의 천국으로 하얼빈의 역사를 손쉽게 그리며 끝난다. “유대인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친절한 중국인들이 사심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들의 고마움을 돌려주었다... 하얼빈은... 유대인들의 행복을 위한 장소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을 다시 초청한다. “하얼빈 인들은 현재에도 도시 내의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²⁴⁾

진부하고 품위가 떨어지는 수사와 함께 영화는 물리적인 복구 상황과 개선된 모습들을 비춰준다. 시 정부는 2004년에만 시나고그, 학교, 병원, 묘지와 같은 도시내의 유명한 유대 관련 역사적 장소들을 복구 하는데에 3천3백만 위안을 투자하였다. 구 시나고그와 전 유대인 중학교는 그들의 독특한 건축 외형으로 ‘앞으로의 발전과 국제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한다.²⁵⁾ 현재 이 중학교는 1956년 이후 한국인 중학교로 사용되고 있고, 구 시나고그(1921년에 건립)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실치 않다. 신 시나고그, 박물관, 그리고 다른 건축 장소들은 유대 ‘관광 루트’에 편입되었고, 중국과 해외의 여

22) Ibid

23) Harbin City Bureau of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犹太人在哈尔滨的遗. *Youtairen zai Harbin de yij. The relics of Jews in Harbi*. (DVD), 2008

24) Ibid

25) *The relics of Jews in Harbi*

행사에 홍보되어 하얼빈을 상해, 개봉, 천진과 함께 ‘유대인의 중국’ 관련 관광 상품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유대인 묘지로는 가장 큰 황산의 공공 묘지는 신 시나고그와 박물관과 함께 ‘유대의 하얼빈’의 중심이다. 1903년에 만들어진 이 공동 묘지는 정교회 공동 묘지와 함께 시내에 위치한 Nangang 지역에서 1958년 황산의 외곽으로 옮겨졌다. 묘지에 대한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850명의 묘, 600개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묘비(이중 500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등이 있다. 정교회 묘지처럼 유대교의 공동 묘지는 21세기 초에 있었던 고위 관리들의 방문이 있기까지는 잊혀져 있었다. 러시아 정교회 묘지의 경우, 러시아 관리들의 방문은 전략적, 정치적 큰 틀의 이해관계와 얽혀있었지만, 중국 이스라엘 관계에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얼빈과 중국 관리들은 이스라엘과 하얼빈의 유대적 과거와의 연계를 돈벌이 기회로 여겨왔다. 2004년 이스라엘은 직무 대리수상이었던 Ehud Olmert가 그의 할아버지 Joseph 묘를 방문하기 위해 하얼빈에 왔었다. 큰 꿈을 꾸며, 하얼빈 정부는 묘지의 복구와 유지를 위해 4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Olmert가 위법행위로 정치세가 기울게 되자, 이 전략이 재정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2008년 봄, 시 정부는 묘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중단하였고, 유대학 센터의 회원들에게 이스라엘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²⁶⁾

이러한 물리적 발전과 함께 나온 것이 하얼빈의 유대적 역사를 조명한 수많은 책과 논문이다. 흑룡강성 역사학과의 과장은 하얼빈 내의 유대인 역사는 하얼빈에 있는 중국인 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지목하였다. 이중 중요한 것이 2004년에 출간된 장 티에지앙(Zhang Tiejiang)의 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 shequ kaocha yanjiu (하얼빈 유대사의 수수께끼 풀기: 하얼빈 내의 유대인 공동체 조사)이다.²⁷⁾ 장(Zhang)의 책은 1999-2003년에 발표된 논문들과 하얼빈의 유대인 공동체사와 관련된 1차 사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장 티에지앙 (Zhang Tiejiang)의 책은 유대인 공동체 과거에 대한 중요한 식견을 제공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대인의 하얼빈’ 연구의 일부분이다. 학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유대의 하얼빈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는 대부분 유대인의 하얼빈에 중점을 두었고, 2009년 여름 하얼빈에서 관련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하얼빈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사료의 비접근성 때문에 제한적이다. 자료들은 하얼빈시와 흑룡강성에 저장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문서국에 접근할 수 없는데, 특히 유대인 문서국과 같이 외국인들과 관계된 곳이 그

26) Dan Ben-Canaan, personal correspondence, May 21, 200

27) Zhang Tiejiang江. 揭开犹太史—犹太人社区考察研究Jiekai Harbin Youtairen lishi zhi mi: Harbin Youtairenshequ kaocha yanjiu(Revealing the Enigma of Jewish History in Harbin: A Survey of the Harbin Jewish Community). Harbin: Heilongjiang Renmin Chubanshe, 2005

렇다. 중국인 학자들도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감시되곤 한다. 장(Zhang)의 책에 나와있는 1차 사료들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주지만, 아직도 저장된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없는 한 그들의 유용성은 일화거리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접근을 제한하면서 하얼빈 관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자료가 북미, 호주, 유럽에 위치한 망명자들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하얼빈의 고문서고가 공개되기 전까지 하얼빈의 유대적 과거에 대한 연구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얼빈에서 벌어지는 유대적 과거의 부활은 - 학문적 성과와 건축적 복구 작업 측면 모두에서 - 표면적 변화로 보인다. 건축물 복구는 관광지를 늘려주지만, 이윤 관련 부분에만 너무 좁게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외국 투자가 위험에 처하면 정부 보조금을 없애기도 한다. (Olmert 사건이 그 예이다.) 또한 학계는 매력적이고 유익한 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하얼빈 유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유럽의 하얼빈

‘유럽의 하얼빈’은 하얼빈에 있는 유럽의 문화적 건축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들에 사용하려 한다. 대부분의 종교적 건물은 보통 러시아나 유대적 역사들과 관련이 있고, 유럽적 건물들은 전형적으로 비종교적이다. 러시아나 유대와 마찬가지로 유럽적 유적들도 현재 정치적 경제적 아젠다를 위해 복구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특정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관광과 투자 활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물은 소피아 성당과 송화강(Sungari river) 부두를 잇는 중앙대로 주위의 도보로이다. 이 1마일이 넘는 이 러시아 도시가 세워진 이래 하얼빈의 상업 지구의 중심부였고, 하얼빈에 유럽식 건물이 가장 밀집해있는 곳이다. 도보로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1997년에 시작되었고, 현재는 유럽식 건축물, Bellagio Café, the Café Cezanne이나 러시아 레스토랑이 있는 유럽식 테마를 지닌 사업들이 들어서 있는 중국에서 가장 눈에 띄고 유쾌한 도시 중심부 중 하나이다. 이와 비슷한 작업들은 식민지나 반식민지 경험이 있는 상해, 천진, 칭도에서도 발견된다. 비록 하얼빈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비 중국적인 빌딩, 도로, 산책로는 관광 선전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하얼빈의 사업 지구가 눈에 띄게 유럽식으로 보이게 한다.

중앙대로의 재개발은 그 중요성을 정당화하려는 학계의 움직임을 동반했다. 2000년 출판된 정기간행물은 이 거리의 자세한 역사, 여러 점유 세력들, 그리고 하얼빈에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앙대로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라고 선언했다.²⁸⁾ 동시에 이 간행물은 ‘외국 자본가들 사업’, ‘동양의 모스크바’와 같은 제목을 붙이거나 프랑스가 지은 Hotel Moderne, 러시아 빵집이 만든 하얼빈의 유명한 ‘검은 빵’의 기원을 설명하며 중앙대

28) Yang Rongqi 杨荣 and Xie Zhongtian 谢中. 天街异彩: 哈尔滨中央大街 Tianjie yicai: Haerbin Zhongyang dajie (The world's most splendid street: Harbin's Central Street). (Beijing: Jifangjun wenyi chubanshe, 2000)

로의 식민과거의 번영과 창조성을 찬양하였다. 또한, 외국이 지배한 중앙대로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고통’의 흔적을 보여주며 이 시기를 중국 굴욕의 시기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병치는 도시의 비 중국적 과거를 마케팅하면서 벌어지는 관리들의 고민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 이후 이어진 외국 지배가 중국 발전의 방해요소였다는 중심적인 논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외국인들의 향수를 이용하여 자본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01년에 나온 *The Oriental Paris*라는 사진첩이 있다. 이 책은 하얼빈의 사진 기록인데, 중요 중국식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는 명확하다. 전체 151페이지 중에서 ‘중국 전통 건물’장에는 절, 유교 사당, 중학교, 이 세 건물을 다루고 있는 6페이지뿐이다. 중국어로만 출판된 중앙대로를 다룬 책과는 달리 *The Oriental Paris*는 윤이 나는 사진들로 구성되어 중국어와 영어로 출판되었다. 티엔지에 이차이(Tianjie yicai)는 중국독자를 겨냥하여 ‘유럽의 하얼빈’을 중국인의 고통을 대가로 이뤄진 외국의 성공으로 설명하지만, *The Oriental Paris*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를 겨냥하여 화려한 식민지 유산을 기념하는 하얼빈을 보여주고 있다.

결 론

하얼빈의 비중국적 과거는 경제적 이점이 별로 없는 도시에 중요한 자산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생기면서 1980년 이후 여러 추세에 의해 만주의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공업에서 벗어나 경공업과 첨단 기술 산업(대부분이 해안 지역에 위치한)로 가는 추세, 고용 보장을 없앤 국가 직영 기업의 해체, 국가 사회 보장망의 침식 등은 모두 하얼빈이 높은 실업과 경제 성장이 별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1990년 말이 되면, 이때 소피아 성당 재개장으로 상징되는 관광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 흑룡강성의 도시 인구 60%가 실업이거나 무급 상태였다.²⁹⁾

다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업은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하얼빈의 식민적 과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시험적인 시도들이 등장하는 21세기 초에 명백해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의 사건들은 이 추세를 확증시켜주고 이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은 박물관과 문화 관광지로 재개장하였고, 다른 복구 작업도 제의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계획은 중국어보다 영어로 된 언론에서 더 쉽게 발견된다. 이것은 이러한 복구 및 재개장 계획이 국내 보다는 해외를 겨냥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얼빈의 유대적 유산은 이스라엘 관리들 방문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묘지를 열었다 곧 국가 보조가 끊기는 등 가장 지독하게 다시 꾸며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얼빈의 새로 개장한 유대 문화 박물관이나 재개장한 시나고그, 유대인 공동묘지는 이스라엘인,

29) Patricia Ebrey, et al., eds. *East Asia: 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n ed. (Boston: Houghton Mifflin, 2009), 47

미국인, 유럽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상품이다.

하얼빈은 식민 과거를 혼합된 언어로 표현한다. 중국 정부는 명확한 사회주의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에 의존하여 정통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제국주의가 하얼빈에 남긴 건축 유산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통분모는 역시 자본인데, 중앙정부가 시장경제 체제로 옮겨가고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 정책들을 포기하는 추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치 개혁을 보류하는 중이다. 이 부자가 될 권리와 통치할 권리를 교환하는 익숙한 흥정에서, 중국의 중산층은 1990년대 초부터 소비재 구매가 크게 일어났다.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하얼빈에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통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하얼빈은 북경에서 벌어진 천안문 사태 당시였던 1989년도에 큰 데모가 있었다.) 이것으로 금전적 이윤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하얼빈의 식민 과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1890년대에 러시아 기술자들은 만주의 광물과 상업적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영토 내에 러시아의 지방 도시를 세웠다. 한 세기가 지난 후 중국 관리들은 그 도시인 하얼빈의 비 중국적 유산이 이득을 가져오길 바라며 하나의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在「満」日本文化の拠点移動について一大連から新京（現長春）へ

小林英夫, 早稲田大学

目 次

I. 各分野の文化活動

① 映画 <以下省略>

II. 文学活動の動向—作家の移動—

III. 文化活動拠点の移動

日本と中国東北の関係は1904年の日露戦争の勃発から1945年の日本の敗戦まで40余年におよぶ。この間約150万人の日本人が、中国東北に居住し、そこで生活を営んできた。彼らの多くは、当初は満鉄沿線の大都市や付属地に住んでいた。満鉄付属地と呼ばれた満鉄沿線の地域を除けば、それ以外の奥地に居住する日本人の数は著しく少なかった。日本人が、特に集中していたのは、満鉄の本社があり、かつ満洲物産の輸出港でもあった大連だった。ここは、中国東北における日本の政治・経済の中心地であると同時に在満日本文化の発祥の地でもあった。しかし1931年9月の満州事変、翌32年3月のいわゆる満州国の成立、そして首都・新京、現在の長春の誕生は、同時に日本文化の新しい中心地の誕生をも意味した。そして、新しい文化が、新京に生まれると同時に、これまで大連にあった文化活動の拠点が新京へと移動していった。本稿は、こうした文化の移動の実態を検討するものである。ここで検討する文化のジャンルは、①映画、②音楽、③演劇、④文学、⑤スポーツの5つである。1)

I. 各分野の文化活動

① 映画 <以下省略>

1) 満洲の文化に関しては、各ジャンルごとに優れた研究成果があるが、其の点に関しては、論文巻末の参考文献を参照されたい。

II. 文学活動の動向—作家の移動—

文化の中心移動の問題を文学活動に焦点を絞りながら見てみることにしよう。

文学者の川村湊は、満洲国時代の文学作品を『日本植民地文学精選集』（ゆまに書房、2001年）として残しており、そのなかに満洲国時代の文学作品を多数収録している。これらの作品と川村湊の改題、川村湊の『満洲崩壊—「大東亜文学」と作家たち』（文藝春秋、1997年）に依拠しながら、各作家の活動を拠点の移動問題という視点から見てみることにしよう。

まず、1930年代後半になると新京を活動舞台にする作家が増加を開始する事である。山田清三郎、北村謙次郎、鈴木啓佐吉、竹内正一、牛島春子らがそれに該当する。山田清三郎は、プロレタリア作家として1930年代前半まで日本で活動し、治安維持法違反で検挙された後「転向」を声明、39年満洲に渡り、新京に拠点をもつ満洲新聞の編集委員となり活動、45年の敗戦後はソ連軍の捕虜としてシベリアで強制労働の後に日本に帰還している。彼は満洲新聞の編集員時代に新京において満洲国政府が掲げる在満民族の協和を目標に新聞小説を通じて日・ロ・朝鮮・中国人作家の組織化のために活動した。

北村謙次郎の場合は、1910年代父の勤務の関係で大連で少年時代を過ごしている。その後青年時代には大連と日本の間を行き来しながら作家生活を続け、38年からは新京に移住して、満鉄に勤務しつつ作家活動を本格化させている。彼の場合には、大連から新京に移転する事で作家活動を積極化させた事例だと見て取る事ができよう。

鈴木啓佐吉も北村と同じような軌跡をたどる。宮城県生まれの彼は1935年に満洲へ渡る。大連で『満洲公論』の編集に携わるが、その後は新京に移り満洲電電公社に勤務しながら作家活動を展開する。

竹内正一は1920年代半ばに早稲田を卒業した後満洲に渡り大連の満鉄図書館に勤務しつつ作家活動を開始、その後はハルビンに移り作家活動を継続している。

牛島春子は数少ない女流作家だが、彼女の場合には1930年代日本の福岡にあって労働組合運動に従事しつつプロレタリア作家活動を行なっている。その後は治安維持法違反で検挙された後は転向、36年結婚と同時に、満洲国官吏だった夫に連れられて満洲に渡り作家活動を開始、38年から新京にあって作家活動を続けている。

1930年代後半から活動を本格化させた作家たちは、その多くが新京を拠点に活動を展開した。彼らの多くは、日本で左翼活動を展開し、治安維持法違反で検挙、投獄され、転向を表明した後出獄、満洲へ渡ったものが多かった。当時の満洲は日本国内と比較すると日本人には言論の統制が厳しくなく、したがって比較的易しく就職することが可能だった。とりわけ、明治以来の伝統をもつ大連よりは、新興都市新京のほうが、就職の機会が多く、政府機関には日本人は他民族より優位な条件での就職が可能だっ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彼らはまず就職先を見つけ、生活の安定を得た後に作家活動を展開する機会が少なくなかった。

したがって、明治以降の長い伝統を有し、とりわけ日本の大正デモクラシーの伝統を色濃く残した大連の文化土壌と異なり、新京の文化土壌は、満洲国の首都に相応しく国策の影響を強く受けた文化が発展した。例えば、先にあげた

山田清三郎は、満洲新聞の編集員として、文学作品の紹介を新聞紙上で行なったが、その目的を次のように述べていた。「複合民族国家といわれるこの国の、各民族作家たちを、新聞に動員し、広く世に紹介するとともに、血を異にする各作家が、相互に激励し合い、競い合って、この国の文学を高め、真にこの国にふさわしい多種多様な文学成果を豊かにするために多少なりとも資することができれば」（山田清三郎編『日満露在満作家短編選集』ゆまに書房復刻版）と考えたという。まさに満洲国が掲げた五族協和の文学面での実践に他ならなかった。彼らが描いた作品も程度の差こそあれ、満洲国の国策の線に沿ったものか、さもなければ政治色の少ないものが大半を占めた。

朝鮮人で、数多くの作品を発表した今村栄治、本名張喚基も新京を中心に活動した作家である。彼は、朝鮮語よりは日本語のほうが得意で、朝鮮語で発表した作品はない。彼の作風を比較的好く示しているのは「創作 出世」であろう。1939年の『宣撫月報』に掲載された短編小説である。宣撫工作報告集だから日本軍の宣伝工作雑誌に該当するわけで、内容はおのずと日本軍の宣伝ということになる。この「創作 出世」も、主人公の「私」が立派な満洲国軍人になり、王道楽土を実現する決意を述べたもので、その決意をした瞬間、私は「爽快な気持ち」になるという筋書きである。

日本国内で左翼活動を展開し、転向して満洲国へ渡りながら、再び左翼運動をしたとして再度満洲国治安維持法に問われて収監された作家もいる。野川隆や塙英夫らがそれである。彼らは新京を中心に活動したわけではなく、北部満洲の農村地域で協同組合運動を行い、貧農の救済運動を展開し、1941年暮れに関東憲兵隊から、この協同組合運動は共産主義運動だと断定され、治安維持法違反でリーダーだった佐藤大四郎らとともに検挙、投獄されている（小林英夫・福井伸一『満鉄調査部事件の真相』小学館、2006年）。彼らの運動に関しては、塙が、日本の代表的大衆雑誌『中央公論』に検挙直前の1941年発表した「アルカリ地帯」に詳しい。「アルカリ地帯」というのは、アルカリ性が強く作物が育たない北部満洲の貧困地帯を舞台に彼らが展開した協同組合運動を描いたものである。野川、塙の両名中野川は、1944年収監された監獄で、病死している。

新京以外の拠点で活動し作品を発表した人物に檜山陸郎がいる。彼は野川や塙のように左翼運動を展開したわけではないが、1941年約1年だけ満洲の西北端の満洲里に滞在している。この経験を基に彼は日本に帰国して主に満洲国西北部のホロンバイル平原を舞台にした作品を残している。このほか短期間満洲を旅して日本に帰国後数多くの作品を発表した作家も居ないわけではないが、それらは本稿の直接の対象ではないので省略する。

Ⅲ. 文化活動拠点の移動

以上映画、音楽、演劇、文学、スポーツの5分野における活動の概観を試みた。1930年代以降生じた新しい現象は、満洲での文化拠点が明治以来の拠点だった大連から新京と呼ばれた長春へと移動したことだった。映画の場合は1937年8月に長春に新たに映画制作会社満映が設立されるに伴い、それまでの満鉄映画班の主力が長春に移動するに伴い重点は長春に移動した。

満洲の小説もその起源は大連にある。典型的な例を挙げれば日本語の雑誌の『新天地』であった。『新天地』は1911年に大連で発刊されて以来1945年5月まで継続したが、その出発拠点は大連だった。そのほか1932年には同人雑誌『文学』が発刊されるが、その活動と出版の拠点は大連だった。しかし、首都が新京に移転した1932年以降徐々にではあるが、文学活動の新しい拠点として新京が登場する。典型的な事例は、1938年に登場した『満州浪漫』だった。スポーツにおいても同じ傾向が出てくる。満洲のスポーツを支えたのは、1924年満鉄に付属して大連に設立された満鉄倶楽部だった。満鉄倶楽部の代表は野球だった。1927年の第1回都市対抗野球大会に参加した満鉄倶楽部は優勝し、第3回大会でも満鉄倶楽部が優勝を果たしたのである。そのほか、剣道、柔道、相撲、テニス、水泳、バレーボール、バスケットボール、馬術部などが満鉄倶楽部に設立され、大連がその中心地となった。しかし満洲国の首都に長春が設定され、この地に1937年に建国大学が設立されると、ここに新しいスポーツの中心が誕生する。建国大学では、武道が必修化され、剣道、柔道、弓道、柔剣道、馬術、相撲などの科目が開設された。

大連から新京への文化拠点の移行は、文化の担い手が満鉄から満洲国へと移行したことだった。それは、満洲国の成立に伴い、満鉄中心の時代が終わりを告げ、満鉄改組などを経て満鉄が、それまでの「小国家」から鉄道会社へと縮小していくことと無関係ではなかった。そして、満鉄に代わり満洲国が文化の中心に成長していく過程でもあった。そして、この移行の過程は、満鉄の映画班のスタッフが、満映のスタッフとなったように、満鉄が築き上げた文化伝統の上に新京の文化が花開いたのもあった。最も、自由主義的な大連中心の満鉄文化に対して新京の満洲文化は、国権的な雰囲気濃厚であった。

< 5つの文化の要約 >

まず各分野の文化活動を簡単に見ておきたい。映画に関しては、満洲での出発は、満鉄の映画班で、其の設立は1923年のことであった。1929年に芥川光蔵が入社してからその活動は本格化した。そして1931年に満州事変が勃発すると、満鉄映画班は、その記録映画の作成に活躍した。その後満洲国が出来ると日本統治下の満洲国の記録映画作りに大きな役割を演じた。そして37年8月に満洲映画協会、いわゆる満映が設立されると、満鉄は林顕蔵をはじめ多くのスタッフを

送りだして、その活動を支えた。39年11月に満映は甘粕正彦が理事長に就任すると、本格的な稼働を開始する。ここを拠点に活動した代表的女優が李香蘭、日本名山口淑子であった。満映は、娯楽映画、教養映画、時事映画を多数作るが、中心は、当時満州国が掲げた「五族協和」の国策宣伝だった。

音楽に関して言えば、満州は日本の著名な音楽家を多数輩出する地になっている。代表的人物を挙げるとすれば、満鉄出身で辞職後流行歌手となった東海林太郎と瀋陽生まれで、戦後指揮者として活躍した小沢征爾である。満州国成立前の満州の音楽の拠点は、大連とハルビンであった。特にハルビンには、1908年にロシア人による交響楽団が組織され、1917年以降は多数の亡命ロシア音楽家がハルビンで活動していた。しかし1940年になると満州国の首都に新京交響楽団が組織され、音楽の中心は次第に新京へと移転する。しかし音楽の場合には、満州国に独自の音楽的基盤が形成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も関連して、国策的傾向は、さほどは強くはなかった。

演劇に関して言えば、出発点は大連で、1935年に結成された大連芸術座だった。大連芸術座は、大連の満洲日日新聞や満鉄図書館の支援を受けていた。大連芸術座は1935年から1940年まで全満洲で講演活動を展開した。しかし満州国成立後は、新たに首都新京に新京放送劇団が結成され、活動を開始した。しかし大連、新京と地域は異なっていたが、両者の活動内容に大きな相違はなく、両者はしばしば交流もしていた。

満洲での日本文学発祥の地は大連だった。日本社会に大きな影響力をもった日本語雑誌『新天地』は、満鉄退職者の手で1911年に発行され、1945年5月まで継続した。大正デモクラシーを長期間保持した雑誌であった。1932年には文学雑誌『文学』が発刊されている。この雑誌は、その後『作文』と名称を変更した。満州国成立後の1938年には新京を中心に『満洲浪漫』が発刊される。この雑誌は、満州国の国策的傾向が濃厚だった。

スポーツでもそのスタートは大連の満鉄だった。大連に満鉄倶楽部が設立されたのは1924年のことだった。この倶楽部には野球、剣道、柔道など多くのスポーツクラブが作られたが、なかでも有名だったのは野球部で、1927年と29年に日本の都市対抗野球大会で優勝した。しかし、満州国が出来た1932年以降スポーツの中心は、徐々に新京に移り始めた。新京の拠点は、1938年から活動を開始した満洲建国大学だった。ここでは、主に剣道、柔道、弓道など武術が中心行的に行われた。

在 「만주(滿州)」 일본 문화의 거점 이동에 대하여 -대련(大連)에서 신경(현, 長春)으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早稲田大学)

번역 : 정안기(고려대)

Ⅰ 목 차 Ⅰ

- | | |
|-----------------|---------------------------|
| I. 서론 | 4. 문 학 |
| II. 각 분야의 문화 활동 | 5. 스포츠 |
| 1. 영 화 | III. 문학 활동의 동향 - 작가의 이동 - |
| 2. 음 악 | IV. 문화 활동의 거점 이동 |
| 3. 연 극 | V. 결론에 대신하여 |

I. 서론

일본과 중국 동북과의 관계는 1904년 러일전쟁 발발로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는 40여년에 이른다. 그 동안 약 150만 명의 일본인이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해서 생활해 왔다. 그들 대부분은 당초부터 만철 연선의 대도시 혹은 부속지에 거주하였다. 만철 부속지로 알려진 ‘만철 연선지역’을 제외하면, 그 이외 오지에 거주한 일본인의 수는 무척 적었다. 특히 일본인이 밀집했던 장소는 만철 본사의 소재지이자 만주물산(滿州物産)의 수출항이었던 대련(大連)이었다. 대련은 중국 동북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중심지임과 동시에 在만 일본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1931년 9월 만주사변과 이듬해인 32년 3월 이른바 ‘만주국’의 성립 그리고 수도인 신경, 현재 장춘의 출현은 동시에 일본 문화 중심지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신경에서 발흥함과 동시에 종래 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활동의 거점이 신경으로 이동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동북에서 일본의 문화 활동과 거점 이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화 장르는 ①영화, ②음악, ③연극, ④문학, ⑤스포츠이다.¹⁾

1) 만주의 문화에 관해서는 각 장르마다 뛰어난 연구 성과가 있지만, 그에 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고.

II. 각 분야의 문화 활동

1. 영 화

만주에서 영화 역사는 만철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23년 만철영화반(滿鐵映畫班)의 설립과 함께 초기에는 본사 뒤편 차고의 2층이 그 사무소였고, 직원도 20명에 불과하였다. 뒤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 훗날 만주 영화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아쿠타가와 고우조(芥川光藏)가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을 졸업하고 만철에 입사한 것은 1929년이였다. 만철영화반은 만철 개발을 선전하기 위해 「만철을 개척한 사람(「滿州を拓く者, 1928년)」, 「돌이 석유가 될 때까지(「石が石油になるまで, 1929년)」, 「간쥴(「ガンジュール, 1930년)」 등을 제작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과 함께 아쿠타가와를 비롯한 만철영화반은 관동군(關東軍)과 천진군(天津軍)의 의뢰를 받아 북평(北平)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전개하면서 많은 기록 필름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秘境熱河」(1936)은 독일제 줌 렌즈를 장착한 대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만주의 대초원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였다. 아쿠타가와와는 1941년 만철을 퇴직한 이후 만영으로 이적했다.

1937년 8월 만주영화협회 이른바 ‘만영’이 설립되자, 만주에서 영화 제작의 중심은 대련에서 만영 소재지인 신경으로 이동하였다. 만영의 초대 이사장에는 김벽동(金壁東)이 취임했다. 그는 「동양의 마타하리(東洋のマタ・ハリ)」라 불리며 일본군 스파이로 암약했던 가와시마 요시코(川島芳子), 본명 김벽휘(金壁輝)의 친오빠였다. 그리고 전무 이사에는 만철 서무과장으로 만철의 기록 영화를 담당하던 하야시 겐조(林顯藏)가 취임해서 만영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1938년 만영이 낳은 불후의 스타 이향란(李香蘭, 본명 야마구치 요시코, 山口淑子)의 탄생, 1939년 11월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가 만영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만영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었다.

아마카스가 만영 이사장에 취임한 1939년 당시 만주 전역의 영화관 수는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일본인 경영 일본 영화 상영관은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아마카스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영화의 제작 편수는 그 이전의 약 2배에 상당하는 연간 20여편으로 증가하였고, 만영의 배우와 직원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었다. 아마카스는 관동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하였다. 관동군 고관이 만영의 여배우에게 술자리의 출석을 강요하면, “여배우는 작부가 아니라 예술가”라며 반발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마카스가 아무리 유능하다고는 해도 역시 관리자에 불과하였다. 영화 제작에서는 오히려 아마추어였다. 그 점에서는 네기시 간이치(根岸寬一) 혹은 우치다 도무(内田吐夢)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네기시는 패전 이후 일본으로 귀국하여 동영(東映)을 설립

하였고, 만주에서 귀국한 영화 관계자들을 모아서 영화 제작에 힘썼다. 우치다도 1964년 대표작 「飢餓海峽」을 제작하였다.

아마카스는 좌익운동 경험자일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채용한다는 인사 방침을 견지하였다. 즉, ‘국가 전복’이라는 과격한 사상만을 제외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실제로 만영이 제작한 영화는 오락 영화, 교양 영화, 시사 영화의 세 종류였지만 「5족협화(五族協和)」의 적극적인 선전을 위해서는 각 민족의 주체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아마카스의 경영 방침의 배후에 있던 것은 아닐까.

아마카스가 이사장이었던 1942년 제작된 영화 가운데 「영춘화(迎春花)」가 있다. 이는 쇼치쿠와 만영의 공동 작품으로 감독은 사사키 야스시(佐々木康), 연출은 이와사키 아키라(岩崎稔)와 시미즈 히로시(清水宏)였다. 그 내용은 봉천(奉天)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조카인 무라카와(村川)(고노에 도시아키, 近衛敏明)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그를 둘러싼 백려(白麗 : 이향란, 李香蘭)와 야에(八重: 고구레 미치요, 木暮實千代)의 삼각관계로 발전하지만, 무라카와는 그들의 거들도 보지 않은 관계로 백려와 야에는 봉천을 떠나고 만다.

이향란은 만영의 톱스타로서 가와키타 나가마사(川喜多長政)가 상해에서 경영하는 영화 배급사 중화전영(中華電影)과 영화제작회사인 중화연합제편유한공사(中華聯合製片有限公司, 略称中聯)와 관계하면서 「万世流芳」에 출연하였고, 주제가인 「賣糖歌」를 불러 일약 슈퍼스타로 주목받게 되었다. 한편, 코구레는 이향란과의 공동 출연으로 먼 친척이 되는 만철 이사인 와다 히데오(和田日出男)와 결혼하였다. 코구레의 경우, 여배우라고는 해도 패전 이후 귀국 당시에는 상당히 고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코구레 미치요 씨가 남편과 함께 피난하던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정말 일세를 풍미했던 명배우일까 의심할 정도로 야위어 보였다. 그럼에도 욕실에서 나와 맥주를 마신 뒤에는 여배우의 향기가 어딘지 모르게 감도는 것 같았다(모리시게 자전:森繁自伝)」고 한다”. 귀국향이었던 코로항에서 그들을 맞이한 당시 신경 방송국의 아나운서이자, 나중에 명배우 모리시게 히사야(森繁久弥)의 솔직한 감상이었다.

만영 소속으로 스타를 꿈꾸었던 또 다른 인물은 아시다 신스케(芦田伸介)였다. 아시다도 1937년 도쿄외국어학교를 중퇴한 이후 신경 방송극단에 입단, 1943년 만영을 통해서 영화에 데뷔하였다. 1948년 만주에서 귀국한 뒤에는 극단민예(劇団民芸)에서 활약하였고, 1961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 「7명의 형사(七人の刑事)」와 1966년에는 「빙점(氷点)」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다.

2. 음악

만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일본인 음악가는 도가이린타로(東海林太郎)와 오자와 세이지(

小澤征爾)이다. 전자는 가수, 후자는 지휘자였다. 같은 음악가라고는 해도 시대와 장르가 모두 달랐다.

쇼지 타로는 1898년에 아키타市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반대로 국립동경음악학교 입학을 단념하고 1917년에 와세다대학 상학부 예과에 입학하여 1923년 와세다대학연구과(현, 대학원)의 수료와 동시에 만철조사부에 취직하였다. 쇼지 타로가 처음 착수한 조사는 ‘만주의 산업조합’이었다. 이 조사 보고서는 1925년 만철조사자료 제43편으로 출판되었다.

쇼지 타로는 1927년 조사과를 떠나 만철의 철령(鐵嶺) 도서관장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정열은 식지 않았고, 1930년 만철을 사직한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음악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34년 「아가기의 자장가(赤城の子守唄)」로 가요계에 혜성처럼 데뷔하여, 50만장의 음반을 판매하였다. 그 해 말에는 「국경의 마을(國境の町)」로 히트곡을 발표하는 등 가요계 제1인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나 쇼지는 「赤誠의 자장가」를 부를 때는 야쿠자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도 한다(『一唱民樂』). 한편, 「썰매의 종마저 슬프게 울리는 눈 덮인 황야여, 마을의 불빛이여, 산 하나 넘으면 다른 나라의 별이 얼 것만 같은 국경」
「橇の鈴さえ 寂しく響く 雪の荒野よ 町の灯よ 一つの山越しゃ 他國の星が凍りつくよな國境」처럼 국경 마을은 쇼지가 거주했던 만주의 풍경 가운데 하나였다. 이미 부동의 스타가 된 1938년 5월 쇼지가 「在만 황군 위문단(在滿皇軍勇士芸能慰問團)」 일원으로 北만주 흑룡강 국경부대의 위문공연에 참가하였다. 당시 쇼지가 병사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병사들도 흐느꼈고 쇼지도 눈물을 참으며 노래를 불렀다고 당시 위문공연을 동행했던 아오바 쇼코(靑葉笙子)는 회상하고 있다(『東海林太郎 影像の世界』).

한편, 악단 지휘자였던 오자와 세이지였다. 세이지라는 이름은 관동군 참모이면서 만주사변의 기획 실행자였던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와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온 이름이다. 세이지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민족협화운동에 참가하면서 만주사변 이후 사카가키 세이지로와 이시하라 간지와 행동을 함께 하였다.

오자와는 1935년 봉천에서 태어났다. 어릴적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서는 만주가 일본 본토보다는 좋았던 것 같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동청철도(東清鐵道)의 거점인 하얼빈을 건설 중이었던 1908년 조직된 동청철도 교향악단이었다. 동청철도 교향악단은 신해혁명 이후 1912년 동지철도(東支鐵道)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바뀌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 엠마누엘 메텔 같은 우수한 망명 유대인 지휘자를 영입해서 음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신인 작곡가였던 야마다 고사쿠(山田耕筰)도 1925년 4월 그들을 일본에 초대하였다. 메텔은 1926년 일본에서 음악 지휘자로 활약하였다.

당시 봉천에서도 만주의대 오케스트라가 활약하고 있었고, 카이사크의 친동생이었던 오자와 시즈카(小澤 靜)가 1931년부터 호른을 연주하였다. 세이지가 태어난 곳이 만주의대였

던 점을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자와 세이지가 태어난 1935년에 하얼빈을 거점으로 했던 동지철도는 만주국에 양도되어 하얼빈 교향현악협회가 설립되어, 1939년 3월 일본을 방문하였다. 1942년에는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맞이하여, 신경음악단의 이사장이었던 아마카스의 지원으로 만주 각지에서 연주하였다(『王道樂土の交響樂』) .

1944년 지휘자였던 아사히나 타카시(朝比奈隆)도 아마카스의 초청으로 만주를 여행하였다. 패전을 하얼빈에서 맞이한 아사히나는 다른 일본인과 같이 힘들게 1946년 하카타항에 도착하였다. 1945년 5월 가족도 만주에 건너갔기 때문에 겨우 3개월 만에 패전국민이 되었으니 만주에 간 것이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부인에게 혼나더라도 아사히나에게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겠다(『樂は堂に満ちて』). 즉, 정세 판단이라는 것이 음악처럼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3. 연극

만주에서 문화 운동에는 좌익 운동의 기운이 감돌지만, 연극 운동도 그 예외는 아니다. 만주에서의 연극, 특히 신극(新劇)의 탄생은 1935년 결성된 대련 예술좌(극장)였다. 1935년 신흥극단(新協劇團)을 탈퇴하고 만주에 건너온 후지카와 나츠코(藤川夏子)는 만철 조사부의 스즈키 고헤에(鈴木小兵衛)의 의뢰로 나카니시 이사오(中西 功), 시로모토 마사나리(代元正成), 大連日日新聞의 가와무라 요시오(河村好雄), 만철 도서관장인 하기사와 미노루(萩澤稔), 이시가와 하루오(石川春夫) 등과 대련 예술좌를 결성했다(『私の歩いた道』). 이들 결성에는 대련지역의 좌익 문화인이 다수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즈키는 당시 만철 조사부 소속으로서 나카니시와 시로모토는 조사부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만철 도서관장인 하기사와와 이시카와를 더해 만철 사원이 후원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신극 운동은 1909년 츠보우치 쇼요(坪内逍遙) 등에 의한 문예협회 연극연구소의 발족과 시마무라 호우게쓰(島村抱月), 마쓰이 스마코(松井須磨子) 등 신극 배우 양성으로 시작되어 관동대지진 직후인 1924년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内薫), 히지카타 요시(土方与志) 등에 의한 쓰키지 소극장(築地小劇場) 건설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기를 맞이하였다. 관동대지진에 의해 도쿄 전멸의 소식을 들은 베를린 유학 중의 히지카타는 귀국을 결의하고 유학비용 잔액으로 300명 수용 정도의 극장 건설을 결의하고 있었다(『回想のプロレタリア演劇』). 그 후, 프롤레타리아 예술 운동의 발발·확대와 함께 쓰키지 소극장을 무대로 했던 운동도 확대되면서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후지카와가 당시 일본에서 소속했던 신흥극단은 사실 1921년 결성된 좌익 극장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이것이 좌경화의 색채를 강화하는 가운데 1931년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의 결성과 함께 활동을 전개했지만, 1934년에 연맹 탈퇴, 좌익 극장의 중앙 극장으로 개칭, 구좌익 극장, 신쓰키지, 미술좌 등 합병을 통해서 결성된 것이 신경극단인 것이다.

신경극단은 리얼리즘 연극을 목표로 하였던 후지카와 등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탈퇴해서 만주로 그 본거지를 옮겼던 것이다.

후지카와 등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5년간 대련 예술좌를 거점으로 만주 전역에 걸쳐 활동을 전개한 이후 그녀의 자전에 의하면 그녀는 1936년 체호후작 「결혼의 신청(『結婚の申し込み』)」, 「비로드의 장미(『天鷲絨の薔薇』)」에서 주역을,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작 「씩어가는 집(『腐れかけた家』)」에 출연, 1937년에는 체호후작 「숙부 워냐(『叔父ワーニャ』)」에 출연, 1939년 드테작 「아를의 여자(『アルルの女』)」에게 출연하였다. 한편, 단지 연극만이 아니고, 신경 방송극단에 초대되어 기쿠타 가즈오(菊田一夫)작 「꽃 피는 항구(『花咲く港』)」에 출연, 모리시게, 아시다 등과 모란강, 길림, 하얼빈, 치치하얼(齊齊治爾)、승덕(承德)、봉천(奉天)、대련 등지에서의 공연에 참가하였다. 모리시게는 1936년 와세다 대학을 중퇴한 이후 도쿄 다카라즈카극장(東京宝塚劇場)에 입사, 1939년에는 NHK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서 만주전신전화(주) 신경 방송국에 취직, 그 때 후지카와와 강연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패전 이후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 모리시게는 1948년 기쿠타 가즈오의 히트작 「종이 울리는 언덕(『鐘の鳴る丘』)」에 출연하였다. 패전 이후 밀리지 않는 1급의 스타가 되었던 그들도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면서 전황 악화와 함께 연극 활동도 곤란하게 되면서 정체를 피할 수 없었다. 후지카와도 1941년 이후에는 대련 예술좌와는 거리를 두면서 농사에 전념했다고 한다.

패전 이후 이야기이지만, 대련 예술좌 전후 제1회 공연은 체호후의 「벚꽃의 뜰(『櫻の園』)」이었다. 후지카와는 그 뒤 1946년에는 일본인 노동조합 문화 선전부공 대원으로 활동했고, 남편의 사후 1947년 제 1 차 귀환선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4. 문 학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만주의 문학계도 대련을 그 발상지로 하였다. 즉, 대련의 문학을 꽃피우게 한 것은 다름아닌 만철이었다.

일본인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일본어 동인지 「新天地」가 대련에서 발행된 것은 1911년이었지만, 이 잡지는 1945년 5월 만주국의 붕괴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신천지」의 창간은 만철 퇴직 사원이었던 나카무라 요시노리(中村芳法), 가미무라 테츠야(上村哲哉) 2명이었다. 주로 중국이나 상하이의 시사 정보나 각종 평론을 게재했다. 만철 조사부원이었던 난고 타쓰네(南郷龍音)의 일기를 보면 「신천지」에 기고한 원고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지만, 在만 일본인 지식층의 대부분이 이 잡지에 기고하고 있었다. 또한, 대련에서 동인지 「문학」이 발행된 것은 1932년으로, 이 잡지를 무대로 오오타니 타케오(大谷健夫), 다카기 교우조(高木恭造), 후루카와 겐이치로(古川賢一郎), 기자키 류(木崎 龍) 등이 활동했

다. 그러나 1942년 「작문(作文)」으로 이름을 바꾸어 「芸文」에 흡수되었다.

만주국도 건국 6년이 지나 수도 신경이 중심지가 됨에 따라 신경에도 문예 잡지가 탄생하였다. 기타무라 겐지로(北村謙次郎)와 기자키 류(木崎龍) 등의 동인이 「滿州浪漫」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1938년이였다. 만주국 수도에 탄생한 잡지는 「만주국의 공인 이데올로기」와 「만주국의 건국 신화, 건국 정신을 로맨틱하게 노래」하였다(『文學から見る「滿州」』). 만주의 잡지 동인(同人) 가운데는 일본인 이외의 만주 문학자로 활약했다. 중국 문학의 중심 인물로서 「平沙」, 「新生」 등의 작품을 남긴 고정(古丁)이나 「초록의 골짜기(綠の谷)」 등 대표작으로 만주의 향토 문학을 이끈 산정(山丁), 향토의 현실을 그린 속군(肅軍) 등이 그러하다. 또한, 조선인 작가라도 한글로 작품을 발표한 신형철(申瑩澈), 김조규(金朝奎) 일본어로 발표한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 최환기(崔喚基) 등이 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의 결속을 요구하는 문학자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가 도쿄 제국극장에서 개최된 것은 1942년 11월이였다. 참가자는 만주국의 고정, 야마다 세이자부로(山田清三郎) 등 6명, 남경 중화민국은 쿠사노 신페이(草野心平) 등 12명, 몽고 3명, 대만에서 4명, 조선에서는 카야마 미츠로(香山光郎)=이광수(李光洙) 등 5명이였다. 그들은 메이지 신궁, 야스쿠니 신사, 이세 신궁을 참배하고 「대동아 정신」의 「발로」를 노래하였다. 제2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는 1943년 8월 도쿄 제국극장과 대동아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때도 일본 이외에 조선, 중국, 몽고, 대만의 대표가 참가했고 제1회처럼 신사 참배를 실시하였다. 제3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는 1944년 11월 중국의 남경에서 개최되었다. 조선, 일본, 중국, 만주에서 대표가 참가했지만, 대만의 불참으로 전체적인 회의의 형태를이었다고 한다. 제4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는 1945년에 만주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였지만, 패전이 가까워지면서 무산되고 말았다(『滿州崩壞』).

5. 스포츠

만주의 스포츠를 지원했던 것도 만철이며, 구체적으로는 만주클럽이 발족한 1924년 이후였다. 이 시기 만철은 창업 20년으로 경영이 안정되고 종업원의 자부심과 위안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클럽의 활동은 야구, 검도, 유도, 스모, 테니스, 수영, 배구, 농구, 마술, 스케이트가 있었고, 스포츠 이외 회화, 문학, 음악 등 문화 활동도 포함하였다.

만철구락부를 유명하게 한 것은 아마추어의 도시 대항 야구대회였다. 1927년 제1회 도시 대항 야구대회에 참가한 만철구락부(滿鐵俱樂部)은 투수 고다마 마사오(兒玉政雄)의 역투로 우승하는 쾌거를 올렸다. 같은 시기인 1925년에는 동경 6개 대학 리그가 결성되면서 1926년에는 진구구장이 완성되었고, 아마추어 야구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제2회 대회에서는 대련실업단(大連實業團)이 우승했고, 제 3회 대회에서는 다시 만철구락부가 우승기를 손에 넣었다. 1920년대 후반 아카시아의 대련은 야구의 대련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여름 스포츠의 대명사가 야구라면, 겨울 스포츠는 스케이트였다. 스케이트는 메이지말기에 유럽에서 대련으로 유입되었다. 그 후 쇼와 초기에는 만주 전체 스케이트 링크 수는 15곳에 이르렀다. 1942년 만영이 제작한 영화 「영춘화」에는 이향란이나 고구레 미치요가 스케이트를 즐기는 정면이 등장한다. 겨울 그라운드에 제방을 만들어 물을 뿌린 다음날 아침 훌륭한 스케이트 링크에서 만주 국민들은 스케이트를 즐겼다.

만주의 스포츠를 지원한 또 다른 기관은 만주건국대학(滿州建國大學)이었다. 1937년 8월에 모집, 입시를 통해 1938년 5월 제1기생이 입학했다. 이는 이시하라 간지의 「아시아 대학 구상」을 배경으로 하였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쓰지 마사노부(辻政信) 등이 창립에 관여하였다. 건학을 담당한 것은 히라이즈미 키요시(平泉澄), 가케이 가쓰히코(筧克彦), 사쿠타 소이치(作田莊一),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의 4명의 박사였고, 「5족협화 공동생활」, 「만주국 대상의 학과 배치」, 「훈련장에서의 교육」, 「교육의 목적은 진리의 탐구보다 도덕의 교양」을 건학 정신으로 출발하였다. 나아가, 무도가 필수화되면서 검도, 유도, 궁도, 유검도, 마술, 스모 등 과목이 개설되었다. 과목이 이색적이라면 그것을 담당하는 교원도 이색적이었는데, 유도의 후쿠시마 세이자부로(福島清三郎), 합기도의 우에시바 모리헤이(植芝盛平)와 도미키 겐지(富木謙治) 스모의 텐류(天龍)가 포함되고 있었다. 우에시바는大本교(大本教)의 신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전설적 무예자의 이름을 얻는 한편, 토미키는 후에 와세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강의하였다. 이색 중의 이색은 스모의 텐류일 것이다. 1932년 1월 ‘춘추원 사건(春秋園事件)’으로 스모계 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2월 신흥 역사단을 결성했지만, 1937년에는 시국이 급변해 해산하고 말았다. 그 후, 1938년 1월 만주로 건너와 건국대학 체육고문이 되었다. 그는 1940년 6월 만주스모회를 발족시켜, 몽고 스모를 장려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만주 준스모대회를 15일 간에 걸쳐 개최했다. 이때는 요코즈나(横綱) 테루쿠니(照國)가 우승하였다. 7월에는 만주국 신경에서 만주국 황제공헌봉납 건국충사당 스모 대회를 개최하였다(『武道の教育力』).

앞서 아마추어 야구 이야기를 했지만, 1940년 여름에는 「滿州日日新聞」의 초청으로 만주 리그가 개최되었다. 심양, 대련, 신경에서 함께 72경기를 통해서 자이언츠가 우승했지만, 가와카미 테츠하루(川上哲治)가 수위 타자에게 빛났고, 타이거즈의 미와 하치로(三輪八郎)가 거인(巨人)전에서 노히트·노런을 기록하는 등,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면서, 만주국의 스포츠도 일본처럼 궁지에 몰렸다. 국민적 인기를 자랑한 야구, 도시 대항 야구는 중지 혹은 연기가 계속되었고, 「아웃」, 「세이브」 등 적성 영어의 사용도 금지되었다.

한편 스포츠의 국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만지의 스포츠 교류가 진행되었다. 1939년 9월 제 1회 일만지 운동대회가 장춘과 심양에서 개최되었다. 경기 종목은 육상, 축구, 농구, 탁구, 무술 등이었다. 제 2회 대회는 1940년 6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제 3회 대회는 1941년 8월 장춘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대회가 개최된 1940년은 기원 2600년을 기념한

무도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1942년에는 일본 보도부가 주최가 되어 상하이에서 일본, 중국, 만주, 독일, 이탈리아, 인도, 태국, 필리핀 8개국의 국제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Ⅲ. 문학 활동의 동향 - 작가의 이동 -

문학의 중심 이동 문제를 문학 활동에 한정해서 살펴보자. 문학자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남아있는 다수의 만주국 시기의 문학 작품들을 모아서 『日本植民地文學精選集』(ゆまに書房, 2001년)으로 출간했다. 이 가운데는 만주국 시기 다수의 문학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작품과 가와무라의 『滿洲崩壊-「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文藝春秋, 1997년)에 근거해서 각 작가의 활동을 거점의 이동문제라는 시점에서 검토해 보자.

우선, 1930년대 후반 이후 신경을 활동 무대로 하는 작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야마다 세이자부로(山田清三郎), 기타무라 겐지로(北村謙次郎), 스즈키 게사키치(鈴木啓佐吉), 다케우치 쇼이치(竹内正一), 우시지마 하루코(牛島春子) 등이다. 야마다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1930년대 전반까지 일본에서 활동했지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뒤에는 ‘전향’을 선언하고 1939년 만주로 건너와 신경에 거점을 두고 滿洲新聞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1945년 패전 후에는 소련군 포로로서 시베리아 강제노동을 거쳐 일본으로 귀환했다. 그는 만주신문의 편집위원 시기에 신경에서 만주국 정부가 내건 재만 민족의 협화를 목표로 해서 신문 소설을 통해 일본, 러시아, 조선, 중국인 작가의 조직화를 꾀하였다.

기타무라의 경우, 1910년대 아버지의 근무관계로 대련에서 소년시기를 보냈다. 그 후 청년기에는 대련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작가생활을 계속했다. 1938년부터는 신경으로 이주해서 만철에 근무하면서 작가활동을 본격화하였다. 그의 경우, 대련에서 신경으로 이주한 것이 작가활동을 적극화하는 계기가 된 사례이다.

스즈키도 기타무라와 동일한 궤적을 걷는다. 미야기현 출생인 그는 1935년 만주로 건너온다. 대련에서 『滿洲公論』 편집에 종사하지만, 그 후에 신경으로 옮겨와 만주전전공사(滿洲電電公社)에 근무하면서 작가활동을 전개했다.

다케우치는 1920년대 중반 와세다를 졸업한 뒤에 만주로 이주해서 대련의 만철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작가활동을 개시했고, 그 뒤 하얼빈으로 이주해서 작가활동을 계속하였다.

우시지마는 보기 드문 여성작가였지만, 그녀의 경우에는 1930년대 일본 후쿠오카에서 노동조합운동에 종사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작가 활동을 전개했다. 그 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뒤 전향해서 1936년 결혼과 함께 만주국 관리였던 남편을 따라 만주로 건너와 작가활동을 개시했고, 1938년부터 신경에서 작가활동을 계속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작가들 가운데 다수가 신경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좌익 활동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지만, 투옥되어 전향한 뒤 출옥해서 만주로 건너온 자가 많았다. 당시 만주는 일본 국내와 비교하면 일본인

에게는 언론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고 따라서 비교적 용이하게 취직할 수 있었다. 특히, 메이지 이래의 전통을 계승한 대련보다 신흥도시 신경이 취직의 기회가 많았고, 정부기관의 경우, 타민족보다 일본인이 우월한 조건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직장을 찾았고, 생활의 안정을 얻은 뒤에 작가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메이지 이후 오랜 전통, 특히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통이 강했던 대련과 달리 신경의 문화적 토양은 만주국 수도에 어울리게 국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야마다 세이자부로는 만주신문 편집원으로 문학작품을 신문지상에 소개했는데,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복합 민족국가라 불리는 이 나라의 각 민족 작가들을 신문에 동원해서 널리 세상에 소개함과 더불어 혈연을 달리하는 각 작가가 상호 격려하고 경합하면서 이 나라의 문학을 높여 진정 이 나라에 어울리는 다종 다채로운 문학성과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山田清三郎編 『日滿露在滿作家短編選集』 ゆまに書房 復刻版) 이라 하였다. 실로 만주국이 내건 5족 협화의 이데올로기를 문학면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이 집필한 작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만주국의 국책에 부응한 것과 정치색이 적지 않은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선인으로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 본명 장환기(張喚基)도 신경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이다. 그는 조선어보다 일본어를 잘해서 조선어로 발표한 작품은 없다. 그의 작품을 비교적 잘 나타낸 것은 「創作 出世」 일 것이다. 1939년 선무월보(『宣撫月報』)에 게재한 단편소설이다. 선무공작 보고집이라 내용도 당연히 일본군의 선전 일색이었다. 「창작 출세」도 주인공인 내(私)가 훌륭한 만주국 군인이 되어 왕도낙토를 실현하는 결의를 기술했던 것으로 그 결의를 굳히는 순간, 나는 ‘상쾌한 기분’이 되었다는 줄거리이다.

일본 국내에서 좌익 활동을 전개하고, 전향한 뒤 만주국에 건너와 다시 전개한 좌익운동의 죄목으로 만주국의 치안유지법에 의해 수감된 작가도 있었다. 노가와 다카시(野川 隆)나 하나와 히데오(塙 英夫) 등이다. 그들은 신경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만주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을 하면서 빈농 구제운동을 전개했다. 1941년 말 관동군 헌병대로부터 협동조합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간주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리더였던 사토 다이시로(佐藤大四郎) 등과 함께 검거, 투옥되었다(小林英夫, 福井伸一 『滿鐵調査部事件の真相』 小學館, 2006년). 그들의 운동에 관해서는 하나와가 일본의 대표적 대중잡지인 『中央公論』에 검거 직전인 1941년 발표한 「알칼리 지대」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알칼리 지대」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북만주 빈곤지대를 무대로 그들이 전개한 협동조합운동을 묘사한 것이다. 노가와는 1944년 감옥에서 병사하였다.

신경 이외의 거점에서 활동하며 작품을 발표한 인물로는 히야마 리쿠로(檜山陸郎)가 있다. 그는 노가와나 하나와처럼 좌익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1941년 약 1년간 만주의 서북단 만주리(滿洲里)에 체재하였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 귀국해서 주로 만주국 서북

부의 호른바일 평원을 무대로 하는 작품을 남겼다. 이 외에 단기간 만주를 여행해서 일본으로 귀국 이후 다수의 작품을 남긴 작가도 없지 않지만, 그들은 본고와 직접 관계가 없기에 생략한다.

IV. 문화 활동의 거점 이동

이상, 영화, 음악, 연극, 문학, 스포츠 5개 분야의 문화 활동을 개관하였다. 1930년대 이후 발생한 새로운 현상은 만주에서 문화 활동의 거점이 메이지(明治) 이래의 거점이었던 대련(大連)으로부터 신경(新京)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에는 1937년 8월 장춘에 새롭게 영화 제작사 만영(滿映)이 설립되면서 당시 만철영화반(滿鐵映畫班)이 장춘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거점도 장춘으로 이동했다.

만주의 소설도 그 기원은 대련에 두고 있다. 그 전형으로 일본어 잡지 「新天地」가 있다. 「신천지」는 1911년 대련에서 발간된 이래 1945년 5월까지 계속 되었지만, 그 출발 거점은 대련이었다. 그 외 1932년 동인지 「文學」이 발간되었지만, 그 활동과 출판 거점도 대련이었다. 그러나 수도가 신경으로 이전한 1932년 이후 서서히 문학 활동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신경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전형적인 사례는 1938년 등장한 「滿州浪漫」이었다.

스포츠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만주의 스포츠를 지원한 것은 1924년 만철에 부속해서 대련에 설립된 만철구락부(滿鐵俱樂部)였다. 만철구락부의 대표 스포츠는 야구였다. 1927년 제1회 도시 대항 야구 대회에 참가해서 만철구락부가 우승했고, 제3회 대회에서도 만철구락부가 우승했다. 그 외에도 검도, 유도, 스모, 테니스, 수영, 배구, 농구, 마술부가 만철구락부에 설립되었고, 대련이 그 중심지였다. 그러나 만주국 수도가 장춘으로 설정되면서 1937년 건국대학(建國大學)이 설립되었고, 새로운 스포츠 중심이 탄생하였다. 건국대학에는 무도가 필수과목이었고, 검도, 유도, 궁도, 유검도, 마술, 스모 등이 개설되었다.

대련에서 신경으로 문화 거점의 이동은 그때까지 문화 활동의 담당자가 만철에서 만주국으로 이행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만주국 성립에 따라 만철 중심 시대가 끝나고 만철 개조 등을 거쳐 만철이 그때까지의 「소국가(小國家)」에서 본연의 철도 회사로 축소해 나갔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철을 대신해서 만주국이 문화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 이행 과정은 만철 영화반의 스태프가 만영의 스태프로 바뀐 것처럼 만철이 쌓아올린 문화 전통 위에 신경 문화가 꽃 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련 중심의 만철 문화에 대해서 신경의 만주 문화는 국권적인 분위기가 농후하였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중국 동북 문화의 역사는 반세기에 이르지만, 전반 30년은 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문화 활동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후반 20년은 그 중심이 대련에서 만주국 수도 신경으로 이동하였다. 그 변화 과정은 특히 문학 혹은 영화 등에서 현저하였다. 1930년대 이후 전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영화와 문학인 것을 생각하면, 그 이행은 어찌면 당연했다고 할 수 있겠다. 연극과 스포츠도 영화나 문학 만큼 현저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동의 개략을 묘사한 것이다. 즉, 만주국의 문화적 특징을 지역 이동의 시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37年 滿洲國 總理의 朝鮮 訪問에 대한 一考察

- ‘鮮滿一如’의 文化政治 -

임성모 (연세대)

중일전쟁 발발 전야인 1937년 4월, 식민지 조선은 마치 만주사변 직후의 일본처럼 ‘만주 열기(Manchurian fever)’에 사로잡혔다. 도문(圖門)회담 이래 현실화되고 있던 ‘鮮滿一如’의 경제사절로서 만철(滿鐵)의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총재가 흥남 등 북부조선을 시찰하고 간¹⁾ 직후, 이번에는 만주국 국무총리 장징휘(張景惠)가 정치사절로서 경성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상징적이게도 장 총리의 조선 방문 일정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의 도지사회의 훈시, 즉 ‘선만일어’ 훈시가 있던 4월 20일에 시작되었다. 또 만주국은 이날 부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이자 상업은행 두취(頭取)인 박영철(朴榮喆)을 만주국의 초대 명예영사로 임명하면서 만주국 경성 총영사관을 개설했다.²⁾

4월 29일까지 이어지며 조선의 언론을 떠들썩하게 수놓았던 장징휘 총리의 조선 방문은,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조명된 적이 없었다.³⁾ 이는 만주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발표는 만주국 총리 조선 방문의 구체상에 대한 실증을 토대로 거기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 조선인 사회의 반응, 그리고 방문과정에 엿보이는 ‘문화정치’적 측면 등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 급조된 조선 방문

장 총리 조선 방문의 뉴스는 이미 4월초에 ‘4월 22일경 방문 예정’으로 신문지상에 보도

1) 『松岡滿鐵總裁 東上途中來訪』 『每日申報』 1937.4.9 조간 2면; 『滿鐵も提携へ-松岡總裁慎重に視察』 『京城日報』 1937.4.11 조간 5면.

2) 『滿洲國名譽總領事(初代) 朴榮喆氏에 任命-鮮滿通商關係의 緊密化로 二十日附로서發令』 『每日申報』 1937.4.21 조간 3면.

3) 참고, 『중일전쟁기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201, 2009의 마지막 장에서 시론적으로 언급된 것이 유일한 연구이다. 이 발표는 이 시론적 서술을 토대로 만주국 총리 조선 방문의 구체적 경과를 실증하고 방문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정치’의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자료로는 당시의 주요 일간지(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오사카마이니치 조선판, 오사카아사히 조선판 등)를 기본으로 기타 잡지(삼천리, 조선공론) 등을 이용했다. 일간지 관련기사의 수집과 정리에는 노주은, 강희주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고 관련 공문서의 수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발표는 불가피하게 중간보고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되었다. 방문 일정을 사전교섭하기 위해 신경 주재 총독부 핫토리(服部) 사무관이 4월 7일 경성으로 와서 총독부 아이카와(相川) 외사과장 등과 제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⁴⁾ 당초에 방문 코스는 신경에서 출발, 간도를 경유해서 북부조선 공업지대를 시찰한 뒤 경성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아마도 치안 문제 때문이었는지 예정 코스는 신경에서 신의주를 거쳐 경성에 도착한 뒤에 북부조선 시찰을 하는 일정으로 변경되었다.⁵⁾

4월초까지도 조선 방문의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신문보도를 통해서 확인된다. 첫 번째는 장징휘가 도쿄를 방문하는 길에 조선을 들를 것이라는 보도였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의 조선 서북판에는 위의 핫토리 사무관 경성 방문을 언급하면서 장 총리가 도쿄 방문 도중에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⁶⁾ 두 번째는 만주국 宮內府 大臣 시치아(熙洽)와의 ‘三巨頭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였다.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조선판은 장징휘 총리가 21일 경성에 도착할 것이며 이때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의 동생인 푸지에(溥傑)의 결혼식에 참석차 도쿄에 가 있던 시치아가 22일 합류해서 미나미 총독과 선만일여 회담을 할 것이라 보도했다.⁷⁾

푸지에는 4월 3일 도쿄에서 귀족 출신의 일본인 부인 사가 히로(嵯峨浩)와 ‘日滿親善의 국제결혼’을 치렀는데, 이 혼담에는 당시 관동군 사령관이었던 미나미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그러나 이 보도와는 달리 시치아는 4월 15일 경성을 방문해 미나미 총독과 회견을 하고 다음날 만주국으로 귀임했다.⁹⁾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으나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을 때, 어느 모로 보나 장징휘 일행의 조선 방문은 급조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장징휘 총리 일행의 공식 스케줄은 4월 20일(화)부터 29일(목)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 참조 : 비교고찰의 필요성

장 만주국 총리의 조선 방문 :	1937.4.20~4.29
마쓰오카 만철 총재의 조선 방문 :	1937.4.12~4.16
장 만주국 총리의 일본 방문 :	1937.11.9~11.21
미나미 조선 총독의 만주국 방문 :	1941.4.9~

- 4) 『鮮滿一如, 國境打破에 兩地巨頭重要會見-張滿洲國總理, 來二十二日頃來城 南總督과 具體的意見交換』 『每日申報』~1937.4.8 조간 2면, 석간 1면; 『滿洲國張總理二十二日入城-新興北鮮を經由して』 『京城日報』~1937.4.8 석간 1면; 『張總理將訪朝鮮 月秒經由間島』 『盛京時報』~1937.4.10 석간 4면.
- 5) 『張滿洲國總理의 來京日程을 變更』 『朝鮮日報』~1937.4.11 석간 1면.
- 6) 『張總理と南總督 鮮滿一如を懇談 東京訪問の途來城』 『大阪朝日朝鮮西北版』~1937.4.8 5면.
- 7) 『鮮滿一如強化 三巨頭の顔合わせ-京城で歴史的會談』 『大阪毎日朝鮮版』~1937.4.10 1면.
- 8) 船木繁, 『皇弟溥傑の昭和史』, 東京: 新潮社, 1989, pp. 63-74 참조.
- 9) 『熙滿洲國宮相けふ京城入り-總督, 招待晚餐會を開く』 『大阪毎日朝鮮版』~1937.4.15 5면.

■ 조선 방문의 경과

1937년 4월 20일 오전 8시 프록코트 차림의 장징휘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신경역에 도착했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징휘는 각부 장관들(대사관 조선과장 高橋, 丁교통부 대신, 阮문교부 대신, 金 수도경찰청장, 松木 총무청 비서처장, 源田 인사처장, 向井 통계처장)의 배웅을 받으며 특급 히카리에 올라 조선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¹⁰⁾ 수행원은 국무원 총무청 차장 神吉正一, 총무청 정보처장 宮脇襄二, 비서처 경리과장 平山一男, 총리대신 비서관(통역) 松本益雄, 총무청 屬官 宮崎常井·内藤稔, 총무청 警佐 高槻正明, 총무청 촉탁 張煥相, 총무청 비서관 張書舫 등 모두 9명이었으며,¹¹⁾ 간도성장 金井章次, 민정부 총무 사장 大津敏夫도 총독부 도지사회의 업저버 겸 만주 강연(후술)의 연사로서 동행했다.

장 총리 일행의 출발보다 하루 앞서서 만주국 기자단이 경성으로 향했다. 국무원 출입기 자들로 조직된 國政俱樂部 기자단으로서 有岡(盛京時報), 安井(泰東日報), 福田(滿洲日報), 小林(滿洲報), 川上(大新京), 船越(國通), 木村(國通寫眞班), 金久保(讀買), 波多江(大阪毎日), 辛島(報知) 등 10명이었다. 이들은 19일 신경을 떠나 평양의 검이포 등 서부조선 지방을 시찰한 뒤에 경성으로 들어왔다.¹²⁾

신경을 출발한 장 총리 일행은 橋頭와 宮原역 사이에서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열차 안에서 1시간이 넘도록 복구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한때 일정을 전면수정하려던 일행은 다행히 복구가 신속히 완료됨으로써 다시 열차에 몸을 실었다.¹³⁾ 도중에 계관산역에서 경성일보 특파원 사토(佐藤) 기자가 합류하여 장 총리와의 열차 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사토는 조선인 이민에 대한 방침, 압록강 공동기술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특히 조선-만주국 간 관세철폐의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총리는 정치가다운 완곡어법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관세철폐의 실현 가능성 대목에서는 힘을 실어 긍정했다. 그리고 “이번 나의 경성 및 조선 각지 방문이 미나미 총독의 선만일여 대정신에 다대한 힘이 되고 선만수교의 획기적 약진을 거두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¹⁴⁾ 사토 기자는 5월 상순에 조선의 대표적 기업가 10여명이 만주국 산업시찰을 할 것이라고 귀뜸해 주기도 했

10) 『春雨煙る國都新京を張總理朝鮮に向ふ一驛頭に響く國歌に送られ鮮滿修交の第一歩へ』『京城日報』 1937.4.21 석간 2면.

11) 『隨員一行』『京城日報』 1937.4.22 석간 3면.

12) 『言論界にも鮮滿一如一滿洲國記者團來る』『京城日報』 1937.4.23 석간 2면.

13) 『安義官民の出迎裡に張總理安東に到着一途中山崩れの爲遲延 けふ愈よ京城へ!』『京城日報』 1937.4.21 조간 2면.

14) 『鴨綠江 國境線을 黑龍江까지 延長問題, 勿論 조흐나, 여게는 時日과 努力이 必要 - 滿洲國張總理 車中談』 『朝鮮日報』 1937.4.22 조간 1면.

다.¹⁵⁾

장 총리 일행은 예정시간보다 1시간 10분 늦은 오후 7시 20분에 안동역에 도착했다. 안동성공서의 벅쿠(別宮) 총무청장과 총독부의 무로타(室田) 외사과 사무관이 영접을 나와 있었다. 장 총리는 곧바로 (후술하듯이) 2월에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극장 ‘만주무대(滿洲舞臺)’ 현장으로 달려가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 뒤에 숙소인 안동호텔로 향했다.¹⁶⁾

이튿날 4월 21일 아침 안동역에서 특급 노조미로 갈아탄 장 총리 일행은 1시경 토성(土城) 부근까지 날아온 비행기 동포호와 체신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2시 33분 경성역에 도착했다. 동포호는 신용욱(愼鏞頊), 체신기는 박봉지(朴奉祉)라는 조선인 비행사가 조종하고 있었는데, 일행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경성역 환영인파의 만세 환호가 터지는 순간에 맞추어 ‘환영 장총리’라고 적힌 오색삐라를 역 상공에 흩뿌렸다.¹⁷⁾

경성역에는 일장기와 신오색기(만주국 국기)를 흔들어대는 3천여명의 환영인파를 배경으로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정무총감,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조선군사령관 등이 일행을 맞이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은 물론 총독부 문서과 영화반과 경성일보사 토키 뉴스반의 카메라맨까지 취재열기를 달구었다.¹⁸⁾ 일행은 마중을 나온 경성 주재 ‘만주국인’ 대표 12명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경성역장의 안내로 2층 귀빈실에 올라 관계 및 재계 인사들과의 접견을 마친 일행은 대기 중이던 자동차를 타고 남산의 조선신궁으로 향했다. 연도는 일장기와 신오색기의 물결로 넘실거렸고,¹⁹⁾ 경성역에서 남대문까지는 경성부내 36개 공사립 소학교생 약 2천 명이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²⁰⁾ 장징휘는 신사참배를 마치고 공식참배자 명단에 서명을 한 뒤에 시내를 둘러보고 봉찬전(奉贊殿) 벚꽃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서 곧장 총독부로 출발했다.²¹⁾ 3시 30분 조선 총독과 만주국 총리의 ‘역사적’ 회견이 시작되었다.

아이카와(相川) 총독부 외사과장의 안내로 총독 집무실에 들어선 장징휘 총리를 반갑게 맞이한 미나미 총독은 갓 임명된 만주국 명예총영사 박영철을 직접 장 총리에게 소개했고,²²⁾ 이어서 오노 정무총감이 총독부 각 국장들을 총리 일행에게 소개하는 등 30분에 걸

15) 조선일보는 총독부 외사과의 알선으로 만주산업경제시찰단이 약 2주간 만주국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滿洲經濟視察團 五月上旬出發』 『朝鮮日報』 1937.4.20 석간 8면.

16) 『安東에서 一泊 “滿洲舞臺”에 弔意』 『每日申報』 1937.4.21 조간 3면.

17) 『空からも歡迎の熱誠—愼飛行士は本社のピラを撒き 遞信機も勇躍參加』 『京城日報』 1937.4.21 석간 2면.

18) 『トーカーに納める總理入城の模様—京日ニュースにも輯録』 『京城日報』 1937.4.21 석간 2면.

19) 『兩地修好를 慶祝하는 頌滿一色 大長安-가가호호에 교차된 일만국기 軟綠花紅도 깃뭉속』 『每日申報』 1937.4.22 조간 3면. 또한 방문을 앞두고 ‘양국’ 국기 게양 방법 등이 홍보되었으며 만주국 신오색기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歡迎滿洲國張總理 兩國國旗를 달자-揭揚方法은 이리케』 『每日申報』 1937.4.18 조간 3면; 『五色의 國旗に羽!—張國務總의 入城を前に 飛ぶやうな 賣上き』 『京城日報』 1937.4.20 조간 7면.

20) 『南大門から驛へ 兒童出迎へ—日滿國旗を翳して』 『京城日報』 1937.4.21 석간 2면; 『萬歲萬歲 學童の旗の波—童心にも鮮滿一如』 『京城日報』 1937.4.22 석간 2면; 『日滿國旗 손에 손에 童心 귀여운 歡迎-경성역 압호로 장사진을 쳐서 府內 二千名 初等生』 『每日申報』 1937.4.22 석간 2면.

21) 『朝鮮神宮에 參拜 南山市 市街俯瞰』 『每日申報』 1937.4.22 조간 3면.

쳐 의례적인 인사를 마쳤다.²³⁾ 미나미는 언론사에 배포한 장 총리 환영사를 통해서 ‘나의 구우(舊友)이자 만주국 건국의 대공로자인 장 총리’가 조선의 유력자들과 만나 친선을 도모하고 각 방면을 시찰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만주국과는 특히 관계가 깊고 근대 진보의 제일선에 서 있는 북선(北鮮) 지방을 시찰하는 것”은 기쁘기 한량 없으며 조선의 관민일동(官民一同)이 환영하는 바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내가 평소 주장한 선만일여의 관계가 산업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국방에서 더욱 강화 확대될 것”으로 믿으며 이는 ‘일만 양국’을 위해 더 없이 좋은 일이 되리라고 덧붙였다.²⁴⁾

총독부에 이어 창덕궁 이왕직, 용산 조선군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한 장 총리는 5시 30분 숙소인 조선호텔로 가서 기자단과 회견을 한 뒤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내용은 1시간 뒤에 경성방송국과 신경방송국이 마련한 선만친선방송에서의 연설 내용과 거의 같았다. 담화와 방송연설에서 장정휘는 만주국 수립 이후의 현재적 관점과 떠나면 과거의 역사적 관점을 교차시키면서 조선과 만주국 간의 관계를 호소력 있게 강조했다. 먼저 현재적 관점에서는 이해 2월 안동에서 일어났던 대화재의 사례를 들어 조선과 만주국 간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부각시켰다.

일찍이 東三省 정권 시대에 국경의 장벽과 같은 존재였던 압록강과 두만강은 오늘날 鮮滿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변해 각종 시설이 필요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安東의 만주극장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신의주로부터 즉각 소방대가 응원하러 달려오고 평안북도 지사가 당일 거액의 구제금을 갖고 이재민을 위문하러 오는 등, 양자의 관계는 이해타산을 초월한 자연스런 추세 가운데 이미 一家의 관계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²⁵⁾

‘安東 만주극장의 대화재’라는 것은 1937년 2월 13일 오후 8시 20분에 안동시 최대의 극장 滿洲舞臺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를 가리킨다. 구정 연휴였던 관계로 극장에는 1,500명의 관객이 운집해 있었는데, 분장실의 촛불에서 비롯된 화재는 ‘불이야’라는 말이 ‘강도야’로 와전되어 문을 걸어 잠그는 통에 불길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급기야 2층이 무너지고 하나밖에 없는 비상구로 관객이 몰리는 아비규환이 연출되면서, 조선인 십여명을 포함해 무려 700명의 사망자를 낳는 초대형 참사가 빚어졌다.²⁶⁾ 당시 안동 주둔 일본군 수비대 20명이 치안 지원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출동했고 신의주 소방대도 화재 진압 응원차 안동으로

22) 『朴名譽領事を 總理에 紹介-장총리와 남총독의 회견석상 總督室內 劇的光景』 『每日申報』 1937.4.22 조간 3면.

23) 『感激にふるへる永遠の握手-南總督張總理 總督室で歴史的會見』 『京城日報』 1937.4.22 석간 2면.

24) 『日滿兩國のためこの上ない欣び-南總督談』 『京城日報』 1937.4.22 석간 1면.

25) 曹元煥, 『鮮滿一如と民族協和』, 奉天: 私家版, 1937, p. 47.

26) 『安東の劇場火事 百餘名死傷の慘 觀衆雪崩を打つて逃げ惑ひ 阿鼻叫喚の巷と化す』 『京城日報』 1937.2.14 조간 7면; 『朝鮮人死者도 十餘名 燒死者 實로 七百名』 『每日申報』 1937.2.16 석간 2면.

달려갔다.²⁷⁾ 다음날 美座流石 평안북도 도지사와 李 參與官이 안동성공서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으며, 15일에는 關口 내무부장이 지사대리 자격으로 성공서를 방문해 의연금 1천 엔을 전달했으며, 愛國婦人會 평북지부장을 대신해 부지부장이 적십자사 평북지부와 사회사업협회 평북지부가 거둔 의연금 5백엔을, 평북 금융조합이 1백엔을 성금으로 전달했다.²⁸⁾ 안동 대화재는 만주국은 물론 조선에서 대형건물의 소방체계를 정비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²⁹⁾

장징휘는 이렇게 만주무대 화재 당시의 협조관계를 사례로 만주국과 조선 간의 긴밀화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역사적인 ‘형제’ 관계로 끌고 들어갔다. 그 매개항은 다름 아닌 고구려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민족은 만주국의 중요한 구성분자의 일원으로서 현재 만주에는 백 수십만명의 조선동포가 만주제국 건국이라는 성스러운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 수백년전 고구려가 압록강의 동과 서에 걸쳐 광대한 국가를 세우고 문화를 빛낸 이래, 선만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그야말로 兄弟骨肉 사이라는 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이런 역사 위에서 만주제국의 건국에 의해 양자는 드높은 이상 아래 새로이 결합하여 영원히 변치 않을, 마치 滿鮮一家와도 같은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³⁰⁾

그는 교환방송이 끝난 뒤에 용산 총독관저에서 열린 총독 주최 환영만찬과 이왕직 초대 창경원 밤 벚꽃놀이에 참가하는 것으로 조선 방문 첫날을 장식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장 총리 일행은 도지사회의 방청,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 ‘만주 전람회’ 시찰, 교동(校洞)보통학교 등 교육기관 시찰, 경성 상공업자(동양척식, 선만척식, 조선은행, 식산은행, 상공회의소) 연합 초대연(이상 22일), 인천 항만과 영등포 공장지대의 시찰(23-24일) 등 바쁜 일정을 마친 뒤, 24일 오후 3시 50분 ‘북선(北鮮) 시찰 특별열차’에 올라 함흥, 주을, 나남을 거쳐 청진·나진·웅기, 즉 ‘북선 3항’ 시찰(장진강 수력발전소 시찰 포함)을 끝으로 9박 10일의 조선 방문 일정을 마감했다.

27) 『我守備隊出動す 新義州消防隊も應援』 『京城日報』 1937.2.14 석간 2면.

28) 『平北から見舞金 千六百圓贈る』 『京城日報』 1937.2.16 석간 2면.

29) 『百貨店等大建物の 非常時設備團東 安東縣劇場慘禍의 衝動으로 警務局에서 改善策講究中』, 『朝鮮日報』 1937.2.16 석간 2면; 『“滿洲舞臺”大火災로 興行規則을 促進 느저도 四日중에는 공포될듯 對岸의 火視不可能』 『每日申報』 1937.2.16 석간 3면.

30) 曹元煥, 앞의 책, pp. 47-48.

■ 문화정치의 양상 : 미디어 이벤트

(1) 경성일보사의 ‘만주 강연과 영화의 밤’

장 총리의 경성 방문에 맞춰서 경성일보사는 4월 22일 오후 6시 반부터 본사 3층 내청각(來靑閣)에서 ‘만주 강연과 영화의 밤’을 개최했다. 이 이벤트에서는 장 총리 수행 만주국 고위관료들과 총독부 외사과장의 강연과 함께 ‘약진(躍進) 국도(國都)’, ‘낙토(樂土) 신만주(新滿洲)’ 등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을 보였다.³¹⁾ 이들 기록영화는 모두 만주국 국무원 정보처가 제작한 것인데, 22일의 ‘만주 강연과 영화의 밤’ 이외에도 21일부터 25일까지 경성 시내의 영화관들에서 상영되었다. 즉 21일에 明治座, 團成社, 22일에 若草劇場, 黃金座, 23일에 喜樂館, 優美館, 24일에 浪花館, 中央館, 25일에는 京龍館에서도 관람할 수 있었다.³²⁾

(2) 交驩放送 : ‘電波의 선만일여’³³⁾

(3)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의 만주전람회

한편 혼초(本町)의 미나카이 백화점에서는 21일부터 만주전람회가 열렸다. 전람회의 정식명칭은 ‘장 총리 來鮮기념 만주전람회’로서 미나카이 6층의 갤러리에서 25일까지 5일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개최되었다. 전람회에는 만주국 정부 등이 출품한 3백여 점의 전시물이 출품되었는데, 만주국 건국 이래의 역사를 전해주는 각종 포스터, 만주국의 교통, 재정, 산업 관련 통계표, 그리고 지도에 전구로 표시한 재만조선인 분포도, 이민상황 관련 사진, 소학교 교과서, 만주 특산물과 복식, 인형 등이 전시되었다.³⁴⁾

그런데 만주전람회는 왜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의 어용백화점격인 미쓰코시(三越)가 아니라 그 경쟁사인 미나카이 백화점에서 개최된 것일까? 추측컨대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전람회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고 미나카이 입장에서는 만주국으로의 영업망 확대를 위한 포석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대구에서 창업된 미나카이는 1911년 본점을 경성으로 옮긴 뒤 조선 백화점 업계의 선발주자인 미쓰코시 경성 지점(1916년 개점, 1930년 신축, 도쿄 본점은 1914년)을 추월

31) 『滿洲講演と映畫の夕—二十二日、本社來靑閣』 『京城日報』 1937.4.18 석간 2면. 강연의 내용은 『만주국 民政 일반』(민정부 총무사장 大津敏夫), 『日滿관계에 관하여』(총무청 정보처장 宮脇襄二), 『간도성을 중심으로 한 재만조선인 사정』(간도성장 金井章次), 『조선과 만주에 대해서』(총독부 외사과장 相川勝六) 등이었다.

32) 『張總理歡迎の滿洲國映畫會』 『京城日報』 1937.4.21 석간 2면.

33) 이에 대해서는 만주국의 라디오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강희주의 분석이 기대된다.

34) 『滿洲展覽會—二十一日から三中井で』 『京城日報』 1937.4.20 조간 7면; 『一目でわかる新しき土の種々相—けふ蓋あけ滿洲展覽會』 『京城日報』 1937.4.21 조간 7면.

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했다. 1933년에는 본점(구관)을 지상 6층, 지하 1층의 르네상스식 건물로 증축하고 6층짜리 신관과 연결시켜 건평 2500평의 대규모 확장을 단행했다. 1937년 4월 현재, 미나카이는 경성 본점 외에 부산, 대구, 대전, 원산, 함흥, 흥남, 군산, 목포, 광주, 진주, 평양과 만주국 신경 등 12개의 지점에 종업원 2,369명을 거느린³⁵⁾ ‘조선과 대륙 최대의 백화점’으로 발돋움해 있었다.³⁶⁾ 만주전람회의 전국적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대규모 지점망을 갖춘 미나카이가 훨씬 더 적임자였을 것이다.

한편 미나카이의 만주 진출은 1933년 12월 신징에 가영업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34년에는 약 700평의 용달공장을 세워 만주관리소비조합에 피복을 납입했고 1936년 10월에 신관을 낙성하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다.³⁷⁾ 여기에는 제7대 조선총독 미나미지로(南次郎)와 미나카이 그룹 4형제의 셋째인 나카에 도미쥬로(中江富十郎)와의 막역한 관계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도미쥬로는 1905년부터 1930년까지 총무로 조선에 체재했고 그 뒤로는 교토 본사의 일을 전담하면서 만형인 가쓰지로(勝次郎)를 도와 자금 조달과 고위층 교섭을 주도했는데, 우가키와도 절친한 사이였지만 군부내 ‘우가키파’에 속하는 미나미와는 더 오랜 술친구였다. 미나미는 1929~30년 조선군사령관 당시부터 도미쥬로와 친분을 쌓았고 총독 부임전의 관동군사령관 시절(1934~36)에도 교분이 두터웠다. 미나카이의 만주관리소비조합 납입 등 판로 확충도 미나미가 뒤를 봐주었다.³⁸⁾ 미나카이가 이러한 연결망을 배경으로 만주국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만주전람회는 매력적인 이벤트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4) 장 총리의 창경원 夜櫻 참관

■ 조선인 사회의 반응

(1) 조선 현지

鮮滿拓植 參事 김동진(金東進), 영보(永保)합명회사 사장 민규식(閔奎植), 중추원 참의 최린(崔麟) 등의 투고.

최린 : “만주국 총리 장경혜씨는 동양평화를 위하여 일만일체를 역설하니 조선 인도 같은 의무와 권리를 줄 것으로 거기에 조금도 민족차별을 두어서는 실로

35) 경성 본점의 종업원수만 400명으로 미쓰코시 경성 지점의 종업원수(384명)를 능가했다.

36) 林廣茂, 『幻の三中井百貨店: 朝鮮を席卷した近江商人・百貨店王の興亡』, 東京: 晩聲社, 2004.

37) 『京城のデパート』 『朝鮮及滿洲』 353호, 1937년 4월.

38) 林廣茂, 앞의 책, p. 120.

통한(痛恨)할 바인즉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施政)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선과 만주의 지리와 역사적 관계를 심심히 고려하여 민족적 감정을 융화(融和)시켜 그곳에 있는 조선인이 평화스러운 가운데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하여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³⁹⁾

(2) 재만조선인

조원환(曹元煥) 奉天市公署 主事 겸 朝鮮人學校組合理事, 奉天 協和會 民會分會 常務員 겸 靑年團長의 경우.

- ①日滿不可分關係 : 日係官吏 批判, ‘충량한 일본국민’인 ‘재만조선인’ 강조 -- ‘指導民族’
- ②鮮滿一如 : ‘일본 영토의 일부’인 조선의 역사, 지리적 특수성 강조.
총독부 비판 -- 조선인 관리의 만주국 파견, 조선 내 ‘內鮮官吏’ 차별 시정.
- ③內鮮滿協和 : 중국인 및 자기 비판 -- ‘만주인의 조선인 멸시’ 시정의 민족협화.⁴⁰⁾

〈표〉 장징휘 만주국 총리의 조선 방문 일정 (1937.4.20~29)

일시	장소	내용
4월20일 (화)	오전 8시	新京 신경역 출발 (히카리 탑승)
	오전12시 28분	奉天 安奉線으로 환승. 葆奉천성장, 于사령관, 劉민정청장 등 영접
	오후 4시 40분	鷄冠山 사토(佐藤) 경성일보 특파원의 마중, 인터뷰
	7시 20분	安東 안동역 하차, ‘滿洲舞臺’ 화재현장 조의차 방문 무로타(室田) 총독부 의사과 사무관의 마중, 안내 안동호텔(숙소) 도착
4월21일 (수)	오전 6시 10분	안동역 출발 (노조미 탑승)
	오후 2시 33분	京城 경성역 도착
	3시	조선신궁 참배
	3시 30분	조선총독부에서 미나미 총독과 회견 신임 박영철(朴榮喆) 경성 주재 만주국 명예총영사 소개
	4시	창덕궁 이왕직(李王職) 방문
	4시 30분	고이소(小磯) 조선군사령관 관저(용산) 방문
	5시 30분	조선포텔(숙소) 도착, 기자단 담화 발표 경성 거주 만주국인 대표 2명을 초대해 금일봉 전달
	6시 30분	선만천선방송 : 장 총리(조선포텔) 오노(大野) 정무총감(야마토정(大和町) 관저)
	7시 30분	미나미(南) 총독 주최 환영만찬 (龍山 총독관저)
9시 15분	이왕직 초대 창경원 밤 벚꽃놀이 참석	

39) 『在滿百萬同胞의 發展을 爲하여 : 朝鮮에 온 張總理에게 呈하는 我等의 書』 『三千里』 1937년 5월 上旬호, p. 10.

40) 曹元煥, 『鮮滿一如と民族協和』, 奉天: 私家版, 1937, pp. 1-20.

일 시	장 소	내 용	
10시 15분		조선호텔 귀환	
		만주전람회 (本町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 (21~25) 환영 비행: 신용옥(愼鏞頊)의 동포호(同胞號)와 박봉지(朴奉祉)의 체신기(遞信機)	
4월22일 (목)		오전 9시 30분	도시사 회의 방청 (총독부 제1회의실)
		10시	경회루 박물관 시찰
		11시	미나카이 백화점 만주전람회 시찰
		11시 50분	조선호텔 귀환 휴식
		12시 30분	고이소 사령관 초대오찬 (용산 관저)
		오후 2시 30분	校洞보통학교 시찰
		3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찰
		3시 30분	和光教園 (觀水町) 시찰
		4시	용산역에서 일본육사 鮮滿시찰단과 동행한 황족 東久邇若宮 마중
		4시 50분	조선호텔 귀환
		6시 30분	경성은행회사(선만척식, 조선은행, 식산은행, 동양척식, 상공회의소) 연합초대연 (요정 喜樂)
			경성일보사 주최 만주 강연회와 영화회 (來靑閣) (오후 7시~10시)
4월23일 (금)		오전10시	비원 관람
		11시	남산 博文寺 방문
	仁川	오후 2시 37분	인천 도착
			인천항 감문 시찰, 월미도 방문, 휴게소에서 인천무역관 전시 에 관해 브리핑 받음
		오후 4시 25분	인천 출발
	京城	7시	관민(官民) 환영회 (明月館) 200여명 성황
		9시	오노 정무총감 초대 연회
			야채상 周萬仁 외 경성 거주 만주국인 대표들이 총리의 금일 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선호텔을 방문해 조선 골동품 증 정
4월24일 (토)		오전 9시 5분	미나미 총독, 오노 정무총감, 고이소 군사령관의 답방 (조선호텔)
		9시 30분	영등포 시찰 (조선맥주, 가네가후치(鐘淵)방적공장)
		11시	조선호텔 귀환
		12시	조선 관민 160여 명사 초대 오찬 (조선호텔)
		오후 2시 25분	무도(武道)시합 관전 (광화문동 조선武道場)
		3시 50분	경성역 출발 (북선 시찰 특별열차) 미나미, 오노 등 송영
	咸興	10시 52분	함흥역 도착, 松月여관(숙소)행
4월25일 (일)		오전 8시 5분	자동차로 長津행

일 시		장 소	내 용
		咸州郡 新興里	장진강 수력발전소 제1 발전소 시찰 시찰후 11시에 인클라인으로 황초령을 올라 기차로 환승, 12시 반에 하차해 다시 자동차로 환승
		長津郡 葛田里	장진강 수력발전소 제1 댐 시찰 전 총독 우가키의 별장에서 잠시 휴식 2시에 별장 출발
	오후 4시	咸南郡 東興里	장진강 수력발전소 제2 발전소 시찰
	오후 5시		함흥으로 출발
	6시 20분	咸興	송월여관 귀환
	7시		사사카와(笹川恭三郎) 함남 도지사의 만찬 (송월여관)
	10시 57분		함흥역에서 북행열차에 탑승, 함북 주을(朱乙)로 출발
4월 26일 (월)	오전 6시 34분	朱乙	주을역 도착, 오타카(尾高) 19사단장 등 영접 주을온천 선선각(仙鮮閣)에 여장 풀
	8시		기자단 회견 (선선각) 후 온천 휴식
4월 27일 (화)	오후 1시		羅南으로 출발
	2시	羅南	나남 도착. 함북 도청 방문, 도지사실에서 고지마(兒島高信) 함북 도지사와 공식 회담 19사단 사령부 방문, 25분간 사단 간부 면담 자동차로 청진행
		淸津	고말산(高抹山) 영춘정(迎春亭)에서 시내 조감 세관부두에서 도립수산시험장 시험선(白洋丸) 승선, 어항으로 가서 조선油脂주식회사 공장 시찰
	5시		국제호텔(숙소) 도착
			청진, 나남 유지 40여명을 초청해 피로연 (국제호텔)
4월 28일 (수)	오전 9시		자동차로 나진행
	12시	羅津	나진 도착 즉시 전망소로 가서 시내 조감 나진역으로 가서 점심식사를 하며 다구치(田口) 나진부윤의 브리핑을 들은 뒤 자동차로 웅기행
	오후 2시	雄基	웅기 도착, 전망소에서 시내 조감
	3시	羅津	야마토 여관(숙소) 도착
			요정 이즈모(出雲)에서 나진, 웅기 유지 십여명을 초청 피로연
4월 29일 (목)	오전 8시		야마토 여관 출발
	8시 15분		웅기선 승차, 도문 경유 신경행
	오후 9시 35분	新京	신경역 도착

* 출전: 京城, 毎日, 朝鮮 등 일간지 기사를 참조해서 작성. 방문시간은 신문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경성일보를 기준으로 했고,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처리.

만주학회 제18차 국제학술회의

토 론 문

- 「爵靑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최정옥) 토론요지
/ 權赫秀(중국 東北師範大學) 127

「爵靑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최정옥) 토론요지

權赫秀(중국 東北師範大學)

최정옥의 발표문 『爵靑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는 일제침략세력에 협력한 소위 “漢奸文人”이라는 이유로 중국학계에서 조차 제대로 연구되어있지 않는 만주국시기 중국인 작가 爵靑(劉佩)의 소설에 나타난 하얼빈(哈爾濱) 도시이미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전문연구로서 특히 文學史와 社會史的 시각을 함께 어우르면서 통합적인 文化史의 고찰을 지향하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위 논문은 크게 “하얼빈의 공간구획”(1)키타이스카야의 네온사인; 2)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슬럼) 및 “‘민족협화’의 ‘하얼빈’을 그리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爵靑의 소설에서 나타난 만주의 대표적 근대도시이자 국제도시인 하얼빈의 도시이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1930년대 초 데뷔하여 1940년대에 만주의 대표적 작가로 성장한 爵靑의 소설작품에서 그려진 하얼빈의 특징은 시각을 위시해 청각·후각·공감각적 표현이 돋보였고 특히 중국인 밀집지구의 어둠에 대한 섬세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 2) 爵靑의 소설에서 그려진 도시 하얼빈의 이미지는 일제침략기관 및 만주국 당국에서 발간한 하얼빈 가이드북의 그것과는 달리, 외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종의 용광로로서의 하얼빈이 아닌, 강렬한 감각적 인상으로 점철된 도시, 화려함 이면에 숨은 어두운 면이 부각되면서 그 지역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보여준다.
- 3) 일명 “동양의 파리”로서 한때 上海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화려한 국제도시 하얼빈의 어두움을 재만 중국인의 시각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爵靑을 비롯한 재만 중국인 작가들의 “파토스적인 것에 대한 거부”는 결국 만주국 건국에 대한 ‘수동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爵靑의 경우 서구 모더니즘 시와 소설에서 받은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훗날 그가 한때 “私淑”하였던 서구적 지성이 아닌 동양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만주를 발생체로 봐서 만주를 감수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향토에의 집착/구애

를 알고, 향토가 바로 자신의 발생체를 아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재기록하는 작업으로서 비록 일본 제국주의의 ‘近代의 超克’이나 ‘大東亞共榮圈담론’에 포섭되는 형태이지만 그 속에는 모름지기 저항의 힘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근대만주와 관련한 문학사적 연구가 중국학계의 경우 일제침략에 저항한 作家群을 중심으로 한 抗日文學(東北流亡作家 및 그들의 流亡文學)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학계의 경우 재만조선인작가들의 관련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온 사실을 감안할 때 그 곳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삶과 더불어 작품 활동을 전개해온 중국인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위 발표문은 비록 爵靑이라는 한 작가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연구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만주분위” 또는 “만주중심”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연구시각이라고 생각된다.

발표문에서 제시된 텍스트는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지옥(戀獄)』, 『하얼빈의 독창자(哈爾濱的獨唱者)』, 『어느 날 밤(某夜)』, 『하얼빈(哈爾濱)』, 『골목거리(巷)』, 『대관원(大觀園)』, 『歐陽씨 네 집안사람들(歐陽家的人們)』, 『얼어붙은 정원에 내려(凍った園庭に降りて)』 등 모두 7편의 중국어 소설작품과 1편의 일본어 소설작품으로서 위와 같은 작품 속에 나타난 하얼빈 도시의 어두운 내면에 관한 이미지들을 디테일(detail)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청각, 후각, 공감각적 표현”이 돋보이는 섬세한 감각 표현으로 요약하였는데 말하자면 섬세한 감각의 話者 및 그 텍스트에 대한 섬세한 감각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작정을 비롯한 당시 재만중국인작가들의 특성과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은 그 결과의 적합여부와 관련 없이 단순한 문학사적 접근을 넘어 문화사적인 통합적 고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 있는 연구자세와 노력으로 생각된다.

소설과 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토론자는 위 발표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결론에 대체로 동감하면서 향후 본 주제의 연구와 관련된 인물과 작품 및 작품의 배경으로 나타난 하얼빈의 사회역사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과 분석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대신한다.

1) 爵靑의 생애와 작품활동에 관하여. 그의 작품활동 경위(문단 데뷔경위, 만주의 대표적 작가로서의 성장과정 및 盛京文學賞과 大東亞文學賞 수상경위와 만주국 건국10주년 기념 작품 선정 경위 등) 및 그의 가족상황, 만주국 당시 및 그 후의 행적(長春소재 吉林大學도서관 근무? 1960년 or 1965년 사망?)에 관한 사실을 보다 자세하고 확실하게 밝혀 본다면 본 주제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들어가는 말”에서 “爵靑이라는 작가의 전체적인 창작특징 속에서 하얼빈이라는 근대도시가 어떻게 표상되어 있고, 그것이 그의 전체 작품 창작 경향에서 어떤 특징을 띠

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미리 밝혀 둔 이상, 만주국 시기 爵靑의 문학작품이 도대체 얼마나 되며 발표문에서 텍스트로 선택한 총 8편의 작품은 그의 전체 문학작품 중에서 어떠한 비중을 갖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재만중국인작가 群體 및 하얼빈의 사회역사상에 관하여. 爵靑을 비롯한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작가들은 일제침략 및 만주국에 저항해온 중국의 항일작가들은 물론 재만조선인작가들과도 다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자세한 고찰은 그중 한 구성원으로서의 爵靑이라는 작가연구에도 분명 필요한 것이며 특히 그가 소속되었다는 소위 冷霧派 문학그룹에 대한 실제적 접근과 설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아울러 당시 일본인에 의한 爵靑 논평과 더불어 당시 및 그후 중국문학계의 논평이나 연구견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배경지로 되는 하얼빈의 경우 작칭이 작품 활동을 하였던 만주국 시기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러한 변화가 작가의 작품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1932년 2월 5일 일본 관동군에 의해 점령될 당시 하얼빈에는 중국정부에 의한 東省特別行政區, 소련세력에 의한 中東철도부속지 등 서로 다른 나라의 서로 다른 사회체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혼돈상황이었는데 1933년 7월 1일에 만주국정부에 의해 하얼빈특별시가 설립되면서 하나의 통합된 행정통치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35년 3월 23일 소련당국이 총 1.7억 엔의 가격으로 중동철도를 만주국 정부에 “讓與”한 뒤 1937년 7월 1일에 하얼빈특별시가 폐지되고 濱江省직할시로 바뀌어지면서 일제침략세력 및 만주국정부에 의한 일원화된 통치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회역사적 변화로 말미암아 하얼빈의 도시 이미지 역시 크게 바뀌어졌을 것은 물론인즉 그러한 변화가 작칭의 작가생활 및 그의 하얼빈 관련 소설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 또한 향후의 연구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3) 爵靑을 비롯한 재만중국인작가들의 소위 “저항의지”에 관하여. 만주국시기 爵靑의 행적과 그의 작품으로 보아 “저항의지”운운은 아직까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의 경우 점령세력에 대한 “저항에 가담하지 않은” 점령지주민들의 반응을 자발적 “협력(collaboration)”, “순응(accommodation)” 및 소위 “합리적 협력”으로 나누는 등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온 사실을 감안할 때 만주국에서 여러 문인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여준 爵靑 및 그의 작품세계에서 소위 “저항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 및 그에 대한 치밀하고도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가 요구되는 것은 그만큼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끝)

